

경상북도 근대 공보지

『경북』 8

경상북도 근대 공보지 『경북』 8

지은이 : 경북연구회

옮긴이 : 최범순 (영남대학교 일어일문학과 교수)

박승주 (영남대학교 일어일문학과 외래교수)

윤경애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학술연구교수)

박려옥 (제주대학교 일어일문학과 교수)

정찬휘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발행처 : 경상북도 행정지원과

발행일 : 2025년 12월 22일

ISBN : 979-11-92320-55-7

일러두기

- 본 자료는 일본 관점의 표현과 용어가 많지만 1차 자료로 활용되는 상황을 고려해 원문의 표현과 용어는 그대로 옮겼다. 이에 해당 표현과 용어 등은 옮긴이의 입장이나 역사 인식과 별개임을 밝힌다. 단 ‘내지, 내지인, 일본해, 일청전쟁, 일러전쟁, 이조시대’ 등은 ‘일본 본토, 일본인, 동해, 청일전쟁, 러일전쟁, 조선시대’ 등으로 바꾸어 옮겼다.
- 본 자료가 1차 자료로 활용될 것을 고려해 사진과 이미지 등도 최대한 빠짐없이 옮겼다.
- 일본의 용어, 어려운 한자어, 설명이 필요한 어휘 등은 각주를 달아 설명했다.
- 원자료의 연도 표기는 모두 일본 연호 표기 방식으로 되어 있으나 번역 과정에서 서기로 변환해 옮겼다.
- 일본인 인명은 원자료에 성(姓)만 표기된 경우라도 확인이 가능한 인명은 이름을 추가해서 옮겼다. 일본인 이름 발음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일반적인 방식에 따라 이름 한자의 음독 발음으로 옮겼다.
- 지명은 한반도 일본인 거주 구역의 일본식 지명이라 하더라도 한자의 한글 발음으로 옮겼고, 일본의 지명은 일본어 발음을 한글로 표기했다.
- 각종 단위는 원자료 단위를 그대로 옮기면서 필요한 경우 설명 각주를 달았다. 단, 거리 단위 ‘리(里)’는 일본과 한국의 ‘리’ 단위 차이로 인한 오독을 막기 위해 한국 ‘리’ 단위로 변환해서 옮겼고, 원자료 화폐 단위 ‘圓’은 ‘원’으로 번역했다.

THE KEIHOKU

北慶

號四第年二第

大正十二年一月十八日第三種郵便物認可
大正十二年四月五日發行(每月一回五日發行) 慶北第二年第四號

四月號

會 究 研 北 慶


新調するなら
最新スタイル

研究と改良と
熱心と親切と
約束の實行と

華客本位の
大邱府十二間道路

旭洋服店

電話八〇三番
致信電零アウ



아사히 양복점

대구부 12간 도로
전화 803번
발신 전신약호 (アサ)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양복을 새로 맞춘다면 최신 스타일로.
연구와 개량과 노력과 친절과 약속 실행을 가게
의 방침으로 삼아 단골손님 본위



木村時計店

營業課目

各種輪具
眼鏡金身
純金指裝

各國時計類
貴眼鏡類

木村時計店

大邱府上町道臨側
電話五五五番
總機電話九三三番

기무라 시계점

대구부 상정 도청 옆
전화 555번
대체 계좌 경성 9532번

영업 품목
각국 시계, 쌍안경 종류, 귀금속 /
각종 안경, 순금 반지, 장신구



요시다 상점

여행용 도구 전문점
가방, 버들고리(柳行李)¹⁾, 바스켓(basket)/바구니

우리 가게 자랑
특별 맞춤
대구 특산
동양기류회사(東洋杞柳會社)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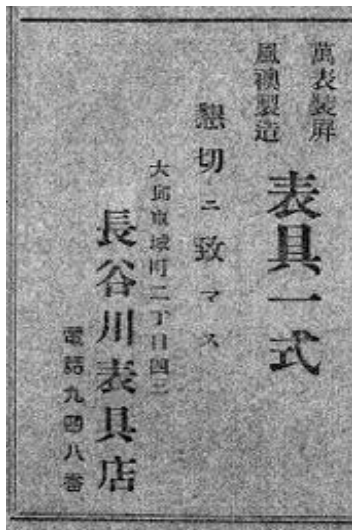
제조, 수선을 원하시면 응합니다.
가치, 상품, 그리고 비평까지

대구역 앞 12간 도로(동아각(東亞閣) 옆)
(전화 : 동아각 중개 349)
월부 판매 필요하시면 상담해



나가토 사진기점

대구 동성정 1정목
사진기 및 재료 일습
소부(燒付) 현상²⁾



하세가와 표구점

대구 동성정 2정목 43
전화 948번
병풍 표장(表裝)
방풍 맹장지
표구 일습
친절하고 정중하게 해드립니다

1) 버드나무로 만든 상자 모양의 그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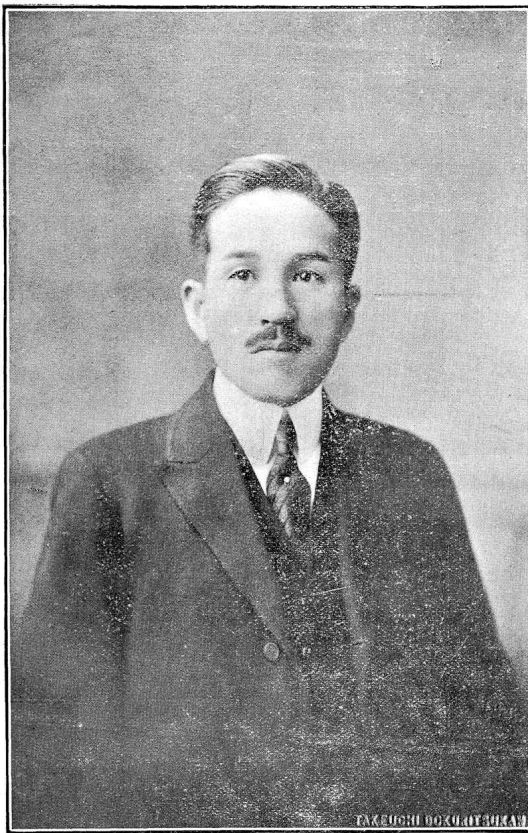
2) 인화지에 원판 음화(陰畫)를 덧대어 빛을 비추어 명암이 실제와 같이 보이는 사진인 양화(陽畫)를 말한다.

大弓具 附屬品一式
 劍道具 柔道具一式
 齒科器械及材料
 外ニ文具、雨具類
 防水布、張雨傘

大 府 東 郡 一 町 日
 牧 瀨 伊 左 衛 門 商 店
 振 替 京 城 一 〇 八 三 七 番

마키세 이자에몬 상점

대체계좌 경성 10837번
 활, 검도, 유도 장비 일습
 치과 기계 및 재료
 그 외 문방구, 우비류
 방수포, 종이우산



회 본 회 장 사 와 다 토 요 타 케 (澤田 豐 丈) 최 근 모 습

본회 회장 사와다 토요타케(澤田豐丈) 최근 모습

☒ 景全の寺石浮るた見りよ腹山 ☒



산의 중턱에서 본 부석사 전경

부석사

부석사는 부석면 봉황산 기슭(영주 읍내에서 북동쪽으로 약 6리, 소천(韶川) 시장에서 29정(町) 떨어진 곳)에 있으며, 지금으로부터 1,240여 년 전, 즉 신라 문무왕 8년(일본 덴무 천황 4년)에 의상대사에 의해 창건되었다. 그 구조는 기묘함의 극치를 이루어 건축물 중에서도 유례가 없으며, 실로 조선의 이름난 사찰이자 고찰(古刹) 중 하나로 손꼽힌다. 1919년, 1만여 원의 국비 보조로 수선을 시행하였다. 경내에는 석룡(石龍), 부석(浮石), 선비화(仙飛花)의 세 가지 기이한 것이 있다.



미이시 제화점(三石製靴店)

대구부 동성정 사거리 남쪽
전화 807번
최신 유행형
원재료 엄선과 품질 본위의 구두
제조 판매 및 부속품 일체
재판소, 육군, 기타 제 관아 지정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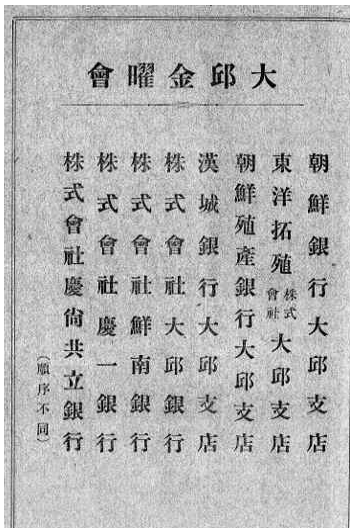
보기만 하는 것도 괜찮으니 와서 보십시오



하쿠쓰루(白鶴) 식당

주인 다카키 신지(高木信二)
대구 전정(田町)(전화 616번)
근하신년

싸고 맛있는 서양요리!!
시대의 요구가 낳은 최신식 식당



대구 금요회

조선은행 대구지점
동양척식주식회사 대구지점
조선식산은행 대구지점
한성은행 대구지점
주식회사 대구은행
주식회사 선남은행
주식회사 경일은행
주식회사 경상공립은행 (순서 부동)

시무라 조헤이(志村長平) 상점



영업품목

런던 그린(green) 회사³⁾, 런던 배터즈비(Battersby) 회사⁴⁾, 이탈리아 보살리노(Borsalino) 회사⁵⁾, 도쿄모자주식회사⁶⁾, 오사카 하마타니(濱谷) 제모(製帽) 회사⁷⁾, 오사카 하구루마(ハグルマ) 제모회사⁸⁾ 각 제모 회사 제품 특약 판매

- ◎ 삼도(三都)⁹⁾유행 남녀양산
- ◎ 털실 제품, 메리야스류, 양복 잡화 각종
- ◎ 특제 학생모자, 학생화, 각종 물품 구비, 수량 관계없이 주문해 주십시오.

어린 일본인 점원 구함
 대구 원정
 전화 606번
 대체 계좌 43189번

* 원문은 광고-목차-광고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편집 체제상 광고-목차 순으로 재배치하였다.

3) 미상.

4) 1895년에 개업한 영국의 모자 회사로 주로 남성용 중절모를 생산.

5) 1857년에 주세페 보살리노(Giuseppe Borsalino)가 이탈리아 북부 도시 알렉산드리아에서 창업한 고급 모자 회사.

6) 1892년, 서양 모자를 일본에서 생산할 목적으로 창업한 모자 회사.

7) 1894년에 창업한 모자 회사로 해외 수출용 모자도 생산하였다.

8) 미상.

9) 도쿄, 교토, 오사카.

□ 목 차

경상북도 근대 공보지 『경북』 8

- ◆ 권두언 / 1
- ◆ 회원 모두에 고함 / 2
- ◆ 물품 공용론(상) / 5
- ◆ 부석사 안양루 중창重創 연대에 대해서 / 12
- ◆ 일본 농회론(1) / 17
- ◆ 대구부 소재의 각 청廳과 세비 / 27
- ◆ 경주군 제지 개황 / 30
- ◆ 독행자 및 우량 부락(상) / 33
- ◆ 경주와 교재 연구(2) / 39
- ◆ 휘보 / 48
 - 제3회 도평의회 / 48
- ◆ 독행자 및 우량 부락(하) / 74
- ◆ 휘보 / 80
 - 1923년도 세입출 예산 / 80
 - 경북 종지와 일본 / 81
 - 청송 도기조합 설치 / 82
 - 의성 이외 4개 군의 산물 품평회 / 82
 - 제지 강습회 종료 / 83
 - 봉화군 사치에서 근검으로 / 84
 - 서임사령 / 85
 - 산업 계획 요강(승전) / 94
 - 글릭 박사의 강연 / 108

- ◆ 경상북도 명문가와 왕년의 흥학 (승전) / 110
- ◆ 회보 / 132
- ◆ 경북연구회 규약 / 139
- ◆ 해제 / 142

권두언

문화의 성숙은 인간을 타락으로 이끌기 쉽다. 문화는 평화의 산물이며 평화는 본디 우리들이 바라는 바이지만, 평화가 가져오는 폐해는 인류의 본능을 부추기는 즐거움이다. 한없이, 만족할 줄 모르는 즐거움의 욕구는 결국 저속하고 추잡해지며 어리석음에 빠진다. 그래서 신체는 허약해지며 정신은 나약해지고 생기고 강건했던 기상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린다. 무용함에 있어서는 겨루는 자가 없었던 미카와(三河) 무사¹⁰⁾의 자손은 어느덧 폭이 좁은 큰 칼과 작은 칼을 단정치 않게 밑으로 처지게 차고는 꽃나무 아래에서 부채로 해를 가리는 열간이 무사가 되어 버렸다. 도쿠가와(徳川) 치하의 태평은 이때 이미 그들을 썩어 문드러지게 한 원인을 만든 것이다.

문화의 음덕은 인간으로 하여금 꿀 같은 달콤함에 빠지게 한다. 결국 그 결과 여독의 숙취를 면할 수 있는 자는 드물다. 문화의 원천은 도회에 있음과 동시에 부패, 타락도 도회에서 침투하기 시작한다. 문화의 여폐를 문화의 진수로 착각하여 어리석은 동경을 반복하는 사이에 어느덧 그 독에 중독되어 버린다. 이러한 경우에 필요한 강건한 기상은 청아한 전원에서만 홀로 건전하게 길러진다. 인간은 도회문화의 고마움을 맛보는 한편으로 필히, 한 모금의 청량제를 잊어서는 안 된다.

10) 도쿠가와 이에야스(徳川家康)의 에도막부 성립에 공헌한 미가와 지방(현재의 아이치현 일부) 출신의 가신을 일컫는다.

회원 모두에 고함

경북연구회 회장 사와다 도요다케(澤田豊丈)

이번에 제가 경북연구회 회장으로 추천받아 일을 맡으면서 여러분과 지방행정 및 기타 제반 사항을 연구하고 조사하는 기회를 얻은 것은 매우 기쁜 일입니다.

무릇 우리가 사회를 대할 때는 항상 추이와 변천이 이어지는 세태를 통찰하고, 끊임없이 제반 지식을 함양해 세상의 진보에 뒤처지지 않는 길을 강구해야 합니다. 특히 한발 앞서 솔선해서 사회에 공헌할 것이 있다면 그 새로운 지식을 추구할 때 모두에 앞서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생각건대 본 연구회의 많은 회원 가운데는 산간벽지에 있다 보니 생기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은 주위의 자극이 적어서 쉽게 안일해 지거나 권태를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더욱 주의하고 분발해서 널리 지식을 섭취해 신선한 의지와 기운으로 일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러한 때, 본 연구회처럼 각 지역에 걸쳐 많은 회원을 망라하면서 오로지 제반 사항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 있는 것은 실로 시의적절합니다. 회원이 연구회를 통해 자연스럽게 서로 연마하고 쉬려(淬礪)¹¹⁾하는 기회를 많이 얻어서 본 연구회가 장차 더욱 발전하는 것은 제가 제군과 함께 희망하는 바입니다.

현재 세계의 대세는 크게 전환해 평화 건설과 문화 축진을 향해 노력하는 시대가 출현했습니다. 이러한 때에 특히 관공리 일

11) 칼이나 도끼 따위의 날을 달구어서 물에 담갔다가 솥돌에 닦. 스스로 힘써 함.

을 하며 신지식으로 사회에 진력하려는 회원 제군은 시대의 추세를 가장 잘 헤아려 솔선해서 사회의 진보에 공헌한다는 각오를 해야 합니다. 되돌아보면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사상계 전반은 일시적으로 심하게 교격(矯激)¹²⁾해진 감이 없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자신(自信)과 자중(自重)이 부족한 무리가 함께 이 소용돌이에 뛰어들기도 했지만, 지금은 팽배했던 탁한 물결이 마침내 사라지고 아름다운 빛이 봄 바다에 넘쳐나는 광경을 보여주는 것은 실로 기뻐해야 할 현상입니다. 이러한 때에 항상 기운을 내어 계도(提撕誘啓)할 임무를 맡아 공직에 봉사하는 자와 사회의 공익을 고념(顧念)¹³⁾하는 자의 임무가 막중하다는 것은 굳이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는 제가 제군과 함께 깊이 유의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이 임무를 잘 견디지 못할 것 같으면 쓸데없이 자기 자신의 힘만을 믿지 말고 항상 여러 사람이 일치 협력해 이루어 낸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일상적인 임무는 각자 달라도 모두가 그 임무에 대한 책임을 중시해야 비로소 임무를 완수할 수 있습니다. 만일 사람들이 하루라도 책임을 소홀히 하면 사회는 곧바로 부패와 타락의 늪에 빠질 것입니다. 특히 매일 공무에 진취(盡瘁)하고 공익을 고려하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하는 자는 그 책임이 가장 크다는 것을 자각해야 합니다.

공무에 힘쓰고 공익을 도모하는 길은 오로지 그것에 대한 성의만이 있을 뿐입니다. 만일 남이 빼앗을 수 없는 성의를 가진 사람이라면 스스로 용기를 발휘해 어떤 어려운 일이라도 수행해 낼 수 있습니다. 예부터 대업을 성취하는 과정을 보면 성의에 기초하지 않은 것은 적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맡은 일과 처리하는 방

12) 언동이 지나치게 과격함.

13) 보살핌. 후사를 걱정함.

법에 크고 작은 차이가 있더라도 책임을 다해 성과를 거둔다는
점에서는 어찌 차이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제군과 함께 공직 봉
사에 더욱 성의를 다하고자 하며 함께 협력해서 위와 같은 뜻을
구현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물품 공용론(상)

노무라 겐지로(野村 鉦次郎)

스스로에게 물품회계 관리 사령을 교부하여 그 관리가 된 나는, 주변의 여러 직원을 향해 한마디 기염을 토하고 나서 그 회계 도당들에게 집무상 참고가 될 만한 것을 제공하고자 한다.

명제는 평범한 물품 공용론¹⁴⁾. 말하고자 하는 바 또한 평범하거나 진부하여 구토를 유발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국가 혹은 단체의 재산 관리에서 물품회계 관리인 내가 홀로 중책을 완수하고자 아무리 애써도 만약 외부의 정세, 즉 주위 다수 직원의 자각이 결여되어 있으면 결코 완벽히 재산을 관리할 수 없다. 물품 공용론과 같은 이론은 자칫하면 현장에서 등한시되기 쉬우므로 부디 논의는 식자들에게 맡기고 여기서는 공존공영에 필요한 이 유를 천명하고자 한다.

관찰 여하에 따라 회계 사무는 복잡다단하여 어떤 일을 취급하고 있는지조차 곧바로 명쾌하게 답변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보면 회계 사무 정도의 간단명료한 직분은 어찌면 달리 없을지도 모른다. 즉, 금전, 물품, 부동산 출납 혹은 보관을 하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자세히 설명하자

14) 일본 물품관리법에서 '물품'이란 국가가 소유하는 동산 중에 다음 열거한 항목 이외의 것 및 국가가 공용(供用)을 위해 보관하는 동산을 말한다. 1 현금, 2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일본은행에 기탁하는 유가증권, 3 국유재산법 제2조 제1항 제2호 혹은 제3호의 국유재산. 이 법률에서 '공용(供用)'이란 물품을 그 용도에 맞게 나라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일본 중의원 홈페이지 참조. https://www.shugiin.go.jp/internet/itdb_housei.nsf/html/houritsu/02419560522113.htm)

면 그중에는 정부 소유의 금전과 물품이 있는가 하면, 정부 보관의 금전과 물품도 있다. 전자는 국가의 세계(歲計), 다른 말로 정부 재정을 일컫는 것으로 세입세출 예산에 입각한 금전 혹은 물품 보관을 의미한다. 후자는 이러한 예산과 관계없이 소유권이 정부에 속하지 않는 금전으로, 소위 세입세출외현금¹⁵⁾이라 칭하는 것인데 법률, 칙령, 혹은 종래의 규칙에 의해 정부 보관 의무가 있는 것을 정부가 보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회계규칙 제120조, 보관금규칙 제1조). 물품의 경우 금전과 달리 법률, 칙령 혹은 종래의 규칙에 보관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각 성(省) 대신의 지정주의(指定主義)에 따라 정부가 보관할 필요가 있는 물품이 있을 때 각 성 대신이 그것을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1889년 6월 칙령 제84호 물품회계규칙 제1조 제2항). 조선에서 지정된 것은 회계사무장정 제126조에 일본은행 소재지 외의 관서(官署)에서는 유가증권을 물품회계 관리에게 보관하도록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후자의 보관 금품에 대해서는 정부가 단지 보관하는 것에 국한되어 있다. 그러므로 물품의 경우 설령 보관 문제는 발생하더라도 공용(供用)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본 논의의 범위 밖 사항이라는 것이 명료하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함으로써 정부 소유의 물품이 국가 회계상 혹은 재정상 중요한 지위를 점하고 있다는 것도 명료해졌다. 그런데 실제 관찰한 바를 기탄없이 말하자면, 물품이 금전에 비해 경시되어 등한시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은 매우 유감스럽기 그지없다. 최근 군비축소나

15) 세입세출예산에 계상된 확정적인 금액이 아니고 일정한 요건이 성취되면 반환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일시적인 보관금을 말한다. 세입세출외현금에는 보증금(입찰·계약·하자보증금 등), 보관금(건강보험료, 공제회비, 기여금, 생활용자금, 채권압류, 학자금, 세금, 대한공제 대부,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기타 잡종금(국고사용잔액반환금, 통신요금, 국군장병위문금, 기타잡종금 등)등이 있다.

행정정리, 혹은 국민경제나 사회경제를 재건한다며 국가가 열심히 절약을 선전하거나 실행에 노력하고 있으나, 정부 물품의 절약 문제를 제창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래서 여기서 평범한 문제 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명제를 특별히 제창하여 이 점을 언급하고자 한다. 회계상 물품의 지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느낀 내가 나서서 물품 공용의 의미 및 물품 공용의 회계법규상의 지위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물품 공용의 의미를 통속적으로 표현하자면, 물건을 필요한 곳에 제공한다거나 더욱 간단히 말해 물건을 ‘사용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학문적 혹은 회계법규에서 고찰할 때는 조금 번거로운 해설이 필요하다. 물건이란 무엇인가, 민법에서의 물품과 회계법규에서의 물품은 같은 의미인가, 그리고 통속적인 공용과 회계법규에서의 공용은 같은 의미인가와 같은 의문에 봉착하게 된다. 민법에서 물건이라 칭하는 범위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단히 광범위한 의미 갖고 있어, 유체물(有體物) 즉, 형체를 가진 것이라면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불문하고 모두 물건으로 취급한다. 회계법규에서 보면, 분명 단순히 물건으로 취급하는 경우는 국유재산인 물품 혹은 금전을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런데 이것을 단지 물건이라 하지 않고 물품이라고 칭할 때, 민법에 이 용어가 없더라도 민법에서의 동산을 물품으로 보아도 지장이 없을 것이다. 토지 및 정착물을 제외한 다른 모든 물건을 동산이라 하며 무기명채권도 역시 동일하게 동산으로 간주되므로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동산의 범위와 물품회계규칙에서의 물품은 같은 의미인가라고 묻는다면, 형식적인 의미는 같을지라도 실제로는 범위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물품회계규칙에서 물품이

라 칭하는 것은 정부에 속하는 기구, 기계, 비품, 소모품, 동물, 그 외 일체의 동산을 말한다. 이러한 점에서 보자면 민법에서 동산과 같은 의미로서, 여기서 발생하는 일체의 취급품은 어떤 종류의 동산인가를 불문하고 동일하게 취급되어 동산의 관리 기관인 물품회계 관리에게 이것을 보관 출납하는 직책에 임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무기명채권인 유가증권의 보관 출납은 물품회계 관리에게 관리 의무가 있지 않고 별도로 정해진 유가증권취급규정에 따라 유가증권취급 주임관의 관리에 속하므로, 동산과 물품을 동일한 의미로 보고 취급할 때는 물품회계규칙상으로는 무기명채권이 제외되는 것이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무기명채권은 유가증권이므로 동산에 해당되고, 동산이므로 물품이 되며, 물품이므로 물품회계규칙의 지배하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물품회계규칙 제4조 물품을 보관하고 이것의 출납을 담당하는 자를 물품회계 관리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해당 관리의 관리 범위에 넣어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제외되어 관리상 권리와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앞에서 서술한 것처럼 정부에 보관 의무가 있는 유가증권이면서 일본은행 소재지 외의 관서이므로 일본은행에 위탁하기 어려운 사정 때문에 부득이 물품회계관리에게 이 유가증권을 보관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는 물품회계규칙 제4조와 관계없는 것으로, 물품회계규칙에서의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물품의 의미를 불완전하나마 설명했으니 이제 공용의 의미를 간단히 설명하고자 한다.

통속적으로 물품의 공용이란 전술한 바와 같이 물건을 필요한 곳에 제공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이를 회계법규에서 보자면 단순히 물건을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불

완전한 해석이라 할 수밖에 없다. 국가 혹은 공공단체 등이 소유하는 물품은 애초에 그것을 소유할 때 일정한 용도를 갖추어 국가 혹은 단체의 권내에 들여온 것이므로, 물건에는 물건 자체의 기능 외에 일정한 직무 범위가 존재한다. 따라서 직무 범위 외에 멋대로 사용하도록 할 수 없다는 것이 통속적 의미의 공용과 회계법규상 공용의 다른 점이다. 여기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들 단체의 경제는 예산에 따라 운용되고 처리되는 것으로 예산에는 인건비나 물건비를 막론하고 일정한 용도가 있다. 가령 면작사업비로 구입한 팽이는 면작사업에 공용되고 잠업장려비로 구입한 팽이는 잠업장려사업에 공용되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의 용도가 잘못된 것이 된다. 지불 범위에서 예산의 유용이나 과목과 다르게 지출되는 것 등이 성가시다 하더라도 예산이 물체화하여 이후 예산 목적에 어긋나게 멋대로 공용되면 결국 예산이 예산 본래의 효용을 잃는 것이 된다. 이러한 전후 사정에서 고찰하면, 물품은 예산에 의해 직무 범위가 정해져 있고 그 한도 이외에 멋대로 구속이나 지배를 받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이 이론을 절대적인 것이라 주장하면 폐해가 발생한다. 즉 사업이 중지되더라도 해당 사업비에 포함된 물품은 다른 용도로 전용될 수 없다는 식으로 편협하게 해석하면, 예산의 팽창을 초래할 뿐 아니라 유효물을 사장시켜 경제성을 배반하는 좋지 못한 조치를 행하게 된다. 그러므로 각각의 직분에서 제외된 이후에는 통속적인 공용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게 되더라도 그때까지는 물건에 일정한 직분이 있어 이 직분의 유무가 통속적인 공용과 법규상 공용의 차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 물품을 공용하는 관계나 지위가 회계법규에 어느 정도로 규정되어 존재하는가 살펴보니

물품회계규칙 제10조 물품회계 관리는 물품의 출납 장부를 갖추어 그 출납 사실을 등록해야 한다.

물품의 소모, 매도, 망실, 훼손, 생산으로 인한 소비 및 기타 물품회계 관리의 보관에서 사라진 것을 출(出)이라 하고, 매입, 생산, 기타 보관에 속하게 된 것을 납(納)이라 한다.

위 규정에 배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규정의 어구에 ‘공용’이라는 단어가 없고 일견 명료하지는 않으나 소모품의 소모를 공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비품의 공용에 상응하는 용어는 없다. 이는 비품이 소모품과 달리 비품 본래의 성질상 비교적 소모하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용할 때마다 물품회계 관리의 보관에서 사라지는 것으로 보지 않는 관계상, 비품의 공용 중에는 항상 해당 관리의 권내에 소재하는 것으로 하고 규정의 형식을 물품회계 관리의 권내에서 출입하는 것만을 규정해 수중에 있는 것을 규정하지 않는 방식을 채택한 것이다. 그러므로 비품의 공용이라는 용어 혹은 이에 상응하는 용어가 이를 규정해야 할 물품회계규칙 제4조에 언급되어 있지 않은 이유이다. 이와 같은 관계에서 공용이 존재하고 이와 같은 지위를 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용을 형식적으로 관찰한다면 장님 코끼리 만지기나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 명제를 게재하여 논의하는 가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겠으나, 실질적으로 관찰한다면 물품의 생명이나 효용은 이 공용에 의해 발휘되어 결정되는 것이므로 공용은 실로 물건에 있어 예산 혹은 경비의 정수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의 세계나 단체의 경비 중에 물건과 관련된 경비가 크게 오르는 것은 새삼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런 거액의 물건비가 자칫하면 공용의 영역으로 들어와 등한시되어 공용을 온전히 하지 못해 물건비를 헤프게 쓰거나 예산

의 팽창을 초래해 결국 재정을 재정비해야만 하게 되는 상황을 야기하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공용은 결코 그 가치를 얽보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물품을 어떻게 공용하면 경제적으로 혹은 재정적으로 적절한가, 아니면 공용에서 부당한 조치가 있을 경우 어떤 책임이 있는가 등으로 논의를 진전시키고자 하나 마침 회계 연도 말기에 임박해 잡무에 쫓겨 글을 더 써나갈 수 없으니 우선 여기서 마무리한다. (미완)

부석사 안양루 중창(重創)¹⁶⁾ 연대에 대해서

조선총독부 고적조사과 촉탁 와타나베 아키라((渡邊彰)

신라의 고승 의상 국사(國師)가 당시 국왕의 특명으로 창립한 옛 사찰 고적으로 유명한 영주군 부석사에는 고려시대에 제작된 무량수전이 있어 더욱 유명하다. 또한 오래된 벽화가 있어 세인들이 더욱 더 진귀하게 여기고 있으며 그 보존에 대해서도 작년 부터 총독부도 상당한 비용을 들여 고대 미술이 오래도록 전승되도록 하는 데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바이다. 그런데 최근에 부석사 안양루 중창기(重創記)¹⁷⁾를 사명대사가 작성하였으며 게다가 손수 쓴 글씨를 편역에 조각해 걸었다는 것이 발견되었고, 이를 세상에 소개할 기회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먼저 절의 소재지 관할 도청에서 발간하는 경북연구회의 잡지를 빌려 이를 세간에 알리고자 한다.

사명대사는 서산대사의 상족(上足)¹⁸⁾으로, 임진왜란 당시에 법의재상(法衣宰相)이라 불렸던 위인이다. 그러한 위인임을 명백히 증명하는 일화를 말하자면, 전후 처리를 위해 전권대사로 임명되

16) 낡은 건물을 헐거나 고쳐서 다시 지음.

17) 사명대사가 1580년(선조 13)에 지은 안양루 중창기를 1644년에 새긴 현판이다. 사대부들이 즐겨 찾던 승경지로서의 부석사의 입지와 안양루에서 보이는 장엄한 경관을 흥취 있는 문장으로 표현하였다. 1555년에 화재로 소실되었던 것을 1576년 여름에 석린(石麟) 스님이 중수를 시작하여, 1578년 가을에 경휘(敬暉) 스님이 단청을 마쳤다. (대한불교조계종 <http://www.koreansansa.net/ktp/board/boardView.do;jsessionid=23687370C7446207177B591A51B95B5F?keyField=&keyWord=&nowPage=1&menuCode=02010301&viewType=&buletinCode=23&templeCode=>)

18) 스승의 대를 이을 여러 승려 가운데에서 가장 높은 사람.

어 일본에 건너온 자신의 사명을 부끄럽지 않게 완수한 것이다. 이 일만 보아도 그가 위인이라는 데 이론을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지금 부석사에 걸려 있는 이 위인의 필적을 새긴 편액은 시대를 기리는 유익한 하나의 자료라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344년이나 되는 먼 과거에 위인의 필적이 목판에 새겨져, 찾는 이도 적은 산사의 한 문루(門樓)에서 전해지는 것은 하나의 진기물로서 존송할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부석사 목조 건축물이 임진왜란 당시 전란을 면했다는 사실(史實)을 말한다는 점에서도 유익한 자료로서 그 가치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오늘날까지 세인의 이목을 끌지 못한 주요 원인은 실물이 초서체 휘호로 쓰여 있어 해독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따라서 1922년 10월 부석사를 찾은 연유는 이를 해독해 편자의 문장에 나타난 절조를 드러내는 한편 안양루 중창 연대의 오류를 정정하는 데 입증 자료로 삼고자 하는 데 있다.

사명대사가 쓴 중창기에 따르면 고적조사보고서에서 순치(順治)¹⁹⁾ 원년 갑신년(1644)에 중창되었다고 조사 결정한 판단은 완전히 잘못된 것임을 증명한다. 여기에 그 개요를 서술하고자 한다.

1) 부석사 안양루는 명나라 가정(嘉靖) 34년 을묘년에 화재로 소실되었으니, 이는 조선의 명종(明宗) 10년, 일본의 고지(弘治) 원년, 서력 1555년에 해당한다.

2) 부석사 안양루는 명의 만력(萬曆) 4년 병자년에 재건 공사를 시작했으니, 이는 조선 선조 9년, 일본의 덴쇼(天正) 4년, 서력 1576년에 해당한다.

3) 부석사 안양루는 명의 만력 6년 무인년에 채색을 마쳤으니, 이는 선조 11년, 일본의 덴쇼 6년, 서력 1578년에 해당한다.

19) 중국 청나라 세조 때의 연호로 1644년부터 1661년까지 쓰였다.

4) 부석사 안양루 재건에 대해 상기와 같이 경과를 상세히 밝혀놓은 것은 사명대사가 쓴 중창기이다. 이 중창기는 사명대사가 37세 되던 때 제작한 것으로, 명나라 만력 8년 경진년에 붓을 휘둘러 구름이 날고 용이 뛰어오르는 풍취를 오늘에 남긴 것이 바로 이것이다.

山之脉杳接白頭 水之派遙連東海 雄據南州虎蹲東海 鳳凰其名而鬱乎蒼蒼 鍾靈儲瑞釀出乎南國之精英者也 寺在其間額曰浮石 經始新羅風雨千秋曾幾爲 風雲雨之所侵又幾爲士君子之遊暨往在乙卯之春赤帝孫一起羌雲閣之燒矣愁水咽焦土十年 長老石麟其名者憤然與新之志於 丙子夏始役 斧者斧之鉅者鉅之鞭其根斫松骨礎而固其柱瓦而修其漏 越戊寅秋禪子敬暉亦塗彩迄 不數年間巋然 傑閣儼若天成焉 非神功密助能若是乎 烟銷秋靄皓月浮空 有羽化而登仙趣 爲臨千里 頭出窮蒼 有昇天而接星趣 西瞻少伯 暮雨麗色 有滕王趣 東望清涼 秋雲杳杳 有重山趣 遊子登臨 有思鄉之心也 孤臣登臨 有憂國愛人君之情也 道士臨之有骨不換而直御冷風也 禪子臨之不用功而濟於禪定也 然則一閣成而衆樂具焉 何必曰賢名而後樂此也 於戲 殊功偉績 與山河俱 宜銘厥德以示無窮 使後之來者 亦猶今之視昔也

四溟狂漢記時庚辰秋七月下澣也

順治元年甲申二月 日 山人 (편역 게시자는 무기명)

부석사 안양루 중창기 번역²⁰⁾

산줄기는 백두산과 아득히 닿아 있고 물의 갈래는 멀리 동해와

20) 원문의 이해를 위해 서울대학교 규장각 양진석 박사의 번역을 참고해 번역문을 게재하였다.(출전: 한보광(태식), 2011, 四溟堂 惟政의 정토사상, 정토학 연구, 16, 9-51.)

이어졌네. 남쪽 고을에 웅장히 자리하여 동해를 향해 호랑이가
웅크린 듯하고, 봉황이라 이름할 만하니 푸른 기운이 울창하다.
신령한 기운이 서기를 모아 남국의 뛰어난 정수를 빚어낸 곳에
절이 있어 그 이름을 ‘부석’이라 하였으니 신라 때 세워져 천년이
흘렀구나. 바람, 구름, 비에 깎인 것이 몇 번이며, 사군자가 놀면
서 이른 것이 몇 번인가. 을묘년(1555년, 명종10) 봄 큰불로 운
각(雲閣)이 타버리니, 물이 오염하는 듯 불에 타 황폐한 모습 근
심한지 10년이나 되었다. 장로 석린이 분연히 새로이 하겠다
는 생각으로 병자년(1576년, 선조9) 여름에 처음으로 시작하여, 도
끼로 베어낼 것을 베고, 톱질할 것은 톱질하고, 뿌리를 털고 송골
을 깎아서 기초를 만들어 기둥을 굳건하게 하고 기와를 씌워 새
는 곳을 수리하였다. 아. 무인년 가을에 선자인 경휘(敬暉)가 또
한 색을 칠하였는데, 몇 년 되지 않은 사이에 홀로 우뚝 서 있
니, 빼어난 모양의 누각은 마치 저절로 만들어진 듯하다. 신공으
로 몰래 도와준 것이 아니면 어찌 이와 같을 수 있으랴. 안개가
걸히고 구름 낀 가을, 밝은 달이 하늘에 떠 있어 날개가 돌아 신
선이 되어 하늘을 날고 싶고, 천리를 달려가 머리를 하늘로 내밀
어 하늘에 올라 별을 접하고 싶네. 서쪽으로 소백산을 바라보니,
해질 녘 내리는 비 고운 모습은 등왕각(滕王閣)의 운치가 있고,
동쪽으로 청량산을 바라보니 가을 구름 아득하여 산들이 겹겹이
펼쳐지네. 나그네가 이곳에 오르면 사유하는 마음이 들 것이고,
임금에게 버림받은 신하가 이곳에 오르면 나라를 걱정하고 인군
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것이다. 도사가 이곳에 오면 선골로 바
꾸지 않아도 곧바로 찬바람을 거느리게 될 것이며 선자(禪子)가
이곳에 오면 공을 들이지 않아도 선정의 경지에 이르게 될 것이
라. 그리하여 큰 누각이 만들어졌으니 많은 즐거움이 갖추어졌도

다. 어찌 현자(賢者)라고 해야만 이와 같은 것을 즐기겠는가. 아
아. 남달리 빼어난 공적이 산과 강과 함께 갖추어졌으니, 마땅히
그의 덕을 새겨서 무궁하도록 드러내어, 나중에 오는 자들에게도
지금 우리가 옛 것을 보는 것과 같게 할 것이다.

사명광한(四溟狂漢)이 쓰다. 경진년 (1580, 선조13) 가을 7월
하순.

순치 원년 (1644년) 갑신 2월 일 산인(山人)

신간 안내

○ 법률 경제 상식 일반 전 1책

(46판 250쪽. 천으로 표지 장정, 금박으로 글자 삽입.

정가 1원 20전 송료 6전)

본 책은 전에 경상북도 경무부 및 경무총감부 경무국에 근무한 나카타 덴페이(中田伝平)씨가 현재 대구부 밖 안심면에 거주하며 저술한 것이다. 내용은 제1편 헌법, 행정법, 형법, 형사령,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령, 상법, 제2편 경제 재정, 회계, 제3편 통계, 계량, 우편, 전신, 기복(忌服), 황실, 인사, 양복 착장, 증답품, 향응 연회, 사교 예의, 사회도덕, 공중 예절, 여행 수칙, 서간 수칙, 실용 문자 편람, 사회 사정, 신변잡사 등으로 나누어 설명했으며 부록에는 국내외 1천여 속어를 실어 참고하기 좋은 양서이다.

일본 농회론(1)

타쓰노 분이치(龍野文一)²¹⁾

서론

일본에서의 농회는 그 목적이 되는 농업의 개량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스스로 각종 사업을 수행함과 동시에, 관청의 장려를 농업자에게 보급하고 철저히 하는 데 힘쓰고, 또한 농업자의 의견을 대표하여 이를 관청에 전달하는 등 관과 민을 연결하는 고리로서 기능해야 할 농업자의 자치적 기관이다. 1899년 농회법 제정 및 시행 이래 전국에 걸쳐 체계적으로 설립되어 이제는 농촌 가운데 농회를 설치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가 되었고 농업 발달은 물론 농촌 진흥을 위해 날마다 노력하고 있는 실적은 실로 뚜렷하다. 농회가 일본 농정(農政) 상 매우 중요한 임무를 담당하게 되었음은 굳이 길게 설명할 필요조차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1899년에 제정된 농회법은 법률로서 미비한 점이 많아 시세의 진운에 부응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 운영에 있어서도 불편함이 적지 않았기에 1922년 4월 11일 법률 제40호에 의해 새롭게 농회법이 제정·발포되었고 1923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함과 동시에 구 농회법은 폐지되었다. 새로운 농회법은 농회가 공법인(公法人)이라는 성격 및 사업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라 경비를 강제로 징수하는 방법을 펼치는 등 농회의 면모를 일신한 것이다. 아래에서는 이 법에 기초해 농회의 개요를 서술하고자 한다.

21) 나가노현(長野縣) 출신.

농회의 목적 및 사업

농회의 목적은 농업의 개량과 발달을 도모하는 데 있다. 농업이란 경종(耕種), 양축(養畜) 및 이에 수반되는 생산물의 가공 및 판매에 이르기까지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수산업이나 임업은 원래부터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농가의 부업인 임업 시설이나 양어(養魚)와 같은 것은 결코 금지하는 바가 아니다.

또한, 농업의 개량·발달이란 농업의 불량한 점을 고쳐서 선량하게 만드는 소극적인 뜻과 농업을 조장하고 촉진하게 하는 적극적인 뜻을 포함한 것이다. 단순히 농업에 관한 기술적 방면만의 개량·발달을 도모하는 데 그치지 않고 농산물의 분배 방법 등 농업 경제적 시책, 농업 종사자의 생활 개선, 분쟁 조정과 중재 등의 사회적 시책, 농업 종사자의 지식 계발에 관한 교육적 시책 등의 개량·발달을 도모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구 농회법에는 ‘농사의 개량·발달’로 되어 있었던 것을 신 농회법에서는 ‘농업의 개량·발달’로 개정된 것도 의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농회가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해야 할 사업은 스스로 그 목적의 범위를 한정해야 함은 물론이지만, 농회법 제3조에 농회가 해야 할 사업을 규정했다. 이는 농회가 공법인 성격을 갖는 관계상 해야 하는 사업을 명확히 하는 것이 적절하기 때문이다.

농회가 해야 할 사업의 종류를 열거하고, 그 개요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농업 지도 및 장려에 관한 시책

농업 지도 및 장려에 관한 시책은 농회가 해야 할 사업 중 가장 중요한 것이며, 농회가 사회로부터 그 존재의 필요성을 인정받는 것도 실로 이 시책을 시행하는 데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

다. 농회가 존립하는 주된 사명 또한 바로 여기에 있다. ‘지도’는 농업이 나아가야 할 이상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그에 도달하도록 이끄는 것을 뜻하며, ‘장려’는 권장하고 독려하여 행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시책’은 인적이든 물적이든 관계없이 어떤 설비를 갖추고 그 설비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 지도 시책 및 장려 시책에 속하는 주요 사업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 지도 시책에 속하는 주요 사업

1. 기술원 설치
2. 지도지(指導地) 설치
3. 채종밭(採種田)²²⁾ 지도
4. 원종포(原種圃)²³⁾ 설치
5. 모범장(模範場) 설치
6. 시비(施肥) 방법 지도
7. 가축·가금(家禽)·잠아(蠶兒) 등의 사육법 지도
8. 포장법 지도
9. 각종 전습회 개설
10. 재배 방법의 현장 지도
11. 농가 경영 지도
12. 하급 농회 지도
13. 농촌 경영 지도

22) 우수한 종자를 대량으로 확보하기 위해, 미리 확보된 우량한 씨앗을 심어 기르는 종자 생산 전용의 논이나 밭.

23) 우수하고 품질이 좋은 작물의 씨앗이나 종묘를 얻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종자 생산 포전.

2) 장려 정책에 속하는 주요 사업

1. 쌀·보리 품종 개량 장려
2. 못자리(모판) 개량 장려
3. 경운(耕耘) 방법 개량 장려
4. 쌀·보리 재배 개선 장려
5. 쌀·보리의 건조 및 조제(調製) 장려
6. 비료 개량 장려
7. 병충해 구제 및 예방 장려
8. 토지 개량 장려
9. 부업 장려
10. 농기구 개량 장려
11. 농산물 공동 판매 장려
12. 농업 용구 공동 구매 장려
13. 저축 장려

2. 농업에 종사하는 자의 복리(福利) 증진에 관한 정책

농업에 종사하는 자란 자기 이름으로 또 자기 계산으로 경종(耕種)과 양축(養畜) 및 이에 수반하는 생산물의 가공 및 판매를 영위하는 자, 이들로부터 임금을 받고 농업에 종사하는 자 모두를 칭한다. 농업 노동자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농업 종사자를 총칭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들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것은 농업의 개량·발달에 있어 매우 긴요하므로 농회가 이에 대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그 목적상 당연한 임무이다. 다만, 단순히 농업에 종사하는 자의 이익에만 그치고 농업의 개량·발달을 저해하거나, 혹은 국가 및 공공의 안녕과 복리를 해할 우려가 있는 정책에 대

해서는 이를 시행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이제 농업 종사자의 복리 증진에 관한 주요 사업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 농업 노동 중개
2. 농산물 시장 설치
3. 판매 알선소(斡旋所) 설치
4. 농사 상담소 설치
5. 농업 종사자 생활 개선
6. 농업 창고 설치
7. 시장 상황 통신
8. 풍기 개선
9. 소작료 개선
10. 오락 기관 설치
11. 자작농 장려

3. 농업에 관한 연구 및 조사

농업의 개량·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의 기초는 농업에 대한 연구와 조사 결과에 의거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농회가 사업을 획책하고 농업자의 의견을 대표할 때에는 그 연구와 조사 결과를 기초로 삼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농회가 농업에 관한 연구 및 조사를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이제 그 연구 및 조사를 해야 할 주요 사항을 들면 다음과 같다.

1. 비료 또는 시비법(施肥法) 연구
2. 판매 방법 연구
3. 농사 시험

4. 판매 경로 조사
5. 농가의 경제 조사
6. 농촌 조사
7. 지질·토양 조사
8. 농업 상태 조사
9. 농업 경영 방법 연구
10. 농가의 생활 상태·침체 상황 조사
11. 농산물 가공에 관한 연구
12. 농산물 조사
13. 부업(副業) 조사
14. 농업 노동자 조사
15. 소작 제도 조사

4. 농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 및 중재

농업 관련 분쟁은 수리(水利)와 관련된 분쟁, 연기 피해나 광독(鑛毒)에 의한 분쟁, 지주와 소작인 사이의 분쟁, 농산물 매매 분쟁, 농업 노동 임금에 관한 분쟁, 기타 다종다양한 분쟁들이 존재한다. 이들 분쟁 중 많은 경우는 법률을 통해 해결할 수는 있지만 분쟁을 법 규정에 따라 해결하는 것은 오히려 대책이라고 할 수 없다. 특히 농촌에서 발생하는 분쟁 중에는 종종 그 원인이 농업 종사자들 사이의 감정 충돌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분쟁을 법으로 억지로 해결하려고 하면 도리어 그 화근(禍根)을 영원히 남길 위험이 있다. 따라서 농업에 관련된 분쟁에 대해서는 농회(農會)가 조정과 중재에 노력을 기울여 당사자들이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농촌의 평화 유지라는 점에서도 매우 적절하다. 그리고 조정(調停)이란 분쟁이 발생했을 때

조정자가 자신의 의견을 표시하지 않고 양쪽 당사자가 화해하도록 조치하는 것을 뜻한다. 중재(仲裁)란 민사소송법에서 이른바 중재인이 되는 경우 외에도 모든 분쟁이 있을 때 중재인이 자신의 의견을 명시하고, 당사자들이 그 의견을 따르도록 하여 분쟁을 중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5. 기타 농업의 개량·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위에서 열거한 사항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사업이 있다.

1. 공진회(共進會) 또는 품평회, 전람회 개최
2. 분석·평가 및 감정
3. 농업학교 운영
4. 강습회, 강연
5. 농사 견학(視察)
6. 인쇄물 배포
7. 질의응답
8. 표창
9. 기타 각종 시책

이상은 농업의 개량과 발달을 도모하는 데 있어 농회가 해야 할 적절한 사업, 또는 필요한 사업을 총괄적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개별 사업은 농회의 목적과 사업의 성질 및 효과를 충분히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사업이란 인적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이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과 더불어 아무런 설비 없이도 이루어지는 일, 예를 들어 선전이나 의견을 대표하는 등 무형적인 것도 포함한다.

농회의 법인격 및 행위 능력

농회법 제2조는 “농회는 법인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회는 존립 범위 내에서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스스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고 행위 능력을 갖는 것은 물론이다. 농회가 ‘공법인’인지 혹은 ‘사법인’인지를 논하자면 일반적으로 공법인과 사법인의 구별에 대해서는 학설이 분분하여 일정하지 않을지라도 그 표준을 오로지 법인의 존립 목적이 무엇인가에 두는 것은 근래 다수 학자의 일치된 견해이다. 농회는 농업의 개량·발달이라는 공적인 사무 수행이 그 존립 목적이므로 공법인의 성격을 지닌다고 단정할 수 있다. 그리고 농회는 법인이므로 그 존립 목적 범위 내에서는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스스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고 행위 능력을 가진다. 그러나 농회법 제4조에 따라 영리사업을 행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비록 그 사업이 농회의 존립 목적 범위에 포함되더라도 농회는 절대로 영리사업을 할 수 없다.

영리사업이란 이익을 얻을 의지를 가지로 경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러나 어떤 사업이 영리사업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개별 사업에 따라 이를 결정해야 하며 이를 추상적으로 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어떤 사업이 과연 영리사업인지 아닌지 정할 때는 단순히 주관적으로 관찰하여 단정할 수 없고 객관적 관점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수수료나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그 금액이 실제 비용을 충당할 만한 정도거나 잉여가 약간 생기더라도 그것이 매우 소액에 불과한 경우라면 누가 영리사업이라고 단정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이와 반대로 실제 비용을 충당하고도 잉여가 많이 발생한 경우라면 설령 사업 경영자가 영리의 의지는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객관적

관점에서는 그것을 영리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또 농회는 농업에 관한 사항에 대해 행정청에 건의할 수 있으며, 동시에 행정청의 자문에 대해 답신하고 행정관청으로부터 농업에 관한 보고서 제출이나 농업 관련 사항의 조사 명령이 있을 때는 이에 따를 의무가 있다. 즉 농회는 농업에 관한 사항에 대해 농업자의 의견을 대표하여 행정청에 전달하고, 행정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농회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 이를 자문할 수 있다. 행정관청이 농회에 농업 관련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하는 이유는 그것이 일본 산업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농가 개량과 발달을 도모하는 산업 행정에 속하고, 이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농회는 관민의 연쇄가 되고 국가의 농업과 관련한 산업 행정과 상호 작용하여 농업의 개량과 발달을 도모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행정청이란 단지 관리로 구성된 국가 행정기관인 행정청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시정촌장(市町村長)과 같은 자치단체의 행정기관도 포함하고 그 종류에 아무 제한이 없어서 경찰관서 등의 행정기관도 포함한다. 그러나 농회에 대한 자문과 관련해 정촌장(町村長)이 군시농회(郡市農會), 도부현농회(道府縣農會), 제국농회(帝國農會)를, 시장(市長)과 군장(郡長)이 도부현농회 또는 제국농회를, 도부현지사(道府縣知事)가 제국농회를 자문(諮問)할 수 있는지를 말하자면, ‘자문(諮問)’ 또는 ‘답신(答申)’이라는 자구(字句)의 일반적인 용법상으로 보면 이들은 자문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믿는다. 단, 이들 농회에 대하여 조회(照會)를 발하고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전혀 지장이 없다. 또한, 농회에서 행정청에 건의할 수 있는 사항은 농업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되지만, 행정청이 농회에 자문하는 사항은 아무런 제한이 없

으므로 보건, 위생, 사상 문제 등 여러 사항에 대해서 폭넓게 자문하는 것도 전혀 위법이 아니다. 또한 농회에 대해 농업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 및 조사를 명할 수 있는 자는 농회법 제6조에 행정관청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시정촌장은 이에 대한 권한이 없다. 그리고 ‘제출 및 조사를 명한다’고 쓰여 있는 용어상 그 농회를 감독할 권한이 있는 행정관청, 즉 군장(郡長)은 정촌농회와 군농회에, 지방장관은 시정촌농회·군농회·도부현농회에, 농상무대신(農商務大臣)은 모든 농회에 명령할 수 있는 것이다.

(※ 미완 - 이하 계속)

대구부 소재의 각 청(廳)과 세비

시모야마 다키사부로(下山瀧三郎)

조선총독부 특별회계²⁴⁾의 세비 1억 5천만 원은 수지 독립을 위해²⁵⁾ 종래 매년 1천 5~6백만 원씩의 보조를 받아왔으며, 1923년도에도 역시 1천 5백만 원의 보조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구부 소재 각 청은 각각 얼마의 세비를 탄토(呑吐)하고 있으며 이 보조금을 받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앞서 1921년도 결산액에 따른 주요 관서(官署)의 취급 총액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4) 일제는 한국강점 직후인 1910년 9월 <조선총독부 특별회계에 관한 건>(칙령 제406)이라는 법령을 발표하여 새로운 회계제도를 만들었다. 이 법령의 제1조는 조선총독부의 회계는 특별회계로 하고, 그 세입 및 일반회계의 보충금을 가지고 그 세출에 충당한다. 제2조는 전조의 수입지출에 관한 규정은 <칙령>에 의해 결정한다고 되어 있었다. 일제는 이를 통해 한국 재정을 법적으로 완전히 장악하였다. 조선총독부의 세입·세출은 한국 민중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제의 <칙령>에 따라 마음대로 처분되는 식민지 재정으로 변한 것이다. 일제는 곧 '일반회계로부터의 보충금 배제를 목적으로 한 독립재정 계획'을 마련하고, '재정 자영(自營)의 방침'을 표방하였다. 그것은 조선총독부가 일본 정부로부터 받는 보충금을 1914년부터 5개년 간에 걸쳐 매년 체감하여 1919년에 전면적으로 종식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한국내에서 조선총독부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세입 원천을 확대·증강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세입의 대부분을 점하는 조세수입(약 27.4%)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조세수입 가운데는 지세의 비중이 컸으므로(1914년, 60.2%), 한국인의 세 부담은 자연히 무거워질 수밖에 없었다. (禹明東, 1987, 「일제하 조선재정의 구조와 성격」,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을 구분 정리하고 그 수지 상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회계연도를 정하고 있으며,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으로써 충당하고 각 회계연도의 세출은 원칙적으로 익년도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말한다.

관서명	종별	세입(원)	세출(원)
경상북도청	조선특별회계	3,201,000	3,480,000
	도지방비	1,957,000	1,633,000
	계	5,158,000	5,113,000 ²⁶⁾
대구전매지국	조선특별회비	4,000,000	2,000,000
대구부청	대구부비	408,000	365,000
	대구부학교비	78,000	77,000
	대구학교조합	338,000	289,000
	계	824,000	731,000
80연대	일반회계	1,000	631,000
대구감옥	조선특별회계	86,000	477,000
대구 양 법원	조선특별회계	789,000	473,000
대구자혜의원	의원제생원회계	188,000	188,000
대구우편국	조선특별회계	784,000	133,000
대구헌병대	일반회계	1,000	129,000
대구중학교	조선특별회계	6,000	79,000

이 중에는 경상북도청의 지방비, 대구부청 부비(府費), 학교비, 학교조합비, 80연대 일반회계, 대구자혜의원의 의원회계, 대구헌병대 일반회계 등과 같이 조선총독부 특별회계에 속하지 않는 각종 다양한 금액이 합산되어 있다. 따라서 위 취급액만으로 바로 보조금을 받고 있는지 아닌지 판단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 취급액 중에서 조선총독부 특별회계에 속하는 수지만 분리해서 보면 다음과 같다.

26) 원본 합계액에는 5,123,000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어 수정한 숫자로 표기했다.

관서명	세입	세출	세입증	세출증
경상북도청	3,201,000	3,480,000	-	279,000
대구전매지국	4,000,000	2,000,000	2,000,000	-
대구감옥	86,000	477,000	-	391,000
대구 양 법원	789,000	473,000	316,000	-
대구우편국	784,000	133,000	651,000	-
대구중학교	6,000	79,000	-	73,000
대구자혜의원	-	108,000	-	108,000
계	8,866,000	6,750,000	2,116,000	-

즉 경상북도청, 감옥, 중학교, 자혜의원은 보조금을 받은 반면, 전매국, 법원, 우편국은 각각 집행잔액이 있다. 다만 전매국 수지는 1개 연도 실적이 안 되어²⁷⁾ 1922년도 예산에 근거해 조사한 것이므로 다른 각 청의 수지에 비해 다소 확실하지 않은 경향이 있다. 그리고 자혜의원은 의원 및 제생원 특별회계라 하는 별개의 회계에 속하지만 이 회계에 대해 조선총독부 특별회계에서 보조금을 받고 있으므로 위 표의 세출 10만 8천원을 조선총독부 특별회계의 보조금액으로 계상하였다.

이 외에 대구 소재 조선총독부 소속 관청으로는 토목국 출장소, 측후소, 세관 등이 있지만 대체로 위 표의 계산으로 미루어 볼 때 결국 이 세계(歲計) 면에서는 대구부 소재 각 청은 뭉뚱그려 조선총독부 특별회계에 대한 일반회계에서의 보조금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된다.

27) 일제는 1921년 3월 '전매국관제' '칙령 53호'를 공포하고 조선총독부 전매국과 전매지국 및 출장소를 설치하였다. 대구에는 경성, 전주, 평양과 함께 대구전매국(大邱專賣局)이 1921년 3월 설치되었다.

경주군 제지 개황(概況)

후카다 야스키치(深田安吉)

경주군의 제지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 시기는 분명치 않다. 그러나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오래전 신라시대라고 한다. 경주군의 제지 산지는 대개 산간벽지에 분산되어 있으며 제조법은 구습을 굳게 지키고 있다. 세상의 진보를 따라가지 못해 점차 퇴보하는 상황이어서 1910년에 신정(新政)이 시작된 이래 당국이 각종 개량책을 강구하였다. 그 결과 지금은 한 해 생산이 250,000원으로 경상북도에서 1위를 점하기에 이르렀다.

개량과 관련된 시설

갑. 제지기술원(員) 설치

제지 개량 지도를 하기 위해 군에 기술원을 두어 항시 제반 시설을 지도 독려하고 있다.

을. 제지 조합 설치

경주군의 제지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근래 상당한 발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다. 갈 길이 아직 멀고 향상 발전책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에 경주군의 제지 관련 업자를 망라하여 제지 조합을 조직하고 오래된 폐품을 교정하여 더욱더 제지업의 개량 발달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제

품 검사를 단행하여 경주군 제지의 성가를 올림과 동시에 제지업자를 보호하고 공동 이익을 증진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조합원	임원 및 사무원			경비
	임원	직원	검사원	
2,000명	13명	2명	15명	2,780원

병. 개량 기구 설치

종래 제지업자들이 사용해 온 제지기구는 작업상 번거로워 경제상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 이에 조합은 해마다 기구 기계를 설치하여 공동 사용하도록 하였고 날이 갈수록 실적이 현저하게 나타나게 되었다.

생산액과 판매 상황

경주군의 제지 원료는 닥나무이며 각 면에서 모두 이를 생산하고 있다. 근래 제지업이 활발해지면서 원료 부족을 초래하여 다른 군이나 일본에서 수입하는 상황이다. 이에 올해부터 상응하는 계획을 세워 나무를 새로이 심거나 나눠 심기를 장려해 13개년을 기하고 있다. 현재 생산액은 다음과 같다.

닥나무 흑피(1922년 1월 조사)

작부반별	수확고	가격	비고
746정(町)	161,472관(貫)	74,370.000원	-

제지 종류는 백지, 공물지(貢物紙)²⁸⁾, 창호지, 온돌지, 장지,

28) 조선시대 때 청나라에 보내는 공물을 포장할 때 사용한 종이를 일컫는다.

일본 종이 와시(和紙) 등으로, 질기고 튼튼한 것으로 유명하다. 공물지는 중국 방면으로, 백지는 조선 북부 지방으로 수이출한다. 용도는 창호에 붙이거나 장부, 기타 모피의 안에 대거나 건축 보조 재료로 상용되고 있다. 1922년에는 평화박람회에 출품하여 은상을 받았으며, 전국 제지업 박람회에 출품하여 금상을 받았다. 현재 생산액과 구유(槽) 수, 종업원 수는 다음과 같다.

제지(1922년 1월 조사)

종이 이름	수량	가격	제조 호수	구유 수	종업원 남/녀
한지	9,450괴(塊)	223,103원	914	223	1,055/2
와시(和紙)	517체(締) ²⁹⁾	1,900원	2	3	8/0

다음으로 생산품은 종래와 마찬가지로 생산과 동시에 읍내 상인과 대구 상인의 손을 거쳐 판매하고 있다. 생산품을 재고로 두는 경우는 없다. 1922년 4월부터 12월까지 검사 성적은 다음과 같다.

월별	백지	공물지	창호지	기타	합계	비고
4	205괴	54괴	4괴	-	263괴	
5	501괴	224괴	14괴	-	748괴	
6	630괴	305괴	14괴	-	949괴	
7	737괴	327괴	14괴	-	1,078괴	
8	245괴	69괴	3괴	100괴	417괴	이 가운데 100체(締)는 와시
9	164괴	50괴	21괴	-	235괴	
10	116괴	50괴	10괴	-	176괴	
11	220괴	50괴	20괴	-	290괴	
12	270괴	12괴	1괴	-	284괴	
합계	3,097괴	1,141괴	101괴	100괴	4,439괴	

29) 1체(締)는 2,000매이다.

독행자 및 우량 부락(상)

경상북도 농회 사업으로서 각 군에 걸쳐 산업을 개발하는 데 공로가 있는 독행자와 미풍양속 및 농사 개량 실적이 현저한 부락을 선발하여 이를 표창하고 평소의 공로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한편, 그 선행과 아름다운 실적을 널리 발표하는 것은 산업 개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믿는다. 1922년도 예산으로 부락에는 각 100원씩, 공로자에게는 각 30원씩을 지출하여 표창하였다. 부락에 대한 표창은 경상북도 최초의 시도로서 동민(洞民)이 일치 협력하는 일이 드물어서 충분히 칭송받을 만하다. 표창을 받은 공로자 및 부락의 실적을 개략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상주군 상주면 오대리(午台里)

이채정(李采玟)

1891년 12월 6일생

이채정의 엄부(嚴父) 이준성(李準成)은 온화하고 독실한 성품의 인물로 12년 전 면장이라는 요직에 있었다. 이채정씨는 차남으로 장남과 삼남이 모두 관료를 지망하여 고향을 떠난 것과 달리 아버지의 성격을 그대로 이어받아 일찍부터 농사에 흥미를 가졌다. 성품은 매우 온순하고 열심히 일을 했다. 오대리는 교통이 매우 불편하고 농가 수는 68호에 이르지만 곳곳에 흩어져 있다. 삼면은 병풍처럼 산야로 둘러싸여 있고 서쪽만이 겨우 경작지와 접해 있는 벽촌이다. 문화의 자극이 적어 일반적으로 근면성이 부족하고 경작자들 대부분은 매우 가난했다. 이와 같은 환경 속

에서 이채정씨는 항상 산업의 대한 개선과 발달에 힘써 왔다. 특히 우량 품종의 벼 보급에 앞장서서 직접 시험 재배를 하여 좋은 결과를 얻었고, 이에 따라 일반 농민들에게 볍씨(種粃)³⁰를 배포하고 장려하였다. 또한, 과수와 원예가 유리하다는 것을 자각하고 논의 일부에 배와 사과를 재배하였다. 이는 당시로서는 우량 과수 재배의 효시였고 좋은 결과를 얻은 뒤에는 미개간지 약 1정보를 임대받아 개간하고, 소유지 5단보를 더해 과수 재배에 힘쓴 결과, 현재 8단보의 과수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결실이 양호하여 군에서 손꼽히는 과수원이 되었다. 더불어, 과수 묘목의 육성을 기획하고 접목 연구에도 힘써 현재는 수천 그루의 양질 묘목을 기르는 상태에 이르렀다. 또한, 고구마 재배도 적극적으로 행하여 지역 업자들에게 모범을 보였다. 가마니(呖)³¹ 제작에 있어서는 1916년 당국에서 장려를 시작하자 스스로 사람들을 권유하였고, 기계를 한 대 구입하여 종사하였다. 이 산업을 개척하고 생산량이 증가하자 제품 검사 및 공동 판매에도 이채정씨의 노력은 적지 않았으며 현재는 군 내의 주요 생산지 중 하나로 손꼽히게 되었다.

경상북도는 감(柿)의 주요 산지이므로 감 개량과 건시(乾柿) 제조 전습회를 개최하였다. 이채종씨는 여기에 참가하여 기술을 습득하였고 현재는 수천 개의 양질 건시를 생산하고 있다. 그는 1911년 이래 4년간 치잠(稚蠶)³² 공동사육소 총대(總代)로 종사하였으며 1915년에는 상주 양잠전습소에 입소하였다. 수료 후에

30) 파종용 볍씨.

31) 呖은 일본의 국자(國字)인 와세이칸지(和製漢字, 화제한자)로, 대한민국과 중국 등 다른 한자문화권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일본어 고유의 한자이다. '가마니'를 뜻한다.

32) 세 번째 잠을 잘 때까지의 누에(어린누에).

는 경상북도 양잠강습소에서 잠종 제조 실습을 받고 매년 500장의 잠종을 제조하였으며 해마다 10장 내외의 누에떨기를 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한편, 뽕나무도 재배하여 5단보 규모의 개량 뽕밭을 경영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이처럼 양잠을 열심히 했기에 그는 일반 농민에게 살아 있는 모범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년과 여성들을 모아 이 산업의 장려 및 개선에도 힘썼다. 이채종씨는 애림(愛林) 사상이 풍부하여 묘포장 및 산림용 종자 채취 사업에 착수하였으며 사영(私營) 묘포장 설치의 선구자로 불릴 만하다. 현재는 4단 2보의 묘포장을 갖추고 매년 소나무 묘목 25만 그루 이상을 육성하여 자기 산림에 식재하고 있으며 그 관리 상태가 우수하여 타인의 모범림이 되기에 부족하지 않다. 또한 적송과 상수리나무(欒)의 종자 채취도 병행하고 있으며 자가용으로 쓰고 남은 종자는 판매하고 있다. 그 외에도 부녀자들에게 직물업 개선 및 제사(製絲)법을 지도하고 설명하였으며 우량 농기구 사용의 보급에도 힘쓰고 있다.

이처럼 농사를 열심히 지었기 때문에 품평회 및 공진회에서 1913년 이래 수상한 횡수가 25회나 된다. 이처럼 산업에 열의가 있는 것은 물론, 평소에도 강습회와 강연회에 자주 참석하고 농사 관련 잡지를 정기 구독하여 연구에 힘쓴 결과 마을 사람들에게 끼친 감화와 선도적 역할이 작지 않다.

영주군 봉현면 대촌동

안상재(安商在)

1874년 9월 1일생

안상재 씨는 경성에서 태어났으며 성격이 온화하고 공손하며

사상이 견실하였다. 원래 정부의 의관(議官)이었으나 1903년에 영주군 봉현면 대촌동으로 이주하였다. 해당 마을은 산간의 벽지에 위치해 있어 자연히 옛 관습을 고수하고 진취적이거나 개선하려는 기상이 전혀 없어 무위도식하는 사람이 많았다. 이를 깊이 한탄하고 다수의 모임이나 농한기, 야간 등을 활용하여 시대의 흐름과 농사 개량의 필요성을 설파하며 농촌 개혁에 힘썼다. 관청 및 산업 단체의 장려 사항을 스스로 실천하여 향리에 모범이 되었다. 특히, 벼의 우량 품종 보급의 필요성을 알자 가장 먼저 실행에 옮기고 동시에 그 유리함을 농가에게 힘주어 설명하며 권장하였다. 때로는 빈궁한 자에게 무상으로 씨앗을 나누어주고 이를 재배하게 하였다. 또한 녹비(綠肥)용 대두 재배를 권장하고 양잠업에서는 뽕나무의 비배(肥培)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뽕나무 묘목을 식재하였다. 그리고 다시 뽕밭의 모범을 제시하여 양잠 보급 촉진을 도우며 본인은 봄과 가을에 누에를 11매 사육하는 등 산업의 개발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다.

경주군 강서면 안강리
 히우라 히로지(日浦廣治)
 1884년 10월 31일생

히우라 히로지씨는 고향이 고치현으로 고치현립농림학교를 졸업하고 도쿄에서 수학한 뒤 귀향하여 현 내의 권업 분야에 종사하였다. 그러나 1913년, 결심하여 조선으로 건너와 안강면을 영주지로 삼고 현지 유력자들과 함께 도사흥농조합(土佐興農組合)을 설립하고 전무이사로 취임하였다. 또, 현재 군 농회 특별평의원 및 조선농회 임원의 요직을 맡고 있다. 일찍이 공공사업에 헌

신하며 자타 공동이익사업을 신념으로 삼아, 정미업, 제분업, 창고업 등을 운영하였다. 특히, 농작물 적종(適種) 시험, 비료 시험, 방충법 등의 각종 실지 시험에서 성과를 거두어 선도자가 되었고 이를 널리 알리고 장려하였다. 또한 소학교 설립에 있어 공로가 커서 추천받아 관리자가 되었으며 항상 주민 간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였다. 땅을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키기 위해 신불(神佛) 요배소를 설치하고 사재를 투자하여 위생 및 소방 정비에 힘썼다. 최근 지주와 소작인 간의 관계가 자칫 분규를 일으킬 소지가 생기는 시점에 있어 그는 그 중간에서 협조와 온정을 신조로 삼아 노력하였으며 소작료를 낮추고 근검을 권장하였다. 또, 소작미 품평회를 개최하고 표창을 시행하여 소작인을 지도하고 앞서 종자 선발 사업 및 수리조합 사업에도 힘써 산업의 개선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다.

안동군 풍산면 상리동
고바야시 헤이지로(小林兵二郎)
1881년 11월 27일생

고바야시 헤이지로씨는 오카야마 출신으로 성격은 온후하고 독실하며 사상이 건실하여 지방에서 신망이 두터웠다. 일찍이 농사에 뜻을 두어 총독부 토지조사국에 봉직하다가 1916년 봄 퇴직한 뒤 안동군 풍산면 상리동에서 농업을 경영하였다. 현재는 군 농회 특별평의원으로서 재직하며, 당국의 산업 시책 방침을 깊이 이해하고 우량 벼 품종 보급에 힘쓰고 있다. 그는 먼저 소작인 50여 명을 대상으로 실천적 모범을 보이며 재배를 독려하고, 그 유익함을 지도하였다. 그 결과 현재는 재래종을 찾아보기 어

려운 수준에 이르렀다. 또한, 오랜 세월의 재배로 인한 쌀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해 종자 갱신의 필요성을 통감하고 채종답(採種 畵)을 운영하며 종자 갱신을 강력히 권장하고 있다. 혹은 쌀·보리 공동 조제장(調製場)을 설립하고 스스로 이사가 되어 노력하였으며 소작인들에게 종자 선별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식염을 무상 배부하여 염수선(鹽水選)³³⁾을 실시하게 하였다. 한편, 자급 비료 증산을 위해 녹비용 대두 재배를 권장하며 계몽과 지도에 힘썼다. 임업 분야에서도 애림사상을 일깨우기 위해 약 30정보에 조림을 시행하였으며, 그 성과가 우수하여 현재는 모범림으로 지정되었다. 특히 그는 다른 종사자들에게도 애농심(愛農心)을 기르고 노동사상을 고취하게 하는 등, 처음부터 끝까지 물러섬 없는 성의로 산업 개발과 지방민 지도에 헌신하였으며 그 공로는 결코 작지 않다.

33) 소금물에 종자를 넣어 가라앉는 우량 종자와 떠오르는 불량 종자를 가려내는 방법.

경주와 교재 연구(2)

- 보통학교용 교과서에 실린 내용 -

경주공립보통학교장 오사카 긴타로(大阪金太郎)

2. 알에서 탄생한 왕 (국어독본 4권 제22과)

석탈해(昔脫解)

교재

본 교재의 내용은 모두 신라 제4대 왕 탈해 이사금(脫解尼師今)에 관한 전설로, 삼국사기의 기사(記事)³⁴)에서 인용한 것이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탈해 이사금 항목에 다음과 같이 적혀있다.

脫解本多婆那國所生也，其國在倭國東北一千里初其國王，娶女國王女爲妻，有娠，七年乃生大卵，王曰人而生卵，不祥也，宜棄之，其女不忍，以帛裹卵，并竇然置於櫝中，浮於海任其所往，初至金官國海邊，金官人恠之不取，又至辰韓阿珍浦口，是始祖赫居世在位三十九年也，時海邊老母以繩引繫海岸，開櫝見之有一小兒在焉，其母取養之，及壯身長九尺風神秀朗智識過人，或曰，此兒不知姓氏初櫝來時有一鵲飛鳴而隨之，宜省鵲字以昔爲氏，又解韞櫝而出，宜名脫解，脫解始以漁釣爲業供養其母未嘗有懈色，母謂曰，汝非常人骨相殊異宜從學以立功名，於是專精學問，兼知地理，望楊山下瓠公宅以爲吉地，設詭計以取而居之，其地後爲月城至南解王五年間其賢以其女妻之，至七年登庸爲大輔委以政事，儒理將死曰先王顧命曰，吾死後無論子壻以年長且賢者繼位是以寡人先立，今也宜傳其位焉。

34) 사실을 적음. 또는 그런 글.

탈해는 본래 다파나국(多婆那國)에서 태어났다. 그 나라는 왜국(倭國)의 동북 1,000리에 있다. 처음에 그 나라 왕이 여국(女國) 왕의 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임신한 지 7년 만에 큰 알을 낳았다. 왕이 말하기를, “사람이 알을 낳은 것은 상스럽지 않다. 마땅히 버려야겠다.”라고 하니, 그 여자가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하고 비단으로 알을 싸서 보물과 더불어 귀짝에 넣어 바다에 띄워 가는 대로 가게 하였다. 처음에 금관국(金官國) 해변에 닿았는데, 금관국 사람들이 괴이하게 여겨 취하지 않았다. 다시 진한(辰韓)의 아진포구(阿珍浦口)에 이르니, 바로 시조 혁거세(赫居世) 재위 39년(B.C. 19)의 일이었다. 이때 바닷가의 할머니 줄로 끌어서 바닷가에 매어두고 귀짝을 열어서 보니 어린아이 한 명이 들어 있었다. 할머니 거두어 길렀다. 장성하니 신장이 9척이나 되었고, 풍채가 빼어나며 지식이 남달랐다. 흑자가 말하기를, “이 아이는 성씨를 알지 못하는데, 처음 귀짝이 왔을 때 까치 한 마리가 날아와 울며 따라 다녔으므로, 까치 ‘작(鵲)’의 글자를 줄여서 ‘석(昔)’으로 씨(氏)를 삼고, 또 귀짝을 열고 나왔으므로 이름을 탈해(脫解)라고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였다. 탈해(脫解)가 처음에 고기 잡는 것을 업으로 삼아 그 어미를 공양하였는데, 한번도 나태한 기색이 없었다. 어미가 말하기를,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골상이 특이하니 마땅히 학문을 배워 공(功)과 이름을 세우도록 해라.”라고 하니, 이에 학문에 정진하여 땅의 이치를 겸하여 알게 되었다. 양산(楊山) 아래의 호공(瓠公)의 집을 바라보고는 길지(吉地)라고 여겨 속임수를 써서 취하여 거기에 살았는데, 그 땅이 뒤에 월성(月城)이 되었다. 남해왕(南解王) 5년(A.D. 8)에 이르러 그가 현명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왕이 딸을 그의 아내로 삼게 하였으며, 7년(A.D. 10)에는 등용하여 대보(大輔)로 삼고 정사를 맡겼다. 유리왕(儒理王)이 죽음을 앞두고 말하기를, “선왕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하시기를, ‘내가 죽은 후에는 아들과 사위를 따지지 말고 나이가 많고 어진 자로써 왕위를 잇도록 하라.’라고 하셔서 과인(寡人)이 먼저 왕이 되었던 것이다. 이제는 마땅히 그 지위를 탈해(脫解)에게 전하도록 하겠다.”라고 하였다.³⁵⁾

삼국유사 제1권 탈해왕 항목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있다.

南解王時，駕洛國海中有船來泊，其國首露王與臣民鼓譟而迎，將欲留之，而舡乃飛去，至於雞林東下西知村阿珍浦，時浦邊有一嫗，名阿珍義先，乃赫居王之海尺之母，望之謂曰，此海中元無石崑何因鵲集而鳴，拏舡尋之，鵲集一舡上，舡中有一櫃子，長二十尺，廣十三尺，曳其舡置於一樹林下而未知凶乎吉乎，向天而誓爾，俄而乃開見，有端正男子，竝七寶奴婢，滿載其中，供給七日，迺言曰，我本龍城國人(龍城在倭東北一千里)我國嘗有二十八龍王從人胎而生，自五歲六歲繼登王位，教萬民修正性命，而有八品姓骨，然無棟擇，皆登大位，時我父王含達婆娑積女國王女爲妃，久無子胤，禱祀求息七年後產一大卵，於是大王會問群臣，人而生卵，古今未有，殆非吉祥，乃造櫃置我，并七寶奴婢載於舡中，浮海而祝曰，任到有緣之地，立國成家，便有赤龍，護舡而至此矣，言訖，其童子曳杖率二奴登吐舍山上作石塚，留七日，望城中可居之地，見一峰如三日月，執可久之地，乃下尋之，即瓠公宅也，乃設詭計，潛埋礪炭於其側，詰朝至門云，此是吾祖代家屋，瓠公云否，爭訟不決，乃告于官官曰，以何驗是汝家，童曰，我本冶³⁶⁾匠，乍出隣鄉而人取居之，請掘地檢看，從之果得礪炭，乃取而居爲，時南解王知脫解是智人，以長公主妻之，是爲阿尼夫人

남해왕(南解王) 때 가락국의 바다에 어떤 배가 와서 닿았다. 가락국의 수로왕이 신하 및 백성들과 더불어 북을 치고 환호하며 맞이해 장차 가락국에 머무르게 하려 했으나 배가 급히 나는 듯이 달려 계림의 동쪽 하서지촌 아진포에 이르렀다. 당시 포구의 해변에 한 할멈이 있었으니 이름은 아진의선(阿珍義先)이라 하였는데, 이가 바로 혁거세왕 때의 고기잡이(海尺)의 모(母)였

35) 본문에 인용된 삼국사기 및 삼국유사의 한국어 번역은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한국고대사료DB에서 인용. (https://db.history.go.kr/ancient/level.do?levelId=sg_001r_0050_0010)

36) 삼국유사에는 대장장을 뜻하는 ‘冶’로 적혀있으나, 원문에는 ‘治’로 오기되어 있어 수정하였다.

다. (아진의선이) 배를 바라보며 말하기를 “본시 이 바다 가운데에 바위가 없는데 어찌해서 까치가 모여서 울고 있는가?” 하고 배를 끌어당겨 살펴보니 까치가 배 위로 모여들고 배 안에 상자 하나가 있었다. 길이는 20자이고 넓이는 13자였다. 그 배를 끌어다가 나무숲 밑에 매어두고 이것이 흉한 일인지 길한 일인지를 몰라 하늘을 향해 고하였다. 잠시 후 궤를 열어보니 단정히 생긴 사내아이가 있고, 또 일곱 가지 보물과 노비가 그 속에 가득하였다. 칠일 동안 잘 대접하였더니 이에 (사내아이가) 말하기를 “나는 본시 용성국(용성은 왜의 동북 일천리에 있다) 사람으로 우리나라에 일찍이 이십팔 용왕이 있는데, 모두 다 사람의 태(胎)에서 태어나 5~6세 때부터 왕위에 올라 만민을 가르치고 정성(正性)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팔품(八品)의 성골(姓骨)이 있지만 선택하는 일이 없이 모두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때 우리 부왕 함달파(含達婆)가 적녀국(積女國)의 왕녀를 맞이하여 왕비로 삼았는데 오래도록 아들이 없으므로 자식 구하기를 기도하여 7년 만에 커다란 알 한 개를 낳았습니다. 이에 대왕이 군신들을 불러 모아 말하기를 ‘사람이 알을 낳는 것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니 이것은 좋은 일이 아닐 것이다.’ 하고 궤를 만들어 나를 넣고 더불어 일곱 가지 보물과 노비들을 함께 배 안에 실은 후, 바다에 띄워놓고 축언하여 이르기를, ‘인연이 있는 곳에 닿는 대로 나라를 세우고 집을 이루라’, 하였습니다. 그러자 붉은 용이 나타나 배를 호위하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하였다. 말을 끝내자 그 아이는 지팡이를 끌며 두 종을 데리고 토함산 위에 올라가 돌집을 지어 칠일 동안 머물렀다. 성 안에 살만한 곳을 살펴보니 마치 초승달(三日月) 모양으로 된 봉우리가 하나 보이는데 지세가 오래 머물만한 땅이었다. 이내 내려와 그 곳을 찾으니 바로 호공(瓠公)의 집이었다. 이에 지략을 써서 몰래 솥돌과 솥을 그 집 곁에 묻어놓고 (다음날) 새벽 아침에 문 앞에 가서 “이 집은 조상 때부터 우리 집입니다.”라고 말했다. 호공이 “그렇지 않다.” 하여 서로 다투었으나 시비를 가리지 못하였다. 이에 관가에 고하자 관가에서 묻기를 “그 집이 너의 집임을 무엇으로 증명하겠느냐?” 하자 (동자가) “우리는 본래 대장장이였는데 얼마 전 이웃 고을에 간 사이에 그 집을 다른 사람이 빼앗

아 살고 있으니 청컨대 땅을 파서 조사하게 해 주십시오.” 하였다. (동자의 말대로) 따르니 과연 솟돌과 솥이 나왔으므로 이에 그 집을 취하여 살게 하였다. 이때 남해왕은 그 어린이, 즉 탈해가 지혜로운 사람임을 알고 맏공주를 그에게 시집보내었는데 이가 바로 아니부인(阿尼夫人)이다.

불교적으로 윤색된 부분이 많으나 현재 이 지역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과 동일한 내용이 많다.

그리고 같은 삼국유사 제2권 가락국기(駕洛國記)에는 탈해가 금관가야에 이르게 된 당시의 일을 흥미롭게 기록해 두었다.

脫解, 從海而來..... 悅焉詣闕, 語於王云, 我欲奪王之位, 故來耳, 王荅曰, 天命我俾即于位, 將令安中國而綏下民, 不敢違天之命, 以與之位, 又不敢以吾國吾民付囑於汝, 解云, 若爾可爭其術, 王曰可也, 俄頃之間解化為鷹, 王化為鷲, 又解化為雀, 王化為鷓, 于此際也寸陰未移, 解還本身, 王亦復然, 解乃伏鷹曰, 僕也適於角術之場, 鷹之鷲, 雀之於鷓, 獲免焉, 此蓋聖人惡殺之仁而然乎, 僕之與王爭位良難, 便拜辭而出, 到麟郊外渡頭, 將中朝來泊之水道而行, 王竊恐滯留謀亂, 急發舟師五百艘而追之, 解奔入雞林地界

탈해가 바다를 따라 가락국에 왔다..... 기꺼이 대궐로 나가서 왕에게 말하기를, “나는 왕의 자리를 빼앗고자 왔다”라고 하니 왕이 대답하였다. “하늘이 나에게 명해서 왕위에 오르게 한 것은 장차 나라를 안정시키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려 함이니, 감히 하늘의 명을 어기고 왕위를 남에게 줄 수도 없고, 또한 우리나라와 백성을 너에게 맡길 수도 없다.” 탈해가 말하기를 “그러면 술법(術法)으로 겨루어 보겠는가”라고 하니 왕이 좋다고 하였다. 잠깐 사이에 탈해가 변해서 매가 되니 왕은 변해서 독수리가 되었고, 또 탈해가 변해서 참새가 되니 왕은 변해서 새매가 되었다. 이때에 조금도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탈해가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자 왕도 역시 이전 모양이 되었다. 탈해가 이에 엎드려 항

복하고 말하기를 “내가 술법을 거루는 곳에서 매가 독수리에게, 참새가 새매에게 잡히기를 면하였는데, 이는 대개 성인(聖人)이 죽이기를 미워하는 어진 마음을 가져서 그러한 것입니다. 내가 왕과 더불어 왕위를 다툰은 진실로 어렵습니다.” 곧 왕에게 절을 하고 하직하고 나가서 이웃 교외의 나루에 이르러 중국에서 온 배가 와서 정박하는 수로(水路)를 통해 갔다. 왕은 마음속으로 그가 머물러 있으면서 난을 꾀할까 염려하여 급히 수군(水軍) 500척을 보내서 쫓게 하니 탈해가 계림(鷄林)의 국경으로 달아나므로...

위와 같은 서술이 곳곳에 나오는 만큼 이 전설이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전해지는 것도 당연하다.

내용

상고(上古)시대부터 일본과 조선의 관계가 밀접하다는 사실은 여러 방면에서 입증되어 지금 새삼 논의할 여지가 없으나, 이 전설은 특히나 이를 유력하게 설명하고 있다. 다파나국(多婆那國)의 위치는 현재 분명히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교통이나 그 외 관계에서 보아 규슈(九州) 지방이나 혹은 산인(山陰)³⁷⁾ 지방의 한 지역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나정(蘿井)에서 혁거세를 맞이한 신라는 다시금 동쪽 중 뛰어난 인물인 탈해를 맞이하여 건국의 기초를 단단히 세운 것이다.

탈해는 처음에 금관국에 도착하였는데, 그 금관국은 낙동강 하구 근방의 김해이다. 옛적부터 일본과 조선을 오가는 교통의 요지이다. 이에 관해 재미있는 점은, 연전에 일본에서 조선으로 연락기³⁸⁾ 한 대가 비행 중 짙은 안개로 방향을 잃어 불시착한 곳이

37) 일본의 주고쿠 지방에서 한국의 동해 쪽에 면한 지역.

38) 군부대 사이에서 요원의 이동이나 소량의 물자 운반에 책임을 지는 항공기이다.

바로 이 김해라는 것이다. 해상의 표류자도, 공중의 표류자도, 떠돌다 정착한 곳이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지점이라는 점은 흥미로운 사실이다. 그리고 탈해가 상륙한 아진포(阿珍浦)는 경주군 동해안에 해당하는데, 이 근방은 지금도 때때로 일본 쪽에서 난파선 등이 표착하는 곳이다.

이 전설에 관해 본교 2학년 김동환이 쓴 글을 보면 다음과 같다.

옛날, 일본의 어느 지역에 자식이 없는 수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매일 해님께 기도하거나 달님께 기도하며 “제발 건강한 자식을 하나 내려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자식이 하나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아니라 커다란 알이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매우 화가 나서 바다에 버리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울었습니다. 그 알을 깨끗한 상자에 넣고 작은 소와 작은 말, 쌀과 보리, 곡옥과 검 등 여러 가지 물건을 그 상자에 함께 넣고는 “너는 어디에 가더라도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라고 말한 뒤 바다에 띄웠습니다. 그러자 그 상자는 점차 조선 해안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상자를 줍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상자는 경주 나아리(羅兒里)로 흘러왔습니다. 그곳의 면장님 집에는 아이가 없어서 매일 해님과 달님께 기도하며 “제발 건강한 아이를 하나 주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다 쪽에서 까치가 “까아 까아”하고 울어서 보니 커다란 상자가 있었습니다. 그 상자를 열어서 보니 어엿한 아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소와 말, 검, 곡옥 등 여러 가지 물건도 있었습니다.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아이고” 하며 기뻐했습니다. 그 아이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효도했습니다. 그리고 근방의 아이들을 모아 대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자라서 이름을 탈해라 붙였습니다. 탈해는 말을 타고 뒤편 토함산에 올라 서쪽 지방을 바라보니 월성의 풍경이 좋아 조금씩 아래로 내려가는데 수영이 하얀 노인이 예를 올리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호공(瓠公)이라 하는 사람으로, 표주박을 타고 일본에서 왔습니다. 이곳 월성을 당신께 바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신라의 임금님

도 이 얘기를 듣고 “너는 내 자식이 되도록 하여라.” 라고 말했습니다. 탈해는 “예”라고 하여 신라 제4대 왕이 되었습니다. 탈해왕의 능은 월성 북쪽에 있습니다. 아이들은 그곳을 지날 때 절을 합니다. (1921. 12. 20)

유적

1) 아진포

탈해왕이 상륙한 땅이라는 아진포는 경주에서 동쪽으로 약 8리³⁹⁾ 떨어진 해안에 있는 양남면 나아리로 추정되는 곳이다. 이 부근은 소위 6촌 중 하나인 금산加里촌(金山加利村)으로, 촌장이 거주했다는 것에서 읍천(邑川)이라는 지명도 있었다. 삼국유사 등에 나오는 하서(下西)와 같은 옛 지명은 지금도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일본으로 출항하는 항구가 있었다는 읍포(粟浦).... 신라 시대의 읍포는 고려시대에 동진(東津)이 되고 조선시대가 되어서는 진리(津里)라 불렸다는 진리(津里)라는 이름의 옛 자취가 남아 있는 유서 깊은 곳이다. 풍경 또한 뛰어나, 일대의 구불구불한 해안가에는 백사장과 푸른 소나무가 멀리까지 이어지고, 아침 해가 떠오르는 동해의 파도는 옛날과 다름없이 조용히 해안에 부딪친다. 울창하고 아름다운 큰 소나무숲이 있다. 이 숲은 특히 양아림(養兒林)으로 불리는데, ‘탈해를 거둔 할머니의 집이 이곳에 있었다’며 마을 사람들은 비석을 세워 기원을 드리고 있다.

2) 월성 및 재실

월성은 경주 동남쪽으로 약 반리 정도 떨어진 문천(蚊川)이라는 하천을 따라 반달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다. 처음에는 호공의 집이 있던 곳이었으나 탈해에게 물려주어 지금에 이르렀다. 제5

39) 한국에서 1리는 약 400m지만 일본에서는 약 4km이다.

대 파사왕 시절 처음 축조했다고 한다. 흙으로 쌓은 보루의 높이는 5, 6칸(間)⁴⁰⁾으로, 높낮이가 들쭉날쭉하게 이어져 있다. 그 주위는 약 22, 23정(町)⁴¹⁾ 정도이며 내부 면적은 약 30정보(町步)⁴²⁾이다. 안쪽에 왕의 재실인 송신전(崇信殿)이 있다.

40) 1間은 척관법으로 6尺, 미터법으로 약 1.82m이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 <https://www.kriss.re.kr/menu.es?mid=a10302070000>)

41) 일본 에도시대부터 사용된 거리 단위로, 1町은 약 109m이다.

42) 1町步는 약 3,000평.

취보

제3회 도평의회

(1923년 3월 12일~21일)

경상북도 제3회 도평의회는 예정대로 3월 12일~21일, 10일 동안 도청 회의실에서 소집·개최되었다. 특히 시대 상황의 요구를 고려해 기존에 신문·잡지 기자와 통신원에만 한정했던 회의 방청 허가 범위를 확대해 올해는 평의회원이 소개한 일반 방청 희망자를 매일 10명에 한정해 입장하도록 허가했다.

제1일 - 3월 12일

오전 11시 15분 개회. 출석의원은 이정희(李庭禧), 오구라 다케노스케(小倉武之助), 이토 기치자부로(伊藤吉三郎), 사이토 도요지(齊藤豊治), 한익동(韓翼東), 류시일(柳時一) 6명을 제외한 31명 의원이고 도청측에서는 사와다 도요다케(澤田豊丈) 지사 이하 각 참여(參與)⁴³, 서기와 통역이 출석했다. 개회에 앞서 하타 슈사쿠(秦秀作) 내무부장은 신임 사와다 도요다케 지사를 의장(議場)에 소개했고, 사와다 도요다케 지사는 의장석에 앉아 개회를 선언하는 동시에 대강 다음과 같은 연설을 했다.

사와다 도요다케 지사 : 이번에 공석이던 경상북도 지사에 부임해 제3회 도평의회를 열면서 여러분과 처음 만나 지방비 행정에 대해 심의할 수 있는 것이 실로 매우 기쁩니다. 저는 겨우 며

43)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행정 사무 등에 참여시키기 위한 직위. 고문.

칠 전에 부임했기 때문에 아직 경상북도의 정세를 상세히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만 전임자의 계획과 경영, 여러분의 찬조와 노력으로 하루하루 향상되고 발전되고 있는 것은 실로 나의 일처럼 기쁩니다. 저도 일시동인(一視同仁)⁴⁴⁾이라는 성지(聖旨)⁴⁵⁾를 체현하고 조선 총독 시정 방침에 따라 민의가 있는 곳을 고찰해 경상북도 통치에 발전을 기하기 위해 전념하고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막대한 도움이 필요하므로 아무쪼록 앞으로 격의 없는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동정(同情)이 담긴 도움을 주시기를 간절히 희망하는 바입니다. 이번 기회에 경상북도 통치의 현황과 장래의 희망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민심의 상황을 보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최근 크게 안정되어 문화의 향상과 발전에 다투어 뜻을 기울이게 된 것은 그야말로 기쁘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저도 이 추세에 순응해서 제반 시설을 발전시키고 신속히 모국 및 기타 선진국과 같은 위치에 도달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도평의회원으로서 경상북도 행정에 참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역의 선각자로서 가장 유력한 지위에 계시므로 항상 민의의 창달(暢達)과 함께 민심 지도에 유의하셔서 민심이 잘못된 곳을 향하지 않도록 진력해 주시길 희망합니다.

다음으로 교육에 대해서는 작년 1922년 2월의 교육령이 발표되어 ‘일시동인’이라는 성지에 기초해 일본인과 조선인의 교육차별을 철폐했고 올해 1923년 1월에 ‘내선학교연락(內鮮學校聯

44) 사전적 의미는 멀고 가까운 사람을 친함에 관계없이 똑같이 대하여 준다는 뜻으로, 성인이 누구나 평등하게 똑같이 사랑함을 이르는 말. 이 말은 일제 강점기 일본과 조선총독부의 식민지 지배 정책에서 핵심 이데올로기로 활용되었다.

45) 임금의 뜻. 즉 천황의 뜻을 의미.

絡)’에 관한 문부성령(文部省令)이 나와서 일본 본토와 완전히 동일한 제도를 조선에도 실시하게 된 것은 실로 조선 교육의 일대 경사입니다. 경상북도도 이미 상업학교 및 농학교(農學校)가 설립되었고, 보통학교(普通學校)는 작년에 ‘3면(面) 1교(校)’ 계획을 시행했으며, 소학교도 일본인 집단 거주지에는 대체로 설립되었는데, 이들 학교는 종류·숫자·내용이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후 교육 보급과 발달에 더욱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학교 증설과 교원 충원이 필요한데, 학교 증설은 많은 경비가 필요하고 교원 충원에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최근 급격히 발흥한 향학심에 대해 희망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은 실로 유감입니다. 이 점은 여러분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산업은 민력(民力) 함양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인데 다행히 경상북도는 하늘의 은혜로 산업 종류도 다양하며 개선과 진보도 현저해서 미곡은 생산액이 230만 석에 달하고 품질도 양호해서 경상북도의 자랑거리입니다. 그런데 제가 새삼스럽게 덧붙이고 싶은 것은 농업, 임업, 수산업, 상공업 등과 같은 각종 산업은 앞으로 더욱 발전할 여지가 많다는 점입니다. 경상북도는 앞서 1922년도에 여러분의 찬동을 얻어 산업자문회(産業諮問會)를 열어 일찍이 조선총독부 산업조사회(産業調査會)가 결의한 산업계획방침에 정책적으로 호응한 산업장려방침 및 그 방법에 관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를 기초로 도의 재정 관계를 고려하고 또한 그 경중과 완급을 취사 안배해서 각종 산업의 진흥에 확실하게 이바지하고 싶습니다.

교통의 편리 여부가 지역 개발에 심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특히 산업의 발달은 교통과 운수의 편리를 수반하지 않으면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다행히 경상북도의 교

통 상황은 그 진보가 현저합니다만 앞으로 개수(改修)해야 할 것이 더 많습니다. 또한 이미 개수한 노선을 유지·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사업이고, 특히 구조물의 노후와 파손을 복구하는 일도 매우 긴요한데 이것이 충분하지 않아서 현재 운수와 교통에서 유감스러운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1·2·3등 도로의 개수와 더불어 이들 도로의 배양선(培養線)⁴⁶⁾인 등외(等外) 도로의 개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사업이므로 지방비에서도 가능한 경비를 지출해 지방민의 노력에 발맞추어 가급적 완성을 기할 생각입니다.

위생 시설은 작년에 여러분의 찬동을 얻어 도립 김천병원을 개설했고 이 밖에 음료수 문제, 보건위생 조사, 모르핀 환자 치료, 빈민 구료(救療) 등의 사업을 지방비로 시행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가능한 이들 시설을 충실하게 하는 한편에서 민중에 대한 위생 사상 보급에 힘써서 인생의 고통을 제거해 수명을 온전히 누리는 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절실히 느낍니다.

사회개량 시설은 조선의 현황, 특히 사상계 경향에 비추어 볼 때 더욱 그 필요성이 느껴져서 앞으로도 이 점에 더욱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도평의회에 자문한 1923년도 지방비 예산안과 기타 안건은 대체로 이상의 방침에 기초해 신중히 고려한 것으로서 시대의 추세와 경상북도의 현황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해 이를 제출하는 바입니다. 예산 내용에 관해서는 내무부장이 설명하고, 상세한 사항은 회의 진행에 따라 각 참여관이 질문에 설명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신중한 심의와 더불어 찬조(贊助)가 있기를 희망합니다.

46) 배양노선(培養路線)의 줄임말로, 주요 도로, 고속도로, 간선 도로 등으로 이어지는 더 작은 도로를 말한다. 교통량을 모아 주요 교통 동맥으로 보내는 역할을 한다.

이어서 가와이 아사오(河井朝雄, 10번) 의원은 의원 일동의 추천으로 신임 사와다 도요다케 지사에 대한 인사 발언을 요청했고 대략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가와이 아사오 의원 : 국가의 흥망성쇠는 지방행정 여하에 크게 영향받는다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진부한 사실입니다. 국가를 신체에 비유하자면 각 도·부·군은 그야말로 손발이자 몸통입니다. 따라서 손발과 몸통이 건전해야 두뇌도 건전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도의 통치가 향상되지 않고 인민이 빈약하면 국가의 부강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신임 사와다 도요다케 지사는 일본 본토에서 지방행정 당국에 계셨고 조선총독부에서 지방행정 관계의 요직에 계셨는데, 능력이 뛰어나셔서 경상남도 지사로서 평판이 자자했던 분입니다. 학력과 재능 모두 뛰어나고 덕망이 매우 높으며 앞으로 오랫동안 전도가 유망한 신사입니다. 이제 우리 경상북도에 부임하셔서 능력을 크게 발휘하려 하십니다. 우리 도민은 기쁘게 환영하면서 도 행정의 쇄신과 도민 복지 증진을 크게 기대합니다. 도평의회가 막 부임한 신임 지사를 맞이하면서 경상북도 평의회원 일동도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더불어 도정(道政) 및 지방개발에 관한 도평의회의 희망을 의회에 간단히 개진하고자 합니다.

최근 조선의 문화가 눈에 띄게 진보하고 제반 시설도 착착 정돈되고 있는 것은 정말 기쁜 일입니다. 그럼에도 일반 민중의 지식 진보와 사상 향상과 비교하면 정치적 제반 시설은 오히려 많이 뒤떨어져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예컨대 지방제도, 즉 현행 지방제도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지방비령은 표면적으로는 자치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이면에서는 자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는 심각한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중은 과거 3년의 경험으로 지방정치에 관해 경험을 쌓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이 제도를 두는 것은 어째서인가요? 아무쪼록 시대의 추이에 맞는 제도 혁신에 대한 사와다 도요다케 각하의 현명한 고려를 바랍니다. 최근 재계의 불황은 도시와 농촌을 불문하는 상황이고 민력(民力)은 현저히 피폐해졌습니다. 특히 조선 재계의 중추 세력인 조선은행이 큰 손해를 입은 이래로 지역의 지점도 실패를 경험하고 필요 이상으로 걱정을 하면서 건설한 것에도 응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사업가를 적극적으로 원조하고 산업 개발에 이바지하는 정책을 펼치지 않고 소극적으로 자금을 회수하는 데에만 힘쓰면서 사업가의 영양 상태가 점차 불량해지는 느낌입니다. 지방개발을 두 어깨에 짊어진 사와다 도요다케 지사는 경상북도 금융경제 상황과 민중의 영양 상태를 조사하셔서 경상북도의 산업 진보에 크게 공헌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후략)

이어서 사와다 도요다케 의장은 도평의회원의 변동을 보고하고 다음과 같이 신임 도평의회원을 소개했다. 김사일(金思一) 사임, 장직상(張稷相) 신임. 이우직(李愚稷) 사임, 신수일(愼守一) 신임. 최준(崔浚) 사임, 김한은(金翰殷) 신임.

이어서 참여(參與) 및 서기와 통역을 임명하고 제출 자문안에 관한 보고는 산업서기(産業書記)에게 낭독시킨 후 의사(議事)에 들어갔다. 첫머리에 가와이 아사오(10번) 의원은 의사 진행 및 방청 허가 범위 확장 건을 건의했고, 사와다 도요다케 의장은 다음날 13일부터 3일간은 일독회(一讀會)⁴⁷⁾로 하고, 이후 2일간을

위원회로 하며, 자문안은 관항(款項)⁴⁸⁾에 따라 진행하면 어떤지를 물었다. 방청 허가 범위 확장에 관해서는 인원을 한정해 가능한 방법을 강구하기로 하고 나중에 심의하기 위해 가와이 아사오(10번), 나카타니 다케자부로(中谷竹三郎, 11번), 배동옥(裴東玉, 25번), 서병조(徐丙朝, 28번), 이토(이훈(李薰), 32번), 문명기(文明琦, 34번)⁴⁹⁾ 6명 의원을 지명하고 오후 0시 56분에 폐회했다.

제2일 - 3월 13일

오전 10시 30분 개회. 출석의원은 전날과 동일. 사와다 도요다케 의장은 개회와 동시에 일정에 따라 ‘세입 전체(임시부(臨時部)와 경상부(經常部)), 세출 경상부 제1관(款) 토목비, 세출 임시부 제1관(款) 토목비, 세출 임시부 제5관(款) 보조비 내 제1항 토목보조’에 대한 일독회를 여는 취지를 선언하고 전날 위원회에서 결정된 평의회 방청 규칙을 각 회원에게 배부하도록 했다. 하타 슈사쿠 내무부장은 1913년도 세입·세출 예산 전체를 설명했다. 그 대강은 다음과 같다.

하타 슈사쿠 내무부장 : 1923년도 예산 요강에 대해서는 지난번 배부해 드린 설명서대로 대체로 양해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때 중복을 점검하지 않았던 새 예산 편성 방침의 대강, 주요 신규 사업 등을 참고가 되도록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금년

47) 의안을 토의하기 위한 첫 번째 모임. 의안 낭독, 질의, 응답, 대체(大體) 토론을 한다.

48) 예산서나 결산서 따위의 내용 구분 단위인 관과 항을 아울러 이르는 말. 가장 큰 단위가 관, 다음이 항, 그 다음이 목이다.

49) 원자료에는 이름이 없이 성(姓)만 기재되어 있다. 옮기는 과정에서 경상북도 산업자문회 44명의 명단 등과 대조해 이름을 추가했다.

도 예산 편성은 과거 3년 이래로 이어지는 재계의 불황을 감안하고 정부의 재정 방침을 고려해 기존에 정해진 사업비 및 사무비 등의 경상 경비의 팽창을 최대한 줄여 대폭 정리·긴축했습니다만, 다른 한편에서 지방개발에 절실하다고 인정된 사항 및 과거 시설을 충실화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비는 재원을 안배하며 궁리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작년 도평의회 건의와 여러분의 의견과 희망 사항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그 당시 여러분의 찬성을 얻었던 산업자문회도 작년 11월에 개최했습니다. 자문회의 답신 가운데 경상북도 산업 개발 사항 등에 대해서도 완급과 경중을 충분히 고려해 재원이 허락하는 한 실행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한 상황입니다.

우선 올해 세입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총액은 2,010,286원으로 전년도 예산 총액 2,017,685원과 비교하면 7,100여 원 감소했습니다.

경상부 세입은 1,688,025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30,300여 원 증가했습니다. 또한 임시부 세입은 322,261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37,700여 원 수입이 감소해 총액이 7,300여 원 감소했습니다. 증감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는 전년도에 호세(戶稅) 미부과 호수 정리를 마쳤지만, 전년도 실적에 비추어 상황을 어느 정도 고려해 부과한 것, 물가 하락과 구매력 저하, 미곡시장 단속 등의 관계로 시장세(市場稅), 도장세(屠場稅)⁵⁰⁾ 등이 감소할 것이라 예상했기 때문에 28,200

50) 일제는 1906년 12월에 '지방세규칙'을 발표해 시장세 등을 포함한 지방세 세목을 결정했다. 이후 1909년 4월 1일 법률 12호로 '지방비법'을 발표했고 이에 따라 각 지방에서는 '지방비부과금부과규칙'이 도령으로 발표되었다. 시장세와 도장세(屠場稅)는 이러한 지방세의 대표적 과목 가운데 하나였다. 도장세는 도축장에 부과한 과목이었다.

여 원을 줄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의 경우 전년도는 형산강(兄山江) 도수제(導水堤)⁵¹⁾에 대한 토목비 국고보조금이 있었습시다만 준공과 함께 이것이 사라진 것과 보통학교의 ‘3면 1교 주의’ 완성을 위한 교육비 국고보조금이 감소한 결과 27,100여 원이 줄었습니다. 기부금의 경우도 전년도는 대구공립상업학교 및 수산시험장 등의 기부금이 44,000여 원 있었지만, 올해는 선산군 내 감천교 개량비 기부금 65,000원만 있어서 37,500원이 줄었습니다. 이에 지방세는 합계 92,900여 원 감소했습니다.

한편 임시은사금 수입이 1,100여 원, 잡수입으로 대구공립상업학교 수업료 신설 및 기타 기존 설립 실업학교 수업료 증액 징수, 도립김천병원 수산시험장, 묘포 및 잠종 검사 수수료 수입의 자연 증가와 산미 개량 증식을 꾀하는 데 필요한 재원에 총당할 미두(米豆) 검사 수수료 증액 징수 및 검사 가마니 수 증가에 따른 57,400여 원이 있습니다. 이월금의 경우 토목공사 시설 관계 사업과 함께 이월하는 것 등이 있어서 26,900여 원이 늘어났습니다. 이에 이상 합계 85,500여 원이 증가했습니다. 결국 경상부 임시부 세입 총액은 7,300여 원 감소했습니다.

이월금 내용에 대해 한 가지 첨언드립니다. 이는 1921년도 예산 잔액이 126,400여 원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전년도 세출에서 교육비 보조 불용액(不用額)이 22,000원, 공사 입찰 차액이 약 20,000원, 사업과 함께 이월될 금액이 25,500원, 예비비 잔액이 7,500여 원, 휴작 구제비 85,000여 원, 연합공진회비 4,500원, 기타 경상 임시부를 통틀어 29,500여 원의 불용액이 생겼습시다만, 세입 감소가 28,600여 원이기 때문에 이를 공제

51) 물의 흐름을 일정한 방향으로 돌리고, 물의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만든 둑.

한 213,500여 원을 계상한 상황입니다. 이상은 세입의 개요였습니다.

세출은 올해 전년도에 비해 경상부 세출이 88,700여 원 증가했고 임시부 세출은 96,100여 원 감소했습니다. 경상부가 현저히 증가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경비를 상당히 정리했고 여비(旅費)도 기정 사업(既定事業)에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약 20,000원을 삭감했지만, 산미증식계획에 따른 관개사업 조사, 경상북도 소유 모범림 증설, 수산시험장, 원잠종 제조소(原蠶種製造所)·직할학교·도립병원 내실화, 종축장(種畜場)·사범학교·상업학교 신설, 지방개량사업 확장 등에 필요한 경비와 기타 기정 사업(既設事業)의 진전에 따른 사업비와 어쩔 수 없이 필요한 인건비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임시부 지출은 현저히 감소했는데 이는 토목비의 도로교량비, 권업비의 상품진열소비, 공진회비, 보조비의 토목·권업·수산·위생 및 사회사업비 보조가 현저히 증가했지만, 다른 한편에서 토목비의 치수 제방비 및 항만 개수비, 권업사무소 건축, 교육비의 직할 각 학교 건축을 당분간 필요한 정도로만 한정해 보조비의 교육비 보조를 정리했기 때문입니다. 이상은 세출 증감의 개괄입니다.

사업별도 올해 세출을 대강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토목비는 1·2등 도로 각 1개 선, 3등 도로 2개 선의 연장 7리(里) 24 여정(丁)의 개수와 선산군 지역 내 개량공사가 지방비의 직접 사업으로서 중요한 것이고 그 공사비는 135,500원에 달합니다. 또한 보조사업은 대구부의 도시계획에 따른 45,000원, 감포·구룡포의 축항 보조비 80,000원, 포항 수도 및 청도 간이 수도 보조비 24,000원, 기타 대구부 내 도로 및 16개 선, 김천·예천·경주면의 시가(市街) 정리 보조비, 상주·예천·영주(榮州)·약목, 병곡·영해

(寧海)·의성 각 면의 제방 등의 보조비가 주요한 것으로 경상임시부를 합쳐서 지방비 지출액은 537,200여 원입니다. 전년도의 506,900여 원과 비교하면 30,300여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올해 임시부 지변의 각종 토목사업은 재해복구비와 합치면 군위군과 울릉도를 제외한 각 부·군에서 진행합니다.

토목사업은 시행이 필요한 곳이 워낙 많고 경비도 거액이 듭니다. 지방비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신중하게 심의한 결과 이상의 시설을 계획했고 이에 따른 경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무엇보다 경상부가 전년도에 비해 5,000여 원 증가했는데 이는 주로 매년 팽창하는 토목 사무 및 기술에 종사해야 할 직원을 ‘조선 지방 직원 대우령(朝鮮地方職員待遇令)’에 따라 정원을 충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새로 토목 주사(主事)와 토목 기사(技師) 각 1명, 토목 서기 2명, 토목 기수(技手) 6명을 증원하게 된 것과 개수 노선 연장에 따라 2등 도로에 3명, 2등 도로에 수로 인부(修路工夫) 3명을 증원하고 그 대신에 기존의 일본인 도로 감시원을 모두 조선인으로 바꾸고 기술 및 사무 고원(雇員)도 5명을 줄였습니다. 전년도에는 각종 건축공사비에 잡급잡비(雜給雜費)로 4,366원을 계상해 감독원 급여를 지출했는데 이를 폐지해 재원을 조절했기 때문에 인건비는 사실상 조금도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산업과 관련해서는 이전에 개최한 산업자문회의 답신에 따라 새롭게 계획한 사항은 적습니다. 올해 예산에 나타난 수치를 보면 권업비, 수산비(授産費) 등 산업에 관한 경상부 및 임시부 등의 세출 총액은 721,100여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62,100여 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소속 업무소(業務所) 건축 등의 임시적 경비를 당분간 필요한 만큼만 책정했기 때문입니다. 전년도 경비

38,800여 원의 지출이 없어진 것과 전년도 수산시험장 지정기부금 14,000원을 대체할 재원을 순수 지방비(純地方費)에서 지출하게 되었기 때문에 결국 전년도 대비 111,000여 원 증가로 볼 수 있습니다.

주요 신규 사업에서 지방비 직접 사업은 경상북도 소유 모범림 설치, 각 지역 박람회와 공진회 출품 자금 대부(貸付), 임업 장려, 수산시험장 내실화, 종축장(種畜場) 설치, 전국 각 부·현·시 공립 상품진열소 연합 상품 진열대회 개최, 부산에서 개최하는 각 도 수산 공진비(共進費) 지출, 포항과 하마다(濱田) 간 직통항로 조사, 공업 장려 기관 설치에 관한 조사 인건비 등입니다. 이밖에 인건비는 ‘조선 지방 직원 대우령’에 따른 산업 주사 1명을 충원하고 매년 급증하는 지방비 산업 사무를 맡기는 것, 이밖에 미두 검사 업무의 증가에 따라 산업 서기 1명을 증원하고 경상북도 소유 모범림 사업 시행 계획을 위한 산업 기사, 산업 기수 및 고원 각 1명과 관개사업 조사에 종사할 산업 기수 1명의 증원을 승인했습니다. 주요 보조사업은 쌀·보리 공동 조제장(調製場) 설치, 뽕나무 묘목 구입, 여자 양잠전습소, 직기용(織機用) 정경기(整經器)⁵²⁾ 구입, 완초 제조강습회, 도자기 제조강습회, 어업조합 설치, 돌김 제조 개량, 활엽수 조림 장려, 묘목 생산, 품평회, 밭 농작물 채종(採種) 재배전, 제지모범장 설비(設備), 닥나무 묘목 육성 생산 등의 신규 보조사업이고, 권업 및 수산(授産) 산업에 속하는 보조사업은 전년도 대비 40,000여 원 증가했습니다.

교육에 관한 지방비 지출은 경상부 및 임시부를 합쳐 507,600여 원이고 전년도에 비해 107,000여 원이 감소했습니다.

52) 직기에서 사용할 날실(warp)을 일정한 길이·장력·폭으로 감아주는 기계.

주요 감소 이유는 직할학교 관련 경상부에서 42,900여 원이 증가했지만, 임시부에서 41,000여 원이 감소했고 더불어 교육 보조비에서 108,900여 원이 감소함에 따라 차액 107,000여 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일견 시대에 역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설명드리고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 직할의 중등 정도 학교는 올해 필요한 만큼만 건축하기로 했기 때문에 건축비 등의 임시비에서 앞서 적은 대로 41,000여 원이 감소했지만, 다른 한편에서 대구공립농업학교 및 상주공립농림학교의 학급 증가, 교육 내실화, 공립상업학교 및 공립사범학교 개설에 따라 경상부에서 125,000여 원이 필요합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42,900여 원이 증가한 것으로 이상의 직할 학교 임시비 205,900여 원이 필요합니다. 총경비는 331,025원에 달하고 도 직할 중등학교는 2개교가 늘어나며 앞으로 이를 유지·경영하는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증설을 계획해 최근 눈에 띄게 늘어나는 초등교육 수요자의 진학에 이바지하려 합니다. 이것은 지방비에서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초등교육 방면의 재정 상황을 보면 먼저 조선인 교육 방면은 알다시피 지방의 향학심이 발흥하는 반면에 현재 초등교육 기관이 많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매년 입학난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올해는 경비에 여유가 있는 군에서 17개교 34학급이 신설되고 기존 학교에서는 각 부군을 통틀어 132학급이 늘어 총 166학급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가능한 2부제 수업 또는 부설 학교를 설치하게 하고 사립학교 또는 사립학술강습회와 함께 진행해 상당한 취학난 완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보통학교 보조비는 전년도 대비 69,000여 원이 줄었지만 각 학교비세입에서 수업료 증액과 신입생 증가에 따라 105,400여 원의 수

입 증가(增收)가 있었고 전년도 이월금이 32,000여 원이 더해져
합계 137,400여 원이 됩니다. 따라서 달성군 외 9개 군은 학교비
에서 임시은사금으로 각 군의 기금에 상당하는 보조를 할 때는
예정한 계획을 시행할 수 있지만, 기타 부군은 학교비를 제한액
까지 징수하지 않았으면 이를 제한액까지 징수하게 하고,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제한 외 부과를 인정해 건축비 등의 임시비를 적
당히 보조하며, 부족한 금액은 상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기채(起債)를 허락해 재원을 조절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은 관계로 올해 조선인 초등교육에 필요한 학교비는
경상부 906,500여 원, 임시부 758,600여 원으로 합계 1,665,600
여 원이 될 예정입니다. 이를 전년도와 비교하면 29,600여 원이
증가했습니다. 신설 학교 숫자와 학급수가 전년도 대비 상당히
증가했음에도 세출 증가가 비교적 적은 것은 전년도의 경우 대구
부가 240,000원의 대규모 건축을 했지만, 올해는 해당 지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올해 신설 학교는 당분간 필요한 정
도만 짓기로 했고 건축비 단가를 줄이기로 했으며 학급 증가에
필요한 교원은 대부분 봉급이 비교적 저렴한 조선인 교원으로 충
당하기로 해서 1개 학급당 경비가 전년도보다 크게 줄었기 때문
입니다.

일본인 소학교에 대해 보조금을 정리한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원 급여 보조가 1922년에 10,000여 원 불필
요해졌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1921년도 교원 급여 보조 때 실
제로 보조를 받지 않아도 경리(經理)할 수 있었던 청도 이외 12
개 학교조합에 총 8,700여 원을 보조해 이에 따른 조합비 내 교
원 급여 금액을 학교 내실화 경비에 충당하게 할 생각이었는데,
이들 조합이 해당 보조금을 그대로 이월해 종래에도 그 과중함을

인정하지 않았던 조합비 부담이 이듬해 1922년에 크게 감경한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것은 지방비 보조의 정신에 반하기 때문에 이들 조합에 대해 전전년도 부담액까지 부과하면 앞서 말한 8,700여 원의 재원은 있겠지만 한 번에 과율(課率)을 증액하는 것은 다소 곤란해서 이 부분을 고려해 올해 교원 급여 보조는 전년도 대비 16,500여 원을 줄였습니다.

학교 건축비 보조는 올해 조합이 계획한 사업에 대한 소요액을 계상했기 때문에 14,000여 원을 줄이고 기타 교원 여비 특별 상여 및 설비 등의 보조는 이를 전년도 실적을 고려해 상당 부분 삭감해 총합계 39,200여 원을 정리했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종래에 경상북도의 소학교 보조는 다른 도와 비교해 월등히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정리를 하더라도 세계(歲計)에 대한 보조금 비율은 100분의 3.5이고 이는 여전히 조선 전체에서 최고 비율을 보여줍니다.

올해 위생비 세출 증가는 독립병원 내실화와 격리병사(隔離病舍) 보조비 증가에 따른 것으로 기타 사업비 또는 사무비 등은 대체로 전년도 정도의 금액으로 경리(經理)했습니다만 앞서 언급한 병원 및 격리병사 보조를 위해 전년도 대비 30,800여 원이 늘었습니다. 병원은 상당한 수입이 있고 격리병사 건축 보조비는 조선총독부의 보상이 있어서 실제 지방비 부담은 극히 소액입니다.

사회구제비에서 활동사진 순회 영사는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지만 경비가 꽤 많이 필요해서 순회 횟수를 줄이고, 그 잉여금으로 지방청년회원 및 면 리원(吏員)을 소집해 지방개량강습회를 열고 순회 문고(文庫)를 설치해 군에 근무하는 관공리에게 신간 도서를 순회 열람하게 하며 지방청년회원 가운데 중견 회원이 일

본 본토의 문물을 시찰하도록 했습니다. 이상 올해 예산의 대강에 대해 청취해 주셨는데 시간 등의 관계상 충분하지 않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상세한 것은 회의 진행에 따라 각각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정오가 되어 오전 회의를 폐회하고 오후 1시 23분에 재개했다. 사와다 의장은 오전에 이어서 개회를 선언하고 한익동(韓翼東, 27번) 의원이 병으로 며칠간 결석한다고 신고했음을 보고한 후 곧바로 세입 전부를 일괄해서 의제에 부쳤다.

가와이 아사오 의원 : 1923년도 경상북도 지방비 가운데 세입 합계는 겨우 2,000,000원을 유지해 전년도보다 7,399원이 감소했습니다. 그 이유는 물가 하락과 구매력 감퇴에 따른 시장세와 도장세(屠場稅) 감소에 따른 것인데, 본 의원의 사견으로는 세입 예산 편성에서 적극적으로 증액 징수를 계획한 바가 없는 것이 유감입니다. 가옥세는 작년 예산회(豫算會)에서 안동, 경주, 상주를 지정면으로 해서 부과할 방침이라고 들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만약 실제로 4월 이후에 안동과 경주, 또는 상주를 지정면으로 한다면 그 시행과 함께 가옥세를 해당 지역에 부과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가옥세 수입은 약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세출에서 예비비를 지출하거나 사업에 미리 충당할 계획을 세우고 가옥세 징수 증가로 보충분을 충당하는 안을 만들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만약 이러한 방침이라면 도평의회는 적극 고려하려고 합니다. 시장세는 16,800원 감소라는 수치가 나와 있는데 이 세수 감소는 5항의 부기에 적혀 있는 시장규칙 제1조 제4호에 의한 시장세 세수 감소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관련해서 어떤 방침으로 시장에 임하고

있습니까? 또한 시장세 부과액은 판매가격 11,500,000원의 1/10,000, 이것을 곡물 가격으로 환산해 1년 판매 석수(石數)를 50만 석으로 해서 세금 1,500원을 계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초에 내시(內示)한 세입출 예산을 언뜻 보았을 때 이 항에 의한 세금을 11,500원 계상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즉 판매 석수를 500만 석으로 산정하고 계상한 것인데 신임 지사가 부임한 이후에 예산 편성을 바꾸어서 시장세를 1/10로 되돌린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처럼 곡물 시장 거래액이 감소할 것이라고 인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6항의 도장세(屠場稅) 및 도축세(屠畜稅)로 도우세(屠牛稅) 한 마리당 2원 50전은 1921년부터 문제가 된 것으로 전년도에도 증액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한 당국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하타 슈사쿠 내무부장 : 먼저 시장규칙 제1조 제4호에 의한 시장의 세액이 감소한 이유와 작년에는 거래액을 5백만 석으로 한 것을 올해는 50만 석으로 한 이유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대구 곡물 시장에서 연거래(延取引)⁵³⁾를 개시한 것은 1919년이고 이후 1921년 12월에 시장규칙에 근거한 시장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1922년 9월에 조선총독부(本府)에서 ‘시장 감독 요강’이라는 것을 제정했습니다. 1922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감독 요강이 아직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에 5백만 석으로 계상한 것은 주로 이전 연도의 실제 거래액에 준해 5백만 석으로 상정한 것입니다. 예산을 편성한 후에 시장 감독을 엄중히 하는 감독 규정이 제정되었지만 감독 규정의 단속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총독부도 실적을 본 후 올해 2월에 이러한 중

53)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대금을 결제하는 거래.

류의 시장 거래 개선에 관해 엄중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감독 요강 및 이후의 개선 명령에 따라 고구치오토시(小口落)⁵⁴를 엄금하게 되었고 그 결과 동일인 매매에서 매매 모두 보증금을 면제하는 것이 절대 불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상대방 매매에 대해서도 상살(相殺)⁵⁵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단속상 연거래가 종래와 같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로 거래액을 작게 설정한 것입니다. 정확한 숫자에 근거하지는 않았지만 연거래가 상당히 감소할 것이라는 점과 세입의 확실을 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 우선 경상북도의 쌀 수출 총액을 50만 석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도장세는 증가할 여지가 약간 있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일용품 특히 식료품, 이 중에서도 소고기가 일본인과 조선인 가운데 특히 조선인에게 가장 필요한 영양식품이기 때문에 재계 불황과 구매력이 감퇴한 오늘날 이를 증액하는 것을 조심한 것입니다. 또한 안동, 경주, 상주는 해가 바뀌면서 지정면이 되었는데 가옥세는 해당 면의 호세(戶稅) 금액과 같은 금액이어서 세액에 아무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가와이 아사오 의원 : 시장 관련 답변에 따르면 올해 2월에 조선총독부에서 이와 같은 종류의 시장 단속에 대해 엄중한 명령이 내려진 이유의 하나는 매매 쌍방에게 보증금을 징수하는 것, 또 하나는 고구치오토시(小口落)를 엄금한 결과 시장세를 낮게 예상했다는 것입니다만, 당국은 기존에 대구의 시장에서 이른바 소액

54) 상품거래 및 1945년 이전 주식거래에서 이루어진 매매 약정을 한 채로 미결제하는 결제 방법의 하나. 거래소가 동일 회원의 동일 상품, 동일 시한의 매매를 상살(相殺)해서 잔액만을 매매 약정 미결제 상태로 결제하는 것.

55) '상계'의 비표준어. 채무자와 채권자가 같은 종류의 채무와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일방적 의사표시로 서로의 채무와 채권을 같은 액수만큼 소멸하는 것.

거래 누락이라는 장부 기입 방법을 행하고 있었다고 인정한 것입니까? 제가 보기에 대구의 시장은 매매 상호 간의 중개 기관이지 ‘시장 대 상인’의 거래가 아닙니다. 따라서 고구치오토시(小口落)라는 방법은 기존에 행해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구 시장은 고구치오토시(小口落) 엄금에 따른 영향이 없다고 믿습니다. 더불어 보증금인데 이 또한 거래상 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엔다 히코이치(圓田彦一) 이사관 : 고구치오토시(小口落)라고 하면 어폐가 있을지 모릅니다. 대구곡물시장의 실제 매매 상황을 보면 하루에 동일인이 매매했을 때 상살(相殺)해서 그 잔액에 대해 보증금을 취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단속 결과는 매매 전부에 대해 보증금도 취하고 장부에 잔액을 남겨서 수도(受渡) 기한이 왔을 때 전체를 수도(受渡)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방법을 새롭게 한 것이 아닙니다. 기존에 시장 감독 규정이 만들어진 때부터 존재하는 것인데 단지 장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에 이번에는 엄중히 통첩해 장려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거래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해 감액한 것입니다.

가와이 아사오 의원 : 변명에 따르면 요컨대 확실한 거래를 장려한다는 결론입니다만 실제 단속은 작년 1922년 9월 대구곡물 시장에 경찰관을 파견해 의혹(思惑)이 있는 거래의 억압에 힘쓰는 바가 있습니다. 동시에 거래 시간을 1시간에서 30분으로 단축했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거래 수를 급감시키지는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존립 필요성이 인정되고 연거래나 생산자나 산업 발달 측면에서 보더라도 필요한 거래 방법이라고 정부가 인정한다

면 필연적으로 필요한 거래를 단속해서 거래액을 격감시키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전의 경과에 준해서 전년도 징세액을 가능한 실제 수치에 가깝게 계상하는 것이 당국자의 당연한 의무이지 않겠습니까?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하타 슈사쿠 내무부장 : 감독 규정 제정 후에 이를 해당 업자에게 제시해도 여전히 거래액이 변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만 이것은 감독자 측에서 보면 시장 경영자가 감독 규정을 존중하지 않고 법령을 무시한 것에서 비롯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연거래를 인정하고 있지만 현재 시장은 어디까지나 현물 시장입니다. 시장의 입장을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단속해야 합니다. 이것은 총독부의 명령입니다.

엔다 히코이치 이사관 : 작년 9월에 경찰관을 대구 시장에 파견한 것은 시장 안의 분규 감시를 위한 것이었고 거래 억제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가와이 아사오 의원 : 생각해 보면 매매액을 50만 석으로 산정한 수치는 올해 미두(米豆) 수이출액을 약 50만 석으로 예상해 견적·산정한 것인데 경상북도의 미두 수이출 총액 50만 석을 대구미곡시장 판매 석수의 표준으로 삼은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거래는 하루에 몇 번이고 덴바이가이모도시(転売買戻)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실제 석수는 상당히 많아집니다. 실제로 작년 시장 거래액은 2,000만 석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당국은 겨우 500만 석 내외로 산정

56) 신용거래와 선물거래에서 미결제 매매 약정을 수수 기일 전에 반대매매(反對賣買)를 해서 차익금 또는 차손금을 수수해 거래관계를 해소하는 것.

해 과세했는데 이를 50만 석으로 견적하는 것은 너무 큰 급감이
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중략) 지금까지 2,000만 석 내외의 거래
가 있었던 것을 갑자기 100만 석 혹은 50만 석으로 격감시킨 것
은 절대로 안된다고 믿습니다.

듣자 하니 조만간 조선에 거래소법(取引所法)이 실시되고 조선
의 주요 지점 2~3곳에 허가된다고 하는데 경상북도 당국은 이런
경우를 예상하고 만일 대구에 거래소가 설치되지 않으면 현재 시
장을 거래소법 실시와 함께 해산한다는 생각에서 숫자를 과도하
게 작게 견적한 것이 아닌지, 이런 의심도 다소 듭니다. 이상에
대해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엔다 히코이치 이사관 : 50만 석으로 예상한 것은 시장의 실제
거래와 호응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만, 대구곡물시장에서 연
거래를 시작한 것은 1919년이었습니다. 그 수도액(受渡高)은
1919년 수불액(受拂高)이 86,000석이었고 1920년이 32,000석이
었으며 1921년 50,000석, 1922년 74,000석과 같은 수치였습니
다. 이것이 현물 수도(受渡)가 필요한 실제 석수(石數)라고 생각
합니다. 가령 1922년의 74,000석에 대해 거래액을 50만 석으로
산정한 경우 1기(期) 60일의 연거래로 했을 때, 실제 거래가 가
령 50일간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현물에 대해 7배 정도가 되기
때문에 하나의 현물을 1주일마다 전매할 여유가 있습니다. 따라
서 연거래로 하더라도 곤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단 이전처럼
거래액이 현물의 100배 이상이나 된다는 것은 하루 안에 사서
하루 안에 2회나 전매하는 것이므로 현물 연거래의 실제 측면에
서 보더라도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50만 석은
연거래를 절대로 하지 않는다고 전제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거

래소 설치 허가에 관해서는 어떤 식으로 실현할지 혹은 실현 시기 등에 관해서 조선총독부도 경과를 전혀 알 수 없어서 50만 석으로 산정한 것은 거래소 문제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문명기 의원 : 제8항의 선세(船稅)는 겨우 12월인데 이런 소액을 계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어서 차량세(車輛稅)는 조금 증액해 계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나카무라 히로다케(中村寬猛) 재무부장 : 선세 적용을 받는 선박 가운데 경상북도에 적을 가지고 있는 배는 24척으로 여기에 소정의 세금을 부과하면 12원이 됩니다.

이토(伊藤,李薰) 의원 : 세입 내 제4호에 의한 시장의 매매액을 50만 석으로 예상해 산정했는데 실제로 100만 석 혹은 200만 석이 되어도 약 1,150원을 부과합니까? 혹은 이것은 예산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실적에 따라 세액을 늘리는 것입니까?

나카무라 히로다케 재무부장 : 물론 이것은 잠정적 기준일 뿐이고 실제로 시장의 실적이 이 이상이 되면 그 거래액에 따라 판매가격의 1/10,000을 징수하게 됩니다.

신명환(申命煥) 의원 : 호세(戶稅)의 부과가 상당히 줄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과 호수(戶數) 정리로 감소했다는 설명이 있는데 민력(民力)이 점차 충실해지고 시대가 진보해 호수가 늘었을 터인데 이렇게 감소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도다 마사(戶田正) 세무과장 : 1921년도 부과 호수는 348,208호이고 1922년도는 부과 누락이 있어서 100호당 5호는 정리할 수 있다고 예상해 총 부과 호수를 365,600호로 했습니다. 즉 17,400호가 증가한 셈인데 실제 조사한 결과는 360,300호밖에 되지 않아서 그것을 올해 부과 호수에 계상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만큼 감소했습니다.

서병조 의원 : 세입 경상부의 제1관(款) 지방세 증액에 대해 본 의원은 제1회 도평의회 때부터 증액 징수를 주장해 왔습니다. 올해는 정부도 재무 긴축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도 올해 예산액을 전년도와 비교해 크게 감액하지 않은 것에서 고심의 정도를 이해할 수 있지만 이후 제반 시설에 대한 많은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세를 증액할 의향은 없습니까? 만일 증액이 어렵다면 다른 부분에서 지방비 증액을 고려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타 슈사쿠 내무부장 : 실은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청에서 시행하는 기설(既設)사업은 진행되고 있고 또한 새롭게 시행해야 할 사항도 속출해서 경비가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이 점에서 세입은 고정되어 있는 반면 세출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어서 오늘날 지방비 재원은 거의 막다른 곳에 다다랐습니다. 우리는 지방비 재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려하고 있지만 지방세 재원을 늘리는 것은 국세와도 관계가 있어서 단순히 지방청에서 이를 좌우하면 인민에게 곧바로 부담이 되는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조선총독부가 방침을 제시하지 않으면 어떻게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재원을 배양해 증액 징수하는 것은 조선총독부가 강하게 압박하는 부분이고 조선총독부도 지방의 재원을 증가하

는 것에 관해서는 연구하고 있습니다. ‘언제, 무엇을, 어떻게’라고 즉답할 수는 없지만 장래에 기회를 봐서 지방 자원 증가를 실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윤성하(尹聖河)⁵⁷⁾ 의원 : 작년 대구공립농업학교(大邱公立農業學校)를 이전하면서 부지와 건물이 필요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쓰지 않는 건물과 부지가 올해 예산에 나타나 있지 않은 것은 왜입니까?

하타 슈사쿠 내무부장 : 건물은 이축했고 부지는 그 자리에 상업학교를 세우게 되어 약간의 부지의 여지가 있지만 해당 용도가 있어서 보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예산에 신지 않았습니

이것으로 세입 전부의 일독회(一讀會)를 마치고, 세출 경상부 1관(款) 토목비, 세출 임시부 제1관 토목비, 제5관 보조비 내 제1항 토목비 보조 일독회를 이어갔다.

김구현(金龜鉉) 의원 : 토목비는 대체로 작년부터 어느 정도 증액되었지만, 이것만으로는 도저히 충분히 시여(施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른 비목에서 해당 예산을 토목비로 돌리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타 슈사쿠 내무부장 : 그 점에 관해서는 상당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예산은 소액이지만 세입을 줄였음에도 불구

57) 원자료에는 ‘윤 의원’이라고만 적혀 있다. 조선총독부관보의 경상북도 도평의회원 임명 기록 등에 기초해 ‘윤성하’임을 확인해 옮겼다.

하고 토목비는 30,000여 원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가능한 각 지역의 요구에 호응하려는 생각으로 고심한 결과인데 재원에 한계가 있어서 희망에 한 번에 보답할 수 없는 것이 유감입니다.

이정훈(李正勳) 의원 : 임시부 제1항의 도로교량비에서 대구-천안 간 1등 도로 개수비는 천안에서 대구를 종점으로 하는 것입니까? 또는 대구보다 남쪽으로도 연장해 개수합니까? 그리고 경상에서 하양으로 통하는 도로에 대해 저는 작년에 이 회의에서 건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각 지점에 교량 등이 훼손된 것도 많고 금호강도 있어서 교량을 가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 편성 후에 가감(加減)할 수 없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가는 것입니까?

타니 고지로(谷幸次郎) 토목과장 : 대구-천안 간 1등 도로는 대구 남쪽으로는 연장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계상된 개수비는 전년도 이래로 왜관-김천 간 도로 개수에 착수해 현재 절반 정도 준공한 것에서 이어서 나머지 금오산-김천 구간을 1923년에 개수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으로 경상에서 하양에 이르는 3등 도로는 올해 경비 안에서 3등 도로 재해복구비로 가능한 복구할 생각입니다.

신명환 의원 : 올해 토목파출소 여비를 조금 증액 안배해서 지방민이 자발적으로 개수하려는 도로의 측량비에 충당했으면 합니다.

타니 고지로 토목과장 : 등급외 도로의 측량은 1923년부터는 파출소에 맡기지 않고 본 토목과에서 측량하기로 했습니다.

권병선(權丙宣)⁵⁸⁾ 의원 : 겨우 10일간의 회기로 지금처럼 본인 지역의 희망 사항만을 말하고 예산 편성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으므로 예산 관항(款項) 순서에 따라 신속히 의사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이로부터 이토 기치자부로(伊藤吉三郎) 의원의 동의로 당일은 이것으로 폐회하기로 하고 오후 4시 15분에 폐회했다. (이하 다음 권)

58) 원자료에는 ‘권 의원’이라고만 적혀 있다. 조선총독부관보의 경상북도 도평의회원 임명 기록과 경상북도 산업자문회원 명단 등에 기초해 ‘권병선’임을 확인해 옮겼다.

독행자 및 우량 부락(하)

고령군 쌍동면(雙洞面) 매촌동(梅村洞)

김의수 (金義秀)

1892년 2월 29일생

김의수씨는 성품이 온화하고 침착하며 젊은 시절부터 많은 이들의 기대를 받았다. 일찍이 농사에 대한 연구심이 깊었고, 관의 지도와 장려에도 적극적으로 응했다. 벼의 우량 품종이 보급되자 누구보다 먼저 면 공동 채종답(採種畓)을 맡아 경영하며 볍씨 교환을 주선하여 재배를 장려하였다. 그 결과 그를 본받는 이들이 속출하였고 점차 그 영향이 확산되었다.

1920년 벼 우량 품종의 5개년 갱신 계획이 시행되자 그는 진취적으로 면 공동 채종답을 맡아 경영하며 늘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단책형(短冊形)⁵⁹⁾ 묘대(苗代)를 실행하여 농회 주최의 묘대(苗代) 품평회에서 표창을 받았다. 그는 자기 소유의 전답에 녹비용 대두를 재배하여 비료 충실화와 다수확을 도모한 결과, 1920년 농회 주최의 다수확 쌀 품평회에서 수상하기도 했다. 또한 그는 대두의 선별, 밀의 교환 재배, 육지면의 재배 보급, 가마니 제작 등을 설득하여 자발적으로 지도자의 역할을 맡았다. 결국 부락의 공동 목표였던 농사 개량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농사개량조합 조직에 매진하였고 1921년 12월 19일에는 매촌동 농사개량조합을 설립하였다. 그는 산업계몽과 농촌 진흥에 노력하고 있으며 그 공로는 결코 적지 않다.

59) '단책(短冊)'은 길고 폭이 좁은 직사각형 모양을 뜻하는 말로, 원래는 짧은 두루마리나 세로로 긴 종이를 가리킨다.

문경군 문경면 마원리(馬院里)

박동순 (朴東琣)

1875년 6월 8일생

박동순씨는 성품이 온순하고 일반으로부터 신망이 두터웠다. 어린 시절부터 한학을 공부하였으며 성장한 뒤에는 농사에 힘쓰고 구장(區長)이 되어 각종 산업을 개량하였다. 그리고 부락민을 독려하여 단책형 모대를 설치하고, 대두 선별과 볍씨 교환, 녹비용 대두 재배를 앞장서서 실천하였으며 어려움 속에서도 스스로 모범을 보였다. 또한 기술원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고 이를 실행하여 이 방면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그 공적이 현저하였다. 그는 지역에서도 보기 드문 봉사정신의 소유자였다.

예천군 호명면(虎鳴面) 월포동(月浦洞)

김병목 (金柄穆)

1879년 4월 11일생

김병목씨는 성품이 정직하고 소박하였다. 그는 부업으로 소 매매업을 하였는데 우연히 경성으로 여행하는 도중 충청남도 공주 부근의 사방(砂防) 공사 상황을 보고 크게 감명받았다. 자신이 소유한 산림 가운데 민둥산이 있는 것에 개탄하고 농한기를 활용하여 1,270평 규모의 사방 공사에 착수하였다. 여기에 천연 소나무 묘목을 식재했는데, 일부는 유실되거나 고사했으나 약 80% 이상의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 결과 크게 용기 내어 이듬해 복구 공사를 실시하였는데 거의 완전한 상태에 가까운 정도에 이르렀다. 이는 경상북도의 사방 공사에서 선구적인 사례였으며, 또

한 자신이 확신하는 바가 있어 수행한 본 사업은 이 방면의 장려는 물론, 애림사상의 보급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이는 모범으로 삼을 만한 실천 사례라 할 수 있다.

봉화군 법전면(法田面) 척곡리(尺谷里)

강상원 (姜爽元)

1894년 6월 20일생

춘양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한 젊은 강상원씨는 성품이 온순, 성실, 독실, 공손, 검소, 소박한 인품으로 농업에 열심히 종사하였다. 또한 이웃 자제(子弟)를 선도하여 1915년 이래로 수답(水畓) 개량종 재배를 하며 소작인들에게 이와 같은 경작을 독려하였다. 오늘날에는 산간 지역을 제외하고 널리 보급된 상황이다. 더욱이 1920년의 수답 우량 품종 5개년 갱신 계획이 시행되었을 때 나서서 면 공동 채종답(採種畓) 담당자가 되기를 청원하였고 그 이후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3개년에 걸쳐 담당하여 항상 당국의 지도와 장려에 호응하였다. 군 농회로부터 밀 우량 품종의 무상 배부를 받아 3단보에 재배하였고 그 생산물은 인근 소작인들과 교환하며 재배를 장려하고 있다. 강상원씨는 50여 정보의 산림을 소유하고 있으며 생지(生枝) 벌채를 경계하고 관리와 손질에도 유의하여 오늘날에는 울창한 숲을 조성해 타인의 모범이 되고 있다. 또한 양잠에 있어서는 잠실(蠶室), 잠구(蠶具)의 설비를 정비하여 한 번도 사육에 실패한 적이 없다. 축산에 있어서는 씨수소(種牡牛)를 관리하여 우량 송아지의 번식을 염두에 두었으며 소작인에게는 온정으로 대하여 결코 의견 차이로 반목한 일이 없다. 그는 항상 농사 개량에 힘쓰며 동시에 농촌 문화의 발달을

도모하였다. 실로 농촌에서 보기 드문 모범 청년이며 추천하기에 충분하다.

달성군 성면(城面) 상리동(上里洞)

상리동은 대체 작물의 개량과 증식으로 저명하다. 그 기원은 1905년 상리동의 강용수(姜龍秀)가 경상남도 창녕군으로 여행하던 중 고구마 재배에 대해 듣고, 씨고구마 5관을 구입하고 돌아온 데서 시작되었다. 이와 전후하여 손병열(孫炳悅)은 합천군(陝川郡)에 있는 친척을 방문하던 중 고구마 재배 상황을 목격하고 씨고구마 5~6관을 가져와 재배하였는데 두 사람 모두 좋은 결과를 얻었다. 이후로 농업인들이 앞다투어 이를 재배하였고 현재는 농가 수 93호 중 80호가 재배하고 있으며 그 면적은 18정보(町步)로 논 면적의 60%를 넘는다. 그리고 연간 생산량 32,400관의 수확을 거두는 성황을 이루고 있다. 그에 따라 해마다 재배 기술도 현저히 향상되었고 저장법 역시 매우 정교한 수준에 이르러 생산량은 더욱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만 이들은 모두 재래종(在來種)으로 이에 대한 개선을 기해야 했다. 군 농회에서 우량 품종을 배부하고 개량종 보급을 집중적으로 권장하였는데, 주민들은 충실히 그 지도를 따름으로써 이제는 거의 품종 갱신의 목적을 달성하였다. 이는 전적으로 마을 주민 전체가 일치단결한 결과이며 그 공적은 농가 경제의 증진을 이끌었고 납세(納稅) 등에서도 가장 좋은 실적을 올리고 있다고 한다. 이는 선정하여 표창할 만하다.

영양군 청기면(靑杞面) 청기동

영양군은 경상북도의 최북부 산간지방에 위치해 있으며 사방

이 거의 막혀 교통이 불편하여 항상 시대의 변화와 문화의 진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은 바에 따르면 흐뭇하게 하는 훌륭한 일을 많이 하여 칭찬하지 않을 수 없는 마을이 있다. 바로 청기동에 속하는 32호가 거주하는 농촌이다. 이 마을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논, 들, 산에서 각자의 가업에 힘쓰며 게으른 자가 없고 인근 마을과 가까운 면 단위에서도 모범이 되어 그 감화가 점점 널리 퍼지고 있다. 만약 흉년이나 화재 등에 직면하더라도 서로 돕고 때로는 금전이나 물품을 내어 위로하고 격려하므로 재난을 당한 사람은 오히려 그 따뜻한 대우에 감격해 분발하고 다시 일어서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한 근검절약과 저축의 미풍을 함양하고자 마을 사람들은 매일 밥을 지을 때마다 약간의 쌀을 별도의 그릇에 보관하였다. 그리고 매월 15일과 30일 두 차례 모아서 각 호당 1되씩을 내어 관리인에게 일임하여 보관하고 이익을 불리게 하였다. 이 일은 1921년 4월 1일에 시작되었으며 현재는 이미 50원의 환산금을 얻는 데 이르렀다고 한다. 일찍이 마을 주민들은 일치단결하여 농사 개량 및 장려에 있어 기술원의 지도를 준수하고 다른 마을보다 솔선수범하여 실행하였다. 특히 아침저녁의 휴식 시간을 활용해 새끼줄과 멍석을 제작하여 각 호당 10장씩을 보유하고 조제 작업의 완비를 이루는 것 외에도 현저히 산업을 개선하였다. 1915년 벼 다수확 품평회에서 수상자 2명, 같은 1917년에는 모범 소작인 우등수상자 1명, 1919년에는 보리 종자 이삭 선발 경기회에서 우등수상자 5명, 1920년에는 대두 알곡⁶⁰⁾ 선발 경기회 수상자 2명, 보리 종자 이삭 선발 경기회 우등수상자 1명, 벼 이삭 선발 경기회 수상자 1명, 봄 누에고치 품평회 수상자 1명, 우량 소 사육

60) 껍질을 벗기지 않은 상태의 곡식 낱알.

수상자 2명, 모범 농가 표창자 2명, 1921년 보리 이삭 선발 경
회 수상자 11명, 3회 연합 축산 품평회 수상자 1명 등, 다른
마을에 비해 발군의 성적을 거두었다. 이러한 성과는 결국 마을
사람들이 자기 일에 성실하고, 자치심(自治心)이 풍부한 결과이며
충분히 표창할 만하다.

회보

1923년도 세입출 예산

경상북도 제3회 도평회의에서 자문한 결과, 만장일치로 가결 확정된 1923년도 경상북도 지방비 세입출 예산액은 다음과 같다.

▲ 세입 경상부(經常部)

제1관(款) 지방비	제2관 임시하사금 수입	제3관 잡수입	세입 경상부 합계
1,431,779원	107,395원	148,851원	1,688,025원

▲ 세입 임시부

제1관 이월금	제2관 국고보조금	제3관 기부금	제4관 잡수입	세입 임시부 합계	세입 총계
213,568원	102,133원	6,500원	60원	322,261원	2,010,286원

△ 세출 경상부

제1관 토목비	제2관 권업비	제3관 수산(授産)비	제4관 교육비	제5관 위생비	제6관 사회구제비	제7관 평의회비
151,011원	338,014원	111,812원	125,045원	59,344원	50,191원	8,225원

제8관 지방비 취급비	제9관 잡지출	제10관 예비비	세출 경상부 합계
70,841원	1,818원	33,922원	950,224원

△ 세출 임시부

제1관 토목비	제2관 권업비	제3관 교육비	제4관 위생비	제5관 보조비	제6관 임시하사금 반환	제7관 잡지출
185,163원	44,164원	205,980원	1,800원	614,773원	7,731원	451원

세출임시부 합계	세출 합계
1,060,062원	2,010,286원

경북 종이와 일본

경상북도 관내 제지업은 최근 현저하게 개량, 발전을 거두고 있다. 생산액은 현재 수만 괴(1괴는 2,000매)라는 큰 수치에 이르게 되었다. 경상북도는 제지업자를 대상으로 내년도부터 13년간 계속사업으로 닥나무 증식 계획을 세우는 등 장래 경상북도 제지는 아마도 놀랄만한 큰 액수에 도달하리라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제지 판로도 보다 확장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본에서 한지가 의외로 각 방면에서 애용되고 있기에 제지업자의 앞날에 굉장히 주목하고 있다. 최근 경상북도 당국은 관내 경산군 용성면 송림동에서 뜬 개량 한지 세 종류를 시즈오카현(静岡縣) 다업(茶業) 조합회에 보내 화로에 붙이는 종이 용도로 어떨지 시험을 부탁했다. 종래 조합에서는 선화지(仙貨紙)⁶¹⁾를 사용해 왔는데 위에서 말한 한지는 거의 유례가 없을 정도로 우량한 성적을 거두었다며 조합사무소가 경상북도로 우량 증명서를 보내왔다. 가격 면에서는 협정이 이루어진다면 시즈오카 지방에서는 화로용으로

61) 에히메현(愛媛縣)에서 나는 일본 전통 종이로, 두껍고 상당히 질긴 것이 특징이다.

1년에 1,200만매(6천괴)를 소비하고 있으므로 이 방면으로 다수의 반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한다.

청송 도기조합 설치

청송군 부동면(府東面)에서 생산되는 고령토(도기 원료)는 품질이 매우 우수해서 전문가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렇게 좋은 원료는 일본을 통틀어서도 드물다고 한다. 그래서 청송군내 도기업자의 제조법을 보자니 여전히 재래의 제조법을 굳게 지키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극히 졸렬함을 면치 못해 생산품의 질이 굉장히 불량하다. 시세의 진운과 더불어 일반 민중의 생활 정도가 향상됨에 따라 도기도 자연스레 품질이 좋은 것을 찾게 된 것은 이해하기 쉽다. 이참에 도기업자는 제조법을 개선하여 가급적 우량품 생산에 힘쓰지 않으면 장래, 일반 수요자의 요구에 응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제조법 개선을 기함과 동시에 생산 증식을 도모하기 위해 이번에 도기개량조합을 설치하고 사무소를 군청 안에 두었다. 향후 오로지 도기 제조법 개량, 도기 판로 확장, 사업자금 융통, 알선 기타 노력할 것이라고 한다.

의성 이외 4개 군의 산물 품평회

의성군에서는 군위, 안동, 청송 및 영양 4개 군과 연합하여 올해 가을에 중요 물산품평회를 개최할 계획을 세웠다. 이미 관련 회의를 열었는데 개최 기간은 1923년 11월 5일부터 11일까지 7일간이며, 개최지로는 의성면이다. 출품은 다음 8부분으로 나누

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제1부(농산품) 섬벼, 벳섬 보리류, 콩류, 잡곡, 왕골, 녹비, 삼
(大麻), 목화, 목화 종자, 제지 원료

제2부(원예품) 과실류, 소채류

제3부(잠업품) 누에고치, 생사, 무명(直綿), 잠업기구

제4부(축산품) 소, 돼지, 닭, 계란, 우피, 밀랍, 건초

제5부(임산품) 묘목, 종자, 목탄, 목재, 임산부산물

제6부(공산품) 직물, 종이 및 제지품, 금속 제품, 목죽 제품, 문
구류, 편물, 자수, 조화, 도자기, 기와, 비료 및
농기구, 가마니, 왕골 제품, 짚신, 피혁 제품, 지
방유, 기타 공산 잡품

제7부(참고품) 산업상 참고가 될 만한 것

또한 박람회개 개최될 때는 통계전람회, 교육품 전람회 등도
동시에 열릴 계획으로, 현재 고안 중이며 이를 참조하는 협찬회
도 마련되었다.

제지 강습회 종료

경상북도는 1922년도에 영덕, 영일, 경주, 경산, 청도, 김천 6
개 군에서 제지 강습회를 개최하여 2월 28일에 모두 종료하였다.
강습생에 대해서는 강연 및 실지 지도 등을 하였고 매우 효과가
있었다. 강습이 열린 곳은 14곳이며 강습인원은 합계 140명, 참
관한 제지업자는 850명에 달했다고 한다.

봉화군 사치에서 근검으로

봉화군 내성면에서는 면민의 기분을 개선할 방책으로 다음과 같은 지방 개량 선전 노래를 인쇄하여 각 구장(區長) 및 유력자를 중심으로 근검 사상 고취에 힘쓰고 있다. 과연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지는 당장은 눈으로 확인하기 어렵지만 어느 정도는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헤아리고 있다.(봉화군)

- 一. 우리 지방의 유지와 인사들이 한마음으로 분발하여
부화(浮華)⁶²⁾하며 노는 풍습을 타파하고, 장래 생각 깊이 해서
행복이 찾아오는 만리 앞길, 지체말고 용진하세.
만고의 영웅 달사, 촌음시경(寸陰是競)⁶³⁾이 아닌가.
- 二. 미풍양속 존중하여, 법률 위반 하지 말고
자작자급 본위 삼아, 지방 개량하여 보세.
인생 의무 사업 두고, 어찌 감히 생심(生心)하여 사치하라.
자납(自納)하여 면해 보세. 공급 납부 독촉장을.
- 三. 생존 경쟁의 날에, 세계 문화 눈 앞이요.
우리 지식 경제 심은, 과학 산업이 아닌가.
시간 실행 굳게 하여, 남보다가 앞서서
열심히 노동하세. 부지런이 보화라네.
- 四. 천원 저축 못할진데, 일전이라도 술과 담배에 낭비하지 말고
염색 의복 경제하여, 티끌모아 태산 모아보세.
가급인족(家給人足)⁶⁴⁾하고 보면, 국민은 풍족하고 나라는
강하니 좋을시고
개량하세. 개량하세. 발달하지 못한 우리 지방

62) 실속 없이 걸만 화려한 것을 일컫는다.

63) 조그만 구슬보다 잠깐의 시간이 더 귀중하니 시간을 아껴야 한다는 의미이다.

64) 집집마다 먹고 사는 데에 부족함이 없이 풍족함을 일컫는다.

서임사령

○1923년 1월 15일

조선총독부 도 자혜의원 서기 從(종)⁶⁵ 7위 훈8등 가미무라 고타(上村孝太)

조선총독부 도 자혜의원 사무관에 임명

고등관 7등에 서임

경상북도 근무를 명함

대구 자혜의원 근무를 명함

조선총독부 도 기사 고지마 간이치(小島完一)

8급 봉급을 하사함

문관 분한령(分限令)⁶⁶ 제1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휴직을 명함

○1923년 1월 16일

조선총독부 도 자혜의원 사무관 가미무라 고타(上村孝太)

청원에 따라 본관에서 면직

○1923년 1월 17일

사타니 미노루(佐谷穰)

고용원으로 임명

월급 50원을 지급함

종묘장 근무를 명함

65) 조선시대에서는 관리의 품계 앞에 正(바를 정)과 從(좃을 종)을 붙여서 위아래를 나눴다. 같은 1품일 경우 정1품이 종1품보다 높다.

66) 공무원의 신분제에 관한 기본적인 법규.

○1923년 1월 20일

조선총독부 도 자혜의원 의원 시가 고사쿠(志賀幸作)
4급 봉급을 지급함
청원에 따라 본관에서 면직

○1923년 1월 22일

조선총독부 군속(郡屬) 훈7등 구리모토 다마지로(栗本玉次郎)
조선총독부 도속(道屬)으로 임명
6급 봉급을 지급함
내무부 권업과 근무를 명함

조선총독부 도속 시로시타 마타지로(城下亦治郎)
조선총독부 군속으로 임명
월봉 70원을 지급함
고령군 근무를 명함

조선총독부 도속 야마가타 사부로(山縣三郎)
경산군 근무를 명함

훈 7등 후지키 마타키치(藤木又吉)
경상북도 토목과 서기로 임명
9급 봉급을 지급함 (단, 가봉 25원)
내무부 토목과 근무를 명함
조선총독부 군 기술사 후지사(후지사와 시게지(藤澤繁司))
청원에 따라 본관에서 면직

경상북도 산업 기술사 후지사와 시게지(藤澤繁司)
청원에 따라 본관에서 면직

전 조선총독부 군 기술사 후지사와 시게지(藤澤繁司)
금 1원
위의 금액을 1년 이상 재관(在官)에 급여

전 경상북도 산업 기술사 후지사와 시게지(藤澤繁司)
금 32원 50전
위의 금액을 1년 이상 재관(在官)에 급여 오카다 겐조(岡田健藏)
감포 및 구룡포항 방파제 축조공사 사무를 위탁함

○1923년 1월 23일 나가타 기타로(永田儀太郎)

경상북도 산업서기로 임명
9급 봉급을 지급함
내무부 권업과 근무를 명함

○1923년 1월 24일

조선총독부 군속(황해도) 신집(申執)
조선총독부 군속으로 임명
9급 봉급을 지급함
영천군 근무를 명함

○1923년 1월 25일

종6위 훈6등 김한은(金翰殷)
정6위로 서임

정6위 훈6등 김한은(金翰殷)
특지(特旨)⁶⁷⁾에 의해 직위 1급 진급

노선주(魯璇柱)
조선총독부 도속(島屬)으로 임명
9급 봉급을 지급함
울릉도 근무를 명함

○1923년 1월 31일

아라키 다케시(荒木猛)
경상북도 산업 기술사로 임명
7급 봉급을 지급함 (단, 가봉 35원 지급)
내무부 농무과 근무를 명함
박명득(朴命得)
도로 감시원으로 임명
11급 봉급을 지급
내무부 토목과 안동파출소 근무를 명함
경상북도 토목 기술사 니시노 쓰네키치(西野常吉)
10급 봉급을 지급
도로 감시원 니시노 쓰네키치(西野常吉)

67) 임금의 특별한 명령.

본직을 면함

후쿠하라 다이스케(福原泰助)

고용원으로 임명함

월급 55원을 지급함

내무부 토목과 근무를 명함

가바사와 간주로(樺澤勘重郎)

고용원으로 임명함

월급 52원을 지급함

내무부 권업과 근무를 명함

도로 감시원 이경화(李暲和)

내무부 토목과 안동파출장소 근무를 명함

도로 감시원 최백수(崔伯壽)

내무부 토목과 포항파출소 근무를 명함

개별 통지 고용원 노나카 신이치(野中辰一)

고용원 나카오 규타로(中尾久太郎)

고용원 다케우치 기치고로(武内吉五郎)

내무부 토목과 상주파출장소 근무를 명함

○1923년 2월 6일

조선총독부 군속 미후지 후미오(三藤史男)

9급 봉급을 지급함

개별 통지 고용원 야마구치 마에토쿠(山口前徳)

고용원 메하라 히로스케(目原碩介)

청원에 따라 고용직을 면함

○1923년 2월 7일

조선총독부 군속 기요하라 야스(清原泰)
6급 봉급을 지급함
경상북도 산업기수 와타나베 가즈오(渡邊數尾)
청원에 따라 본직을 면함
전 경상북도 산업기수 와타나베 가즈오(渡邊數尾)
금 22원 50전
위의 금액을 1년 이상 재직한 것에 따라 지급함

○1923년 2월 9일

가쓰야 요시카즈(勝谷義一)
경상북도 산업기수에 임명함
7급 봉급을 지급함
내무부 권업과 근무를 명함

○1923년 2월 10일

이마무라 신노스케(今村新之助)
조선총독부 도 자혜의원 의원(醫員)에 임명함
6급 봉급을 지급함
대구자혜병원 재근을 명함
이홍규(李洪珪)
고용원에 임명함
월급 38원을 지급함
내무부 권업과 근무를 명함

○1923년 2월 12일

기타데 요시오(北出善雄)

경상북도 산업기수에 임명함

8급 봉급을 지급함

칠곡군 재근을 명함

개별 통지 조선총독부 군속 기도 마코조(城戶孫藏)

경상북도 산업기수 기도 마코조(城月孫藏)

경주군 재근을 명함

경상북도 산업기수 오가와 가즈오(小河一男)

군위군 재근을 명함

개별 통지 조선총독부 군기수 이토 스케오(伊藤祐雄)

경상북도 산업기수 이토 스케오(伊藤祐雄)⁶⁸⁾

영천군 재근을 명함

개별 통지 조선총독부 도기사 도가시 쓰네(富樫恒)

경상북도 산업기사 도가시 쓰네(富樫恒)

경상북도 산업기수 가쓰야 요시카즈(勝谷義一)

경상북도 산업서기 나가타 기타로(永田儀太郎)

고용원 다이야 마사노조(鯛谷勝之丞)

수산시험장 근무를 명함

○1923년 2월 14일

조선총독부 도자혜의원 의원 고가와 와타루(古川渉)

4급 봉급 지급

청원에 따라 본관을 면직함

68) 원문에는 ‘伊論’으로 쓰여 있으며 오기로 보인다.

전 조선총독부 도 자혜의원 의원 고카와 와타루(古川渉)

금 100원

위의 금액을 2년 이상 재직한 것에 따라 지급함

○1923년 2월 15일

고우치야마 겐유(河内山賢祐)

경상북도 산업기수에 임명

10급 봉급 지급

선산군 재근을 명함

경상북도 토목기수 다키가와 도쿠타로(瀧川徳太郎)

청원에 따라 본직을 면함

○1923년 2월 16일

오쿠보 아리유키(大久保有行)

조선총독부 도 자혜의원 의원에 임명됨

6급 봉급 지급

대구자혜의원 재근을 명함

안도 순타로(安東順太郎)

조선공립실업학교 서기로 임명

10급 봉급 지급

대구공립상업학교 서기로 보직

○1923년 2월 18일

나카가와 스스무(中川進)

고용원으로 임명

월급 80원 지급
수산시험장 근무를 명함

○1923년 2월 20일

훈7등 가마쿠라 사다이(鎌倉貞猪)
경상북도 산업서기로 임명
9급 봉급 지급(단, 가봉 25원)
내무부 농무과 근무를 명함

○1923년 2월 20일

가지노 도미미치(鍛治野富道)
고용원으로 임명
월급 52원 지급
내무부 회계과 근무를 명함
전 조선총독부 군속 이병열(李丙烈)
금 47원
위의 금액을 2년 이상 재직한 것에 따라 지급함

○1923년 2월 21일

조선총독부 도기수 사쿠라이 이쿠오(櫻井生男)
충청남도로 출장 명함
전 조선총독부 군속 스즈키 에이고로(鈴木永五郎)
금 132원
위의 금액을 4년 이상 재직한 것에 따라 지급함

○관리 휴직 만기 휴직 조선총독부 군속 이병열(李丙烈)은 1923년 2월 12일에 휴직 만기이다.

○관리 사망 조선총독부 군속 미후지 후미오(三藤史男)는 1923년 2월 6일, 조선총독부 군속 기요하라 야스(清原泰)는 같은 달 7일 사망함

산업 계획 요강(승전)

제2 임업에 관한 건

一. 애림 사상 보급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두어야 할 시설에 관한 건

실업 교육 시설에 관한 건 및 산업 지식 보급 향상에 관한 건에서 논하기로 함.

二. 묘목 생산 증가 및 그 공급 방법 개선에 관한 건

- ① 양묘(養苗) 조합을 두어 공동으로 사업을 행하게 할 것
- ② 종자 채취를 장려할 것
- ③ 생산 묘목 및 채취 종자 판로를 알선할 것
- ④ 묘포 지도를 주도면밀히 할 것
- ⑤ 임업 기본조사를 행해 조림 상 필요한 묘목을 군내에서 생산하게 할 것
- ⑥ 양묘사업에 대해 상응하는 보조를 할 것

三. 면(面) 기본재산림(林) 증설 및 조성에 관한 건

- ① 면 묘포를 설치하여 지도를 주도면밀히 하고 제초 및 관리는 해당 지역의 주민으로 하여금 구역을 정해 분담하여 시행할 것
- ② 면 묘포 성적을 좋게 하기 위한 품평회를 개최할 것
- ③ 제1종의 불필요한 임야의 미처분 땅은 가능한 한 면이 경영하도록 할 것
- ④ 부락의 숲은 가능한 한 면에 통일시킬 것
- ⑤ 면 묘포 또는 식재에 대해 상응하는 보조를 할 것

四. 조림 속성(速成)에 관한 건

- ① 삼림조합을 설치하게 할 것
- ② 사방(砂防) 시행지 기타 조림이 필요한 임야에 대해 소유자가 조림 권유에 응하지 않을 때는 삼림령(令)에 따라 조림 명령을 할 것
- ③ 국유임야 대부지의 조림 속성을 도모하고 사업이 진보하지 못한 곳은 반환하게 하고 가능한 한 면이 경영하게 할 것
- ④ 조림 기본조사에 근거하여 연차계획을 정할 것
- ⑤ 조림 촉진과 더불어 어린나무 보육에 힘껏 노력할 것

五. 수원(水原) 함양 조림에 관한 건

- ① 본 조림 방침 계획 등은 총독부의 계획에 따라 실행할 것
- ② 본 조림 지역 내에 있는 조림용 묘목에 대해서는 총독부의 조림 계획에 순응하여 지방비로 보조할 것
- ③ 사방 조림지에 대해서는 조림 명령 및 보안림 편입 등의 방법으로 조림 목적의 달성을 기할 것

六. 지방비 기본 재산림 경영에 관한 건

- ① 현재 지방비 규범림 외에 큰 면적의 국유림의 대하(貸下)⁶⁹⁾, 양여 혹은 불하를 받는 기본재산 조성의 목적을 가지고 조림계획을 행할 것
- ② 앞항의 조림에 필요한 묘목은 지방비 묘포 확장에 따라 이를 양성 공급할 것

七. 특수 목죽(木竹) 증식 장려에 관한 건

- ① 천연의 어린 특수 목죽 나무를 존치하도록 할 것
- ② 특수 목죽 묘목을 지방비 묘포에서 생산하도록 할 것
- ③ 특수 목죽 가운데 경상북도에 적합한 종류에 대해 시험적으로 식재 또는 재배하기 위한 보조를 할 것
- ④ 국유임야 임차인으로 자금력이 있는 자에 대해 특수 목죽 벌채를 금하거나 식재를 권유 장려할 것

八. 활엽수 증식 장려에 관한 건

- ① 녹비를 채취할 때 활엽수 싹은 한 그루에 세 개 이상 남겨놓게 할 것
- ② 삼림보호조합을 두어 협력해서 활엽수 싹을 남겨놓게 할 것
- ③ 활엽수를 채벌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표창을 행할 것
- ④ 장래 땀감을 위해 활엽수 생산이 필요한 도회지 부근 지방에 대해서 힘을 쏟고 장려할 것. 가능한 한 지방비로 묘포에서 생산하는 묘목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일반 생산자로부터 구입하는 자에 대해서는 차액을 보조할 것

69) 국가 기관이 돈을 대어 주는 것을 일컫는다.

- ⑤ 사유림 채벌 단속 규칙에 의거하여 벌채 단속을 할 것

九. 사유임야의 시업(施業) 방법에 관한 건

- ① 각 부락의 합의에 따라 활엽수 싹을 남벌하거나 과도한 나뭇가지 채취에 대해 서로 경계하고 반칙자로부터 위약금을 징수할 것. 소유자 각자의 심사에 근거하여 우량자를 표창할 것
- ② 보안림의 편입 또는 임업 경영 방법을 지정할 것
- ③ 사유임야 벌채 단속 규칙을 장려해서 행하고 나뭇가지 채취 허가를 막을 것. 간벌(間伐)⁷⁰⁾ 또는 일부 완전 벌채를 행하도록 할 것
- ④ 과도하게 나뭇가지를 채취한 결과, 나무가 자라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점차 벌채하여 갱신하게 할 것
- ⑤ 삼림경찰기관의 설치를 요구할 것
- ⑥ 연료대용품에 관한 연구를 행할 것

十. 삼림부산물 증식 장려 및 개선에 관한 건

- ① 숲을 만드는 방법을 개선하여 품질을 향상시키고 생산액 증가를 도모하며 자루에 넣는 방법을 통일할 것
- ② 약초목 조사를 하여 채취를 장려하고 보호 방법을 강구할 것
- ③ 나무껍질 채취 방법 개선
- ④ 식용, 기름용, 파종용 등을 위한 나무 열매 채취 장려 및 번식을 도모할 것
- ⑤ 표고버섯 재배 지도

70) 나무가 잘 자라도록 하기 위해 뾰뾰하게 자라 있는 나무를 솎아내는 것을 일컫는다.

- ⑥ 녹말 채취 장려 및 보호 단속
- ⑦ 오배자(五倍子) 보호 번식을 도모할 것

十一. 삼림보호 단속에 관한 건

- ① 송충이 구제, 예방 규칙에 힘쓰고 예방을 위해 활엽수 장려를 도모할 것
- ② 삼림조합을 두어 공동으로 방화선 설치, 화재 단속, 해충 구제를 하게 할 것
- ③ 나무뿌리 및 풀뿌리 채굴 단속
- ④ 기타 제6항 제7항의 사항에 힘쓸 것

十二. 화전 정리에 관한 건

- ① 35도 이상 경사지에 대해서는 화전을 개설하지 않도록 할 것
- ② 국유임야에 대해서는 새로이 화전을 개설하지 않도록 할 것
- ③ 화전민을 이주하도록 할 것
- ④ 국유지 가운데 적당한 곳을 골라 미개지 이용법에 의거하여 대부할 것
- ⑤ 화전민 이주에 필요할 때는 상응하는 보조를 할 것

3. 수산에 관한 건

一. 어획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채택해야 할 시설에 관한 건

- ① 어장 황폐를 방지할 것
 - 가) ‘다이너마이트’ 어업을 줄이기 위해 힘쓸 것
 - 나) 어업 단속 규칙을 힘써 지킬 것
 - 다) 어부림(漁附林)⁷¹⁾ 설치 보호에 힘쓰고 필요한 곳은 보안

림에 편입시킬 것

라) 현재 면허 어업 경영 상태를 조사하고 불량한 점에 대해서는 개선 방법을 강구할 것

마) 각종 어업에 대한 제한사항을 조사하여 필요시에는 추가하고 필요 없을 시에는 철폐 수속을 할 것

- ② 새로운 어장 발견에 힘쓸 것
- ③ 근해 어장 개척을 기할 것
- ④ 어황(漁況) 통신을 도모할 것

二. 어선, 어구 개량 증가에 관한 건

- ① 경상북도 연안의 어업 종류, 바다 상황 및 어업자의 자금력에 맞는 어구 조사 연구를 할 것
- ② 보조기관에 대해서 돛 건조(建造)를 장려할 것
- ③ 조선(造船) 및 제망(製網) 사업 발달을 도모할 것

三. 어패, 해초류 양식에 관한 건

- ① 관개용 인공 연못, 못과 늪, 바닷물이 흘러들어오는 강 등 적당한 곳을 조사하여 대략적으로 잉어, 송어 기타 어패류 양식을 도모하고 수면(水面) 이용에 힘쓸 것
- ② 얕은 바다 중 적합한 곳을 조사하여 적당한 종류의 어패류 및 해초류 양식을 도모할 것
- ③ 우뭇가사리, 풀가사리, 미역 등 유용한 해초류에 적합한 곳을 조사하여 식재 및 번식 보호 방법을 강구하여 경작지와 접한 곳의 수면에서 얻는 어업의 이익을 영속시키도록 기할 것

71) 어류 생식과 생육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삼림을 일컫는다.

- ④ 각 하천에 적합한 어패류 번식을 도모하여 생산 증가에 힘 쓸 것

四. 어업 이익 증진에 관한 건

- ① 선어(鮮魚) 보존 운반에 관한 방법 및 설비 개선을 도모할 것
- ② 중요한 어업지에 저빙고 설비를 장려할 것
- ③ 어업용 소금 배급을 원활히 하는 방법을 강구할 것
- ④ 선어 판매 및 운반을 목적으로 하는 어업조합 공동 시설을 장려할 것
- ⑤ 어획물 판매 조직 개선을 도모하여 어업자 이익을 보호, 증진시킬 것
- ⑥ 중요 제조품 개량 및 증진을 기할 것
 - 가) 제조 방법 및 설비 개선을 도모할 것
 - 나) 제조 및 거래와 관련된 공동설비를 장려할 것
 - 다) 제품에 대한 산지 검사를 행할 것

五. 어항(漁港)⁷²⁾ 수축(修築)⁷³⁾과 관련된 시설 건

- ① 주요 어항을 수축할 것
- ② 주요 어항에는 어획물 처리, 운반, 기타 어업 근거지로서 필요한 설비를 하도록 할 것
- ③ 연안 어업 개발을 위해 각지에 산재하는 천연 지형을 이용하여 간이 설비를 하고 소규모 피난 장소를 수축할 것
- ④ 이상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경상북도의 모든 만(灣)에 대한 기본 조사를 할 것

72) 배가 정박하여 고기잡이를 할 수 있는 항구를 일컫는다.

73) 건축물 등을 고쳐 짓거나 쌓는 것을 의미한다.

六. 어민 보호 및 수산 단체 개선 발달에 관한 건

- ① 어업 조합 보급, 개선을 도모할 것
- ② 어업조합을 조직하고 그렇지 못한 지방에는 어촌개량회를 두도록 하여 어촌 개선과 관련된 제반 시설을 하도록 할 것
- ③ 어업 자금의 저리(低利) 융통을 도모할 것
- ④ 수산업자의 부업을 장려할 것
- ⑤ 부녀자에게 적당한 훈련을 시켜 그 노동력을 수산 제조 및 부업 등에 이용할 것
- ⑥ 어업자의 낭비를 방지하고 저금 사상을 함양할 방법을 강구할 것
- ⑦ 주요 어촌에 있는 공립소학교 또는 공립보통학교에 수산보습과 등의 설치를 장려하여 수산에 관한 지식 향상 보급에 힘쓸 것
- ⑧ 수산시험장에 수산강습소 또는 연구생 등의 제도를 부설하여 간단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실제적인 교육을 할 것
- ⑨ 경상북도 수산회를 조직하여 활동을 촉진할 것
- ⑩ 적당한 시기에 수산품평회를 개최하여 수산 사업 발달을 촉진하고 수산 지식 향상을 도모할 것

七. 수산 시험 조사에 관한 건

- ① 수산시험장을 설치하여 다음과 같이 각 항의 시험 조사를 하도록 할 것
 - A 어업에 관한 시험 조사
 - 가. 연안 어업 개량 시험
 - 나. 앞바다 어업 시험

- 다. 기관 부설 어선에 의한 어업 조사
- 라. 미끼에 관한 시험 조사
- 마. 중요 어족 분포 및 회유(回游) 상황 조사
- 바. 해양 조사
- 사. 어장 조사 및 실지 탐색
- B. 어선, 어구에 관한 시험
 - 가. 어선에 관한 시험 조사
 - 나. 어구에 관한 시험
 - 다. 염료에 관한 시험
- C. 어획물 처리, 운반에 관한 시험 조사
 - 가. 선어의 신선도 보존에 관한 시험 조사
 - 나. 선어 운반 용기에 관한 시험 조사
 - 다. 배 안의 소금 저장 설치에 관한 시험 조사
 - 라. 운반선의 활어 싯는 창고에 관한 시험 조사
- D. 양식에 관한 시험 조사
 - 가. 수심이 얇은 바다를 이용한 양식에 관한 시험 조사
 - 나. 하천, 늪과 호수를 이용한 양식에 관한 시험 조사
 - 다. 주요 어패, 해조류 번식 보호에 관한 시험 조사
 - 라. 주요 해조 어류 축양(畜養)⁷⁴⁾에 관한 시험
 - 마. 낚시용 미끼 재료가 되는 생물 번식 및 축양에 관한 시험
- E. 제조에 관한 시험 조사
 - 가. 각종 수산물 이용 시험
 - 나. 어패류 통조림 및 기타 제조에 관한 시험
 - 다. 선어 저장에 관한 시험
 - 라. 부산물 및 해조 이용에 관한 시험

74) 출하하기 전에 어항 등에서 사육하는 것을 일컫는다.

마. 어육 조리예 관한 시험

4. 상공업에 관한 건

一. 상공업 발달 촉진에 관한 건

- ① 도내 생산 공업 원료 및 상품 수이입 조사를 하여 장래 성립할 수 있는 공업 및 성립이 필요한 공업 종류를 대략 정하고 이를 장려할 방법을 강구할 것
- ② 공업 시험 기관을 설치해서 시험 성적을 발표하여 공업 진전에 이바지할 것
- ③ 도내 동력 공급을 풍족히 하여 사업 촉진을 도모할 것
- ④ 통신 기관 배치를 편리하게 해서 전신, 전화 보급을 기하여 상업 거래의 편익을 도모할 것
- ⑤ 공업 제품 원료 공급, 제작 방법 개량, 판로 확장을 도모할 것

A. 제지에 관한 사항

- 가. 원료인 닥나무 껍질 증식을 도모할 것
- 나. 닥나무껍질 벗기는 기구, 삶는 솥, 건조기 보급을 도모할 것
- 다. 품질을 통일하여 명성의 유지, 향상을 도모할 것
- 라. 손으로 뜯 종이로서 강인한 힘을 지닌 경상북도 종이의 판로를 확장할 것

B. 방직업에 관한 사항

- 가. 원료인 삼의 증식을 도모할 것
- 나. 미싱 기계 및 고기(高機)⁷⁵⁾의 보급을 도모할 것
- 다. 개량 베틀 바디⁷⁶⁾ 및 정경(整經)⁷⁷⁾ 기구, 기타 부속기구

75) 비단에 당초무늬 등을 짜내는 베틀을 일컫는다.

76) 날실의 위치를 바르게 하고, 씨실을 넣는 데에 사용하는 것을 일컫는다.

77) 직물을 짜는 데 필요한 실을 갖추고 정돈하는 공정을 일컫는다.

- 사용을 장려할 것
- 라. 원료 제조, 매입 방법을 개량할 것
- 마. 제품 검사를 힘써 행하고 제작 방법 개량을 도모하여 발송지의 신용을 유지, 증진할 것
- ⑥ 특종(特種) 공업의 조성을 위해 종업원 양성 또는 기술원 비용의 보조를 할 것

二. 상업에 관한 지식 보급 향상에 관한 건

산업 지식 보급 향상에 관한 건에서 다름

三. 공업 도제 양성에 관한 건

- ① 공업 시험 기관에 도제 교육 기관을 부설하여 목공, 대장간⁷⁸⁾, 양복공, 양화공, 염직공 교육을 시킬 것
- ② 해당 직공을 대상으로 단기 강습회를 개최할 것

四. 전통시장 정리 및 이익 유도에 관한 건

- ① 전통시장에 관한 조사를 할 것
- ② 전통시장을 정리할 것
- ③ 장이 열리는 날의 횡수를 적절히 할 것

5. 부업에 관한 건

一. 부업에 관한 건

- ① 현존 부업에 관한 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근거하여 조장,

78) 원문에는 ‘鍛工’으로 되어 있으나, 대장간을 의미하는 ‘鍛工’의 오자로 보임.

- 장려 계획을 세워 발달 방법을 강구할 것
- ② 부업 생산품의 수입 상황을 조사하여 지급 방법을 강구할 것
- ③ 부업 장려를 맡은 전임 직원을 설치할 것
- ④ 부업 장려의 필요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할 것

6. 실업교육 및 실과교육 시설에 관한 건

一. 기존 실업학교 수업(修業) 연한(年限) 연장에 관한 건

- ① 대구공립농업학교 및 상주공립농잠학교의 수업 연한을 연장할 것

二. 실업교육기관 확장에 관한 건

- ① 농림학교를 설치할 것
- ② 공업학교를 설치할 것

三. 보통학교 및 소학교의 실과교육 시설 개선에 관한 건

- ① 실업 취미 함양과 근로 습관 양성을 위해 적절히 실과교육 시설을 하도록 할 것
- ② 향시 도부군도(道府郡島)의 권농기관과 연락을 하면서 제반 계획을 세워 이를 실시하도록 할 것
- ③ 가끔 도부군도 기술원의 실지 지도를 요청하고 생도에게 산업에 관한 강연 혹은 강화를 듣도록 할 것
- ④ 토지 정황, 학교 설비의 정도, 아동수의 많고 적음 등에 비추어 적절히 농업 실습지를 두게 할 것
- ⑤ 교수(教授) 시간 외에도 생도에게 적절히 농업실습을 하도록 할 것

- ⑥ 토지 정황에 따라 생도로 하여금 가정에서 1평 농업을 하도록 할 것
- ⑦ 특히 양잠, 양계, 양봉 등의 사육을 장려함과 동시에 적절한 농업 관련 수공예 과제를 주어 부업 장려에 이바지하도록 할 것
- ⑧ 학교 숲 설치, 경영에 한층 더 힘을 기울이고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주의할 것

四. 실과교육에 대한 보조, 장려 시설에 관한 건

- ① 보통학교 및 소학교의 특종 실과교육 시설에 대해 보조금을 교부할 것

五. 실업 보습학교 설치에 관한 건

- ① 실업보습학교 설치를 장려할 것

7. 산업 지식 보급 향상에 관한 건

一. 산업 지식 보급 향상에 관한 건

- ① 산업에 관한 강습회, 강화회, 전습회 또는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해당 업자 및 그 자제를 대상으로 산업에 관한 지식 향상을 도모할 것
- ② 적절한 방법으로 산업 개발에 관한 선전을 할 것
- ③ 각종 공진회, 품평회 및 전람회를 개최하여 그 효과를 높이는 데 힘쓸 것
- ④ 지방비 사업, 도(道) 종묘장, 원잠종 제조소, 상품진열소 등 진열실 정비, 확충을 도모하여 그 이용에 힘쓸 것

- ⑤ 해당 업자를 대상으로 선진 지역의 시찰을 권장할 것
- ⑥ 산업 공로자를 표창하고 항시 그들의 선도에 힘쓸 것
- ⑦ 조선에 설립된 농회, 산림회, 축산협회, 잠사회 등 사설 산업단체가 목적을 달성하도록 원조할 것

8. 산업자금에 관한 건

一. 산업자금에 관한 건

- ① 저축을 장려하여 산업자금 집적을 도모할 것
- ② 경상북도 산업의 실정을 조사, 공표하여 일본 자금의 투하를 촉진할 것
- ③ 각지의 경제 사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금융조합 증설을 도모할 것
- ④ 곡물 집산 주요지의 금융조합으로 하여금 농업창고 업무를 운영하도록 할 것
- ⑤ 무진(無盡)⁷⁹⁾에 대한 지도 감독을 주도면밀히 하여 해당 업종의 하위 금융기관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할 것

9. 교통에 관한 건

一. 도로 개수(改修)를 도모할 것

二. 기성 도로 구조물 완비를 도모할 것

三. 도로 유지, 수선에 관한 건

四. 포항과 하마다(濱田) 간 항로 개시에 관한 건

79) '상호 신용계(契)'의 이전 말이다.

五. 철도 보급 및 기존 선(線)의 개량을 도모할 것

六. 항만 설비에 관한 건

(끝)

글릭 박사의 강연

미국기독교회 동맹의 사자로 대구에 온 무전쟁세계운동의 글릭 박사⁸⁰⁾ 강연회가 3월 30일 오후 7시부터 국제친화회 주최로 대구부 상정(上町) 조선은행 지점에서 개최되었다. 박사는 역시나 25년간 일본에 살았던 만큼 유창한 일본어로 일본어 습득에 관한 실패담을 들려주면서 사람들을 웃게 만든 뒤 대략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강연을 하였다.

평화운동도 헛되이 보기 좋은 간판만 보여주어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갈등의 원인이 되는 어떤 것을 잘 해결해야 합니다(라고 하면서 캘리포니아주의 일본 배척 경과를 이야기하고) 캘리포니아주도 1849년부터 32년간은 중국인 노동자가 완전히 독점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 사이에서 그들을 직업상 적대시하였고 지식 계층에서는 중국인이 미국화되지 않는 것을 우려한 결과, 중국인 입국을 금지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1880년부터 일본 노동자가 한꺼번에 물밀듯이 몰려들었고 이번에는 노동문제가 일본인으로 옮겨갔습니다. 이를 이용하는 나쁜 정치가가 나와서 때마침 상당히 성공하는 바람에 결국 시시콜콜한 일까지 걸고넘어져

80) Sidney Lewis Gulick(1860-1945). 미국인 목사로 일본인 이민 배척 문제를 다루면서 '배일이민법' 개정 운동을 전개하였고 미일 친선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외교에도 힘썼다.

과장되게 선전했습니다. 결국에는 일본의 전쟁 준비까지 호들갑스럽게 전해져 미국 대함대가 파나마 해협을 통과했다는 등 일본에서도 그럴싸하게 이야기가 나돈 적이 있었습니다. 나쁜 정치가의 야심에서 나온 책략에 이용된 겁니다. 배일(排日)이라는 말도 적절한 해석이 아닙니다. 이미 미국에 와 있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이상은 배척하고 싶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 토지소유권 문제 때도 28만 명은 이에 반대했음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라면서 그 경위를 이야기 함). 결코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문제처럼 아무리 해도 통과하지 못합니다(라며 상세히 설명하고). 서로 떨어져 일어나 세계 평화의 아름다운 막을 열어나갔으면 합니다 라고 하였다.

경상북도 명문가와 왕년의 흥학 (승전)⁸¹⁾

제1호의 93페이지⁸²⁾에 ‘이황(호 퇴계)은 바로 회재(晦齋)의 문하에서 나왔다’를 ‘회재의 유파를 이어받았다’로 수정한다. 같은 94페이지의 정술(鄭述)은 정구(鄭逵)의 오식, 착부필(着富弼 호 彫堂)은 김부필(호 후조당)의 오식이라 수정⁸³⁾

대표적 2대 인물

경상북도가 배출한 인물에 대해 일일이 전기(傳記)를 올리는 것은 너무 많은 지면을 차지하게 되므로 이를 생략하겠다. 그러나 조선시대 경상북도를 대표하는 인물 역시 매우 많기 때문에 조선의 대표적 인물로 학자 방면에서 이퇴계, 정치가 방면에서 유서애⁸⁴⁾ 두 사람을 선택하여 그들의 간단한 전기를 올리기로 했다.

이황

퇴계 이황의 본받을 점은 죽을 때까지 정주학(程朱學)을 강명(講明)⁸⁵⁾하였으며 그 사이 수많은 인재를 양성하여 그들이 모두 국가의 유용한 그릇이 되게 함과 동시에 조선 문운의 진보를 비보(裨補)⁸⁶⁾하여 동양 도덕의 터전을 조선 땅에 깊이 뿌리내리게

81) 『경북』 1923년 1월호(5권)에 해당한다.

82) 위의 번역서 160페이지.

83) 위의 번역서 161~162페이지. 정구와 김부필에 관한 사항은 번역과 동시에 수정해 둠.

84) 서애는 유성룡의 호이다.

85) 연구하여 밝힘.

86) 도와서 모자라는 것을 채움.

한 일이다. 그래서 성리학의 천명(闡明)은 이곳뿐만 아니라, 멀리 일본의 주자학에까지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고 말해진다.

또 그 진퇴의 자취를 보면 어디까지나 청렴으로 일관했으며 명성이 점점 자자해져 조정으로부터 자주 부름을 받았으나 대부분 사퇴하고 관직에 나아가지 않았다. 그리고 늘 유학의 진수를 몸소 실천하는 일에 힘썼으며, 당시 점차 극심해지기 시작한 붕당의 소용돌이에 휘말려들지 않기 위해 초연한 태도를 취하며 명리(名利)를 보기를 흠덩이처럼 여기며, 일의전심(一意專心)⁸⁷⁾ 옛 성현의 도(道)를 천하에 보급하는 일을 자기의 소임으로 여겼다. 이처럼 훌륭한 일생의 행장(行狀)⁸⁸⁾은 참으로 영구히 세상의 모범으로 삼을 만한 것으로 세간(世間)으로부터 동방의 주자(朱子)라는 존칭을 얻은 것도 결코 이유가 없지 않다.

이황, 자는 경호(景浩)이며, 퇴계는 호이다. 또 다른 호를 도수(陶叟)라 했다. 지금의 청송군 진보 사람으로 아버지는 이식(李植)이라고 하며 진사였다. 형인 온계(溫溪) 이해(李滢)도 역시 당시의 명사(名士)로, 관직은 청흥(이전의 충청도) 관찰사까지 했다. 즉 지금의 지사(知事)이다. 퇴계가 태어난 것은 연산군 7년 신유(1501년)였기 때문에 지금부터 423년쯤 전이다. 그의 전기에는 어린 시절을 기록하며 타고난 자질이 수미(粹美)⁸⁹⁾하고, 재식(才識)⁹⁰⁾이 영오(穎悟)⁹¹⁾했다고 할 정도이므로,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것과 같을 것이다. 그는 불행하게도 나이 어린 시절에 아버지를 여의었으나, 그 동안 스스로 힘써 학문

87) 오로지 한 가지 일에만 마음을 쏟음.

88) 몸가짐과 품행을 통틀어 이르는 말.

89) 순수하고 아름답다.

90) 재주와 식견을 아울러 이르는 말.

91) 남보다 뛰어나게 영리하고 슬기로우.

을 닦아 문장은 일찍부터 볼만 했다.

스무 살 무렵은 이미 상경하여 국가교육기관⁹²⁾에 들어갔는데, 중종 23년 술자(1528년)에는 진사회시(進士會試)⁹³⁾에 붙었다. 당시는 소위 을묘사화를 거쳐 선비의 기풍이 부박(浮薄)⁹⁴⁾해 졌을 무렵이었으나, 퇴계는 그 가운데에서도 엄연히 예의범절을 지키며 스스로 통제하여 추호도 남의 허물을 돌아보지 않았다. 중종 29년 갑오(1534년)에는 문과에 급제하여 무공랑·박사를 역임했다. 32년에는 선교랑·승훈랑·승의랑을 제수 받았으며, 34년 기해(1539년)에는 홍문관수찬이 되었다. 정언·지평·정랑·교리, 지평·수찬·교리·전적, 홍문관교리, 충청도와 강원도의 어사 등 여러 관직을 거쳐 인종 원년 을미(1545년)에는 봉정대부·중훈대부·중직대부·통훈대부에 제수되었다. 명종 3년 무신(1548년)에 단양군수, 풍기군수 등을 역임했으나 당시 정계의 부패가 심해서 형님인 이해는 청홍관찰사⁹⁵⁾로 있다가 원사(冤死)⁹⁶⁾할 지경이었다. 그로인해 퇴계는 점차 세상의 혼탁을 꺼리는 마음이 통절해져서 마침내 관직에서 물러날 결심을 하고, 예안 퇴계에 복거(卜居)⁹⁷⁾하게 되었다. 그것이 명종 5년 경술(1550년)이었다. 퇴계의 호는 바로 이 때 생겼다.

퇴계에 거처를 마련하고 나서는 세상의 풍진을 피해 일의전심 정주성리학에 마음을 두었는데, 퇴계의 명성을 흠모하여 문하에 와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차츰 많아졌다. 이 때문에 지방 선비의 기풍은 일변했다고 전해진다. 당시 퇴계의 명성은 차츰 온 천

92) 이황은 23세 때 성균관에 처음 유학했다.

93) 조선시대에 과거에서 초시에 합격한 사람이 이차로 보던 시험.

94) 천박하고 경솔함.

95) 현 충청남·북도 지역.

96) 원통하게 죽음.

97) 살만한 곳을 가려서 정함.

하에 자자해졌는데, 조정에서도 이를 듣고 자주 기용하고자 했다. 그러나 퇴계는 대부분은 고사하고 관직에 오르지 않았으나, 명종 21년 병인(1566년)에 마침내 공조판서 겸 대제학에 올랐다. 이때 이미 세상의 중망(重望)⁹⁸은 퇴계에게 쏠렸다.

정묘년 명종이 흥서⁹⁹하자마자 퇴계는 명을 받아 명종의 행장을 선별하였다. 이때 선조는 퇴계를 예조판서에 봉하였으나 병 때문에 사퇴했다. 선조 원년 무진(1568년)에는 송정대부 의정부 우찬성의 직위에 올랐으나 등용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더욱 굳어져서 이때 육조소(六條疏)¹⁰⁰를 작성하고, 성학십도¹⁰¹를 올렸는데 이는 퇴계가 가장 마음을 많이 쏟은 일로, 우리나라에 보답하는 일은 그저 이것뿐이라고 했을 정도이다.

다음 해 2년 기사(1569년)에는 총우¹⁰²가 더욱 깊어져서 이조판서의 벼슬을 내렸으나 또 병으로 인해 사퇴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때 선조께서는 퇴계를 편전¹⁰³에 인견(引見)¹⁰⁴하시어 말씀하시기를 경(卿)은 무언가 말하고 싶은 게 없는 가라고 하셨다. 퇴계는 이에 대해 엿드려 바라건대 성명(聖明)¹⁰⁵으로 모쪼록 사림(士林)¹⁰⁶을 애호하시라고 아뢰었다. 퇴계가 평소 얼마나

98) 매우 두터운 명성과 인망.

99) 황족 등 귀인이 죽다.

100) 무진년(1568년) 선조가 17세의 어린 나이로 즉위하자, 68세의 퇴계는 대제학·지경연(知經筵)의 중임을 맡고 7400여 글자 6조목으로 된 상소문 ‘무진 육조소(戊辰六條疏)’를 올림.

101) 퇴계 이항이 1568년 선조에게 올린 상소문으로, 성리학의 핵심 원리와 실천 방법을 10개의 도표와 해설로 정리한 것.

102) 특별한 귀여움으로 받는 대우.

103) 임금이 평상시에 거처하는 궁전.

104) 임금이 의식을 갖추고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따위의 관리를 만나 보던 일.

105) 임금의 밝은 지혜.

106) 유학을 신봉하는 무리.

학문에 충실했는지는 이 한마디로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다음 해 3년 경오(1570년)에 마침내 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70세였다. 조 정에서는 생전의 공적을 추사하여 영의정으로 추증했고, 9년 병 자(1576년)에는 문순공이라는 시호를 내려주셨다.

퇴계의 뜻은 성리학을 천명하는 것으로 만년에 가장 힘쓴 점이 었다. 헛되이 명리(名利)를 좇는 마음이 없었기에 관직에 올라 혁 혁한 명성을 떨치고자 하는 일 또한 실로 혐오하는 바였다. 퇴계 의 퇴계다운 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 서당을 도산에 만든 것은 명종 22년 정사(1567년)의 일로, 퇴계는 늘 그곳에서 염담(恬淡)¹⁰⁷⁾한 생활을 즐겼다. 학문에 충실한 서생들이 와서 도(道)를 배우고자 청하면, 순순(淳淳)히¹⁰⁸⁾ 가르치며 지칠 줄을 몰랐다. 이런 사정이므로 전후 퇴계에게 종유(從遊)¹⁰⁹⁾하는 자는 실로 엄청난 수에 이르렀는데, 특히 세상에 알려진 자만을 꼽아도 대충 다음과 같다.

문족(門族)¹¹⁰⁾ 자제 등이 퇴계 사후 5년, 선조 7년 갑술(1574년)에 도산서원을 지어 퇴계를 배향했다. 서원에는 사액(賜額)¹¹¹⁾이 있으며 지금도 보존되어 있다. 사액이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당시 서원은 최고로 명예롭게 여겼다. 낙동강 원류가 길게 흐르고 노송이 울창한 곳에서 대학자를 배향한 서원을 우러러 볼 때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연스레 그 당시의 추회(追懷)¹¹²⁾에 빠져들게 한다.

107) 욕심이 없고 마음이 깨끗함.

108) 타이르는 태도가 아주 다정하고 친절하게.

109) 학식이나 덕행이 높은 사람을 좇아 함께 지냄.

110) 한집안의 거래붙이.

111) 임금이 사당(祠堂), 서원(書院), 누문(樓門) 따위에 이름을 지어서 새긴 편액을 내리던 일.

112) 지나간 일이나 사람을 생각하여 그리워함.

퇴계 제자 ○표시는 경상북도 사람

○조목(호 일천¹¹³) ○정구(호 한강) ○유운용(호 겸암) ○유성룡(호 서애) ○김성일(호 학봉) 이이(호 율곡) 기대승(호 고봉) 김우굉(호 개암) ○김부필(호 후조당) 정지운(호 추만) ○노수신(호 소제) 한 수¹¹⁴(호 석봉) ○황준량(호 금계) 박순(호 사암) ○김극일(호 약봉) ○구봉령(호 송담¹¹⁵) ○정탁(호 약포) ○권호문(호 송암) 성훈(호 우계) 윤근수(호 월정) 허엽(호정 초당) ○정곤수(호 백곡) 이성중(호 파곡) ○김우용(호 동강) ○김륵(호 백암) ○오운(호 죽유) 우성전(호 추연) ○남치리(호 비지) ○조호익(호 지산) 김제갑(호 의재) 심희수(호 일송) 유근(호 서경) 홍적(호 하의) 허성(호 악록) 고응척(호 두곡) 이호민(호 오봉) 이양원(호 노저) 윤두수(호 오음) 심의겸(호 혁암¹¹⁶)

유성룡

유성룡의 이름은 조선 선조 때 임진왜란 당시의 재상으로, 유명한 징비록의 저자로 지금도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 있다.

성룡은 이름이고 자는 이견, 호를 서애라 했다. 풍산(지금의 안동군 관내) 사람이다. 입암 유중영의 자식이자 겸암 유운룡의 아우이다. 형인 겸암도 유명한 인물이었다. 서애는 중종 37년 임인(1542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382년 전이다. 즉 이 퇴계보다 42년 뒤에 태어났다.

서애의 전기에 따르면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영오했으며 4살

113) 조목의 호는 월천으로 여기에 표기된 일천은 옳기로 보인다.

114) 한석봉은 본명은 한호(韓濩)인데, 여기서는 한수로 잘못 기록되어 있다.

115) 구봉령의 호는 백담(栢潭)인데, 송담(松潭)으로 잘못 기록되어 있다.

116) 심의겸의 호는 손암(巽庵), 황재(黃齋), 간암(艮庵)이다.

때 글씨를 읽을 줄 알았고, 행동거지가 어른스러웠다고 하니 조속한 사람이었음을 엿볼 수 있다. 서애가 차츰 성장했을 무렵엔 퇴계는 이미 상당한 연배로 그 이름이 만천하에 알려져 있었다. 당시 스승을 구하는 자는 모두 앞 다투어 퇴계의 문하로 들어갔는데, 서애도 아버지의 명으로 퇴계 문하에서 유학했다. 퇴계는 서애를 한번 보고 이 아이는 하늘이 내린 사람이라고 탄복하며 칭찬했다. 퇴계의 이 한마디는 서애의 어린 시절을 다 표현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서애의 가장 볼만 한 점은 천분이 정말로 고상하다는 것이다. 행동거지는 늘 단정하고 일거일동 옳은 일이 아니면 가까이 하지 않았다. 그리고 학문은 본디 좋아하였으나, 쓸데없이 형식에 치우치거나 문장에 얽매이지 않고 부유(腐儒)¹¹⁷⁾의 가르침을 배우지 않았다. 학문을 항상 실제로 활용하는 것에 신경을 쓰며 정사(精思) 실천¹¹⁸⁾을 중요시했다.

고제(高弟)¹¹⁹⁾인 정우복은 서애를 늘 접하여 그의 품행을 잘 아는 자인데,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바에 따르면 서애는 평소 근엄하고 공손하며 자존자중(自尊自重)하여 온종일 점잖고 의젓하여 자기 가족과 자제라 하더라도 일찍이 해이한 모습을 본 적이 없으며, 사람을 기다리고 사물을 접하는데 있어서는 활력이 넘치며 봄처럼 화목한 기운을 느끼게 한다. 그리고 비린(鄙吝)¹²⁰⁾한 말을 하지 않고, 나태한 기색이 없다. 고로 사람들이 이러한 것을 보면, 자연히 삼가 존경심이 생긴다. 생각건대 몸소 예의를 다하

117) 생각이 낡고 완고하여 쓸모없는 선비.

118) 고사성어인 정사역천(精思力踐: 깊이 생각한 다음에 힘써 실천하라)의 오기로 보인다.

119) 학식과 품행이 뛰어난 제자.

120) 매스꺼울 정도로 더럽게 인색하다.

는 자라고 말했다. 즉, 엄격한 태도를 가진 군자인데, 소위 위엄이 있으나 사납지 않아 접근하면 봄바람처럼 느낌이 좋다. 그렇다고 해도 허물없이 다가갈 수 없는 관록이 있었다. 자온이려(子溫而厲), 위이불맹(威而不猛), 공이안(恭而安)¹²¹⁾이라는 공자의 품행이 생각나지 않는가.

또 해은집(晦隱集)¹²²⁾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영남 사람들이 말하길 이원익은 속일 뿐 속일 수 없고, 유성룡은 속이려 해도 속일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재차 서애의 사람됨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서애가 매우 통달하여 천명을 알고 태연한 사람이었다는 것은 임종할 때의 거동에 비추어 봐도 명백하다. 서애가 죽은 것은 66살 때였는데, 죽기 전날 밤도 일어나 앉아 평소와 거의 다름없이 홍범(洪範)¹²³⁾을 송독하였는데, 선조는 이따금 위독하다는 말을 듣고 멀리 경성에서 의원을 보내주셨다. 서애는 진찰을 한번 받은 후 작별 인사를 하며 먼 곳까지 와 애써주어 뭐라 보답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임종이 시시각각으로 닥쳐오는 걸 알고 병문안객을 사절하고, 나는 이제부터 편안하고 고요히 저 세상으로 가고자 한다며 시종에게 명하여 자리를 당(堂) 안으로 준비시키고, 북쪽을 향해 정좌하여 아무런 고통도 없이 태연히 숨을 거두었다. 이처럼 훌륭한 죽음은 공자의 소위 사생유명(死生有命)¹²⁴⁾을 체득한 자가 아니면 결코 할 수 없는 것이다.

121) 《논어》〈술이(述而)〉편 제38장에 유래하는 말로, “공자께서는 온화하면서도 엄숙하시고 위엄이 있으면서도 사납지 않으시고 공손하면서도 편안하였다”는 의미이다.

122) 조선 후기 안동에서 활동한 강필효(1764~1848)의 문집이다.

123) 홍범구주(洪範九疇)인 것으로 보인다. 홍범구주는 중국 상고시대에 하나라의 우왕이 요순 이래의 사상을 집대성한 천지의 대법(大法)으로 알려진 정치 도덕의 기본적 아홉 법칙을 말한다.

124) 사람의 살고 죽음은 다 천명에 달려 있으므로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음을 이르는 말.

서애의 서애다운 점은 바로 이와 같은 점에 있었다.

서애는 명종 21년 병인(1566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성균관 전적, 공조좌랑, 부수찬 등을 거쳐, 선조 11년 무인(1578년)에 군기정(軍器正) 대간응(大諫應)에 임명되었고, 다음 해 기묘년 직제학으로 바뀌었다가, 뒤이어 동 부승지를 지내고 이조참의를 맡았다가 얼마 안가서 부제학을 지냈다. 그 후 상주목, 대사간 등을 거쳐 16년 계미(1583년)에는 함경도 관찰사가 되었고 뒤이어 예조판서에 올랐는데, 이때 서애의 단엄(單嚴)¹²⁵⁾한 성격을 유감없이 발휘한 이야기가 하나 있다. 그것은 선조가 부마 즉 왕의 사위를 선발하고자 했을 때의 일이다. 동성(同姓)끼리는 서로 혼인을 하지 않는 중국의 오랜 예법을 따른 조선에서는 역시 다른 성이 아니면 혼인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 부동의 예법이였다. 그런데 누군가 사랑은 신성하다고 노래한 것처럼, 남녀 간에 서로 연모하고 그리워하는 관계가 이런 난처한 예의와 충돌하는 바가 있음은 물론이고, 사람의 취향은 제각기 달라서 남이 이러쿵저러쿵할 바가 아니듯이 일찍이 선조가 가장 사랑하는 여자의 신랑감으로 남몰래 마음속으로 정한 사람이 같은 이 씨 중에 있었다. 그러나 존귀한 임금이라 해도 천하의 예법을 무시할 수 없기에 선조의 번뇌가 적잖이 깊어졌다.

그래서 내밀히 서애에게 이 일을 의논했다. 이때 서애가 만약 아침만 하는 소인이었다면, 해박한 학문과 재식(才識)을 비뚤어진 쪽으로 응용하여 어떻게든 끼워 맞추기도 했겠지만, 그것이 과연 서애의 훌륭한 점이다. 서애는 선조의 하문에 대해 예법에 엄연히 동성을 아내로 맞이하지 않는 까닭을 말하며 불가함을 진언하기에 이르렀기 때문에 결국 그 계획은 중지되었다. 당시의

125) 단정하고 엄숙하다.

궁궐 실정에서는 감히 이처럼 직언을 꺼리지 않는 행동을 한다는 것은 실로 도를 실천하고 예를 존중하는 일에 대해 깊은 신념을 가지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재난도 두려워하지 않는 인물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리고 서애는 선조 23년 병인(1590년)에 형조판서를 거쳐 우의정이 되었다. 뒤이어 풍원부원군에 봉해지고 다음 해 좌의정에 올랐으나 서애가 국가동량의 중신으로서 가장 고충을 겪은 것은 임진왜란 때였다. 선조 25년 임진왜란은 조선에게 실로 존망이 걸린 대사변으로 팔도의 산하는 순식간에 모조리 수라장으로 변해 버렸다. 서애는 이런 경복(傾覆)¹²⁶⁾한 시기에 국가의 중임을 띠고 노심초사 있는 힘을 다 쏟아부어 국사(國事)에 힘썼다. 때로 임금에게 아뢰거나 어떤 조처를 취함에 있어 지극 정성을 다했으며, 분주하게 대비하느라 몹시 힘들고 고생스러운 처지였다. 궁궐의 병사들은 적의 파죽지세에 대항하지 못한 채 거듭 패배를 했기 때문에 선조를 모시고 무사히 서쪽으로 달아났다. 서애는 선조를 따라 송도(개성)로 갔을 때 영의정으로 승진하였다. 국운이 몹시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어느 나라 역사에서나 자주 보는 바이나, 왕의 지위에 있는 자나 신하로서 섬기는 자나 오늘 내일을 알 수 없는 운명에 처한 곳에서 서로 시기하고 의심하며 배제(配劑)¹²⁷⁾하는 일 역시 어쩔 수 없는 사정이다. 마침 이때도 그러한 위급한 상태였기에, 선조의 곁에서 시종을 들던 조정 신하들 사이에도 서로 인심(人心)을 헤아릴 수 없어 이합복배(離合腹背)¹²⁸⁾가 심했다. 그래서 결국 서애는 일신을 돌보지 않고 충절

126) 1. 기울어져 엎어짐. 2. 뒤집어엎어져서 망함.

127) 물리쳐 어려운 지경에 빠뜨림.

128) 이합은 왕이나 권력자들이 필요에 따라 연합하거나 상황에 따라 적대세력으로 돌아서는 것을 의미하며, 복배는 한번 맺었던 동맹이나 연합이 쉽게 깨

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가엾게도 탄핵을 당해 재상의 지위에서 해임되어 선조 40년 경(卿)¹²⁹으로 강등된 채 사망했다. 조정은 서애의 생전의 공을 기록하여 문충(文忠)이라는 시호를 하사하였다.

문죽 자제 등이 서애 사후 7년, 광해군 5년 계축(1613년)에 병산서원을 세워 서애를 배향했다. 역시 이 서원에도 사액이 있다. 지금도 현존하며 푸른 산봉우리가 이어진 산들을 굽이쳐 흐르는 낙동강에 면해 서 있는 큰 서원이 바로 이것이다. 이후 수백 년 서원의 제사는 때를 정하여 엄격하게 집행되어 왔으나, 이제는 사물이 변하고 세월도 흘러 아들은 손자를 낳고 손자는 증손을 낳았다. 새로운 시대에 성장한 자제들은 어느 덧 단발을 하고 서양풍으로 변해 유교식 복장을 입고 까다로운 제사 의식에 참석하는 일은 알지 못한다. 고지식한 옹고집 노인들은 이를 싫어해야 할 나쁜 풍속으로 보고 옛 생각을 하며 분노와 슬픔의 눈물이라도 삼킬 것이다. 그들은 개명의 바람이 든 청년자제를 제사 지내는 자리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정도로 분노를 드러내고 있다.

서애의 문하생으로, 가장 출세한 이는 정경세(호는 우복, 관직은 이조판서까지 오름), 이준(호는 창석, 관직은 이조참판까지 오름), 이전(호는 월간) 등 몇 명이다. (이상 두 집안의 전기는 그 집안의 장서 및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¹³⁰에서 자료를 많이 얻었다.)

지고 배신이나 전복이 반복되는 상황을 가리킨다. 원래는 비잔티움(동로마)역사에서 황제들이 권력 다툼을 위해 연합하거나 배신하는 등, 이합집산이 반복된 현상을 표현하는 말로 동서양 역사에서 자주 언급되는 개념이다.

129) 정이품의 벼슬.

130) 조선 정조 때에 이공익이 펴낸 역사책,

경상북도의 서원

경상북도 영주군 순흥에 현존하는 소수서원은 조선 최초의 서원으로 실로 유명하다. 즉 조선 중종 37년 임인(1542년)에 당시의 풍기군수 주세붕이 속현이었던 순흥의 고려 문성공 안유의 옛집에 백운동서원을 지어 이를 향사(享祀)한 데서 비롯된다.

그리고 명종 5년 경술(1550년)에 이퇴계가 주세붕에 이어 군수가 되었을 때에 감사(즉 지금의 지사)인 심통원(沈通源)을 통해 중종께 아뢰어¹³¹⁾ 송나라 때의 백록동 고사가 적힌 친필 사액을 받았으며, 서적과 논밭, 곳간 등을 하사받았다. 소수서원의 이름은 이 사액으로 인해 생겼다. 당시 퇴계가 감사에게 청한 초안은 선명한 해서(楷書)로 실제로 서원에 소중한 간직되어 있다.

그 후 각도의 사림도 앞다투어 이를 본 따 각 지역에 서원을 설치하여 사액을 주청하게 되었다. 이후 사액과 반서(頒書)¹³²⁾ 하사가 굉장히 많아졌는데, 그중에서도 전술한 경상북도 예안의 도산서원은 황해도 해주의 소현서원과 더불어 가장 두드러진 서원이다. 그 후에는 서원 설립이 거의 남발될 지경이 되어 조정에서도 그렇게 무작정 주청대로 사액과 토지 지급 및 반서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급을 받지 않은 사설 서원이 생길 정도로 대유행이었다.

조정에서는 서원을 역대로 누차 거듭해서 설치하는 일을 금하거나 궤철시킨 것도 많았으나, 시대 풍조는 또한 어찌 할 도리가 없는 형국이었다. 서원은 이러한 성황을 보였으나, 점차 이로 인해 일종의 폐해가 발생했다. 각지의 서원에 모이는 서생 즉 유생이 그저 유교의 도를 천명하는 일에 종사하거나 시가를 읊으며

131) 중종 때가 아니라 명종 때의 일이다.

132) 왕이 서원에 서적을 하사하는 일.

풍아한 마음을 달래기만 했으면 별일이 없었겠으나, 어느덧 유생들 사이에 시정(時政)을 논하는 풍조가 생겼고, 그 가운데에서도 유생들을 좌지우지하는 노(老)선생의 언론은 특히 일반으로부터 중요시되었다. 그런 식으로 노선생의 언설은 점차 한 마을 한 지역을 풍미하였고, 대선생의 언설은 왕왕 조지(朝旨)¹³³도 움직이게 할 정도의 세력을 가지게 되었다. 당시 이를 칭하여 청의(淸議)라 했다.

그런데 그 폐단은 점점 심해져서 마침내 붕당(朋黨) 비주(比周)¹³⁴는 서로 어려운 지경에 빠뜨리는 이기(利器)¹³⁵가 되어 차츰 세상에 해독을 끼치게 되었다. 조선의 붕당의 폐단은 역사적으로 꽤 유명한데, 이는 선조 시대 무렵부터 차츰 심해졌다. 잔혹한 살해까지 끊임없이 발생하기에 이른 당화(黨禍)¹³⁶는 실로 이서원이라는 것에서 싹텄다고 단정해도 어찌면 틀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사물은 기세가 다하면 언젠가는 변화해야만 한다. 저 일대 괴걸¹³⁷이라 불린 대원군이 정치에 관여하게 되어 당쟁의 심우(深憂)¹³⁸를 인정하고 이희(李熙)¹³⁹왕의 신미(辛未) 즉 1871년에 일대 영단으로 당쟁 박멸을 시도했는데, 명쾌한 수법으로 문묘종사 외에 누차 거듭 설치된 서원은 죄다 획철해 버렸다. 그래서 그렇게나 번창했던 서원도 전국에 불과 47군데만 존재하게 되었다. 그 가운데 경상북도도 다음 9군데만 남았다. 이

133) 조정의 명령이나 의사.

134) 다른 속셈이 있어 참되지 못한 일로 한패를 이루는 것.

135) 1. 썩 잘 드는 연모, 또는 아주 날카로운 병기.

136) 당파 싸움으로 생기는 재앙과 피해.

137) 생김새나 재주가 뛰어난. 또는 그런 사람.

138) 깊이 근심함. 또는 그런 근심.

139) 고종황제.

전에는 한 군(郡)에 1곳은 있었으며 한 도(道)에 40여 개가 될 정도로 많은 수에 이르렀다.

1) 영주군 순흥

소수서원 임인년(1542) 건립, 명종 기유년(1549) 사액
안유, 안축, 안보, 주세붕

2) 경주군 경주면 및 강서면

서악서원 가정(嘉靖)¹⁴⁰ 신유년(1561) 건립, 천계(天啓)¹⁴¹ 계해년(1623) 사액(경주)

설총, 김유신, 최치원

옥산서원 융경(隆慶)¹⁴² 임신년(1572) 건립, 만력(萬曆)¹⁴³ 계유년(1573) 사액(강남)

3) 선산

금오서원 융경 임신년(1572) 건립, 만력 을해년(1575) 사액
길재, 김종직, 정붕, 박영, 장현광

4) 달성군 현풍

도동서원

김굉필, 정구

140) 중국 명나라 세종의 연호(1522~1566)

141) 중국 명나라 희종의 연호(1621~1627)

142) 중국 명나라 목종의 연호(1567~1572)

143) 중국 명나라 신종의 연호(1573~1619)

5) 안동군 예안(지금의 도산)

도산서원 만력 갑술년(1574) 건립, 선조 사액
이황, 조목(이황의 제자)

6) 안동군 예남면

병산서원 만력 계축년(1613) 건립
유성룡, 유진

7) 상주군 무동면 및 상주면

옥동서원, 임진왜란 후 을해년(1595) 중수(무동면 수봉)
황희, 김제, 김충, 고인계, 송량
흥암서원 임오년(1702) 건립(상주면)
송준길
(부기) 경상북도 향교 재산에서 매년 6천 원 내외를 지출하는
것은 문묘향사비로 서원과 상관없음.

경상북도 배출 인물

신라

원효 설총의 아버지로 스님이다.

설총 홍유후¹⁴⁴⁾

김유신 무열문무를 모셨고 삼국통일의 업적을 이룸, 지금의 묘
는 때로는 김인문의 묘라고도 함.

김인문 문무왕의 아우로 그를 도움.

144) 1021년 고려 현종이 설총에게 추증한 시호.

김양 신문왕 때 명신. 지금의 묘는 김유신의 묘라는 얘기도 있음.
 최치원 호는 고운, 문학사.
 김후직 진평왕 때 사람, 간신(諫臣)¹⁴⁵⁾으로 유명.
 박제상 파사왕 5세손, 눌지왕의 신하로 일찍이 일본에 볼모로 간
 미사흔을 되찾기 위해 일본으로 건너갔다가 불에 태워
 살해되었다.(치술령에 그 아내의 망부석 유적이 있다)

고려

배현경 고려 태조의 공신
 최항 문신
 김부식 삼국사기의 저자이며, 김부일, 김부의는 그의 형제로 부
 일은 인종과 숙종 때에 평장사¹⁴⁶⁾(수상)이고, 부의는 숙
 종 때 문하시중(수상)이다.
 김인경 명종 때 무신으로 평장사가 되다.
 이제현 호는 익제 충렬왕과 충선왕 시절의 문신, 문하시중이다.
 최해 최치원의 후손 충숙왕 시절의 학자이다. 자는 언명, 후
 년에는 예산이라 부름.
 이달충 충숙왕과 공민왕 시절의 학자, 밀직제학이 됨.
 이존오 공민왕¹⁴⁷⁾ 때의 학자
 이규보 자는 춘경, 초명은 인저¹⁴⁸⁾, 경주 사람¹⁴⁹⁾.
 안유 자는 회헌¹⁵⁰⁾, 순흥¹⁵¹⁾ 사람, 시호는 문성.

145) 임금에게 옳은 말로 간하는 신하.

146) 고려시대 내사문학성의 정이품 벼슬.

147) 원서에는 도민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한자 표기의 오식으로 보인다.

148) 원서에는 인씨로 표기되어 있으나 한자표기의 오식으로 보인다.

149) 본관은 경기도 여주(황려)이다. 경주와의 연고는 1199년 경주에서 반란이 일어나자 자원 종군하여 병마녹사(兵馬錄事) 겸 수제(修製)가 된 적이 있다.

150) 안유의 자는 사온(士蘊)이고 호가 회헌(晦軒)이다.

- 권보 자는 제만, 호는 국헌¹⁵²⁾, 안동 사람 안회헌¹⁵³⁾의 문인.
 백이정 자는 빈연¹⁵⁴⁾, 호는 이재, 영해 사람¹⁵⁵⁾ 안회헌의 문인.
 이곡 자는 중보, 호는 가정, 영해 사람 권국헌¹⁵⁶⁾의 문인.
 우탁 자는 천장, 호는 역동, 안동 사람 안회헌¹⁵⁷⁾의 문인.
 안축 자는 당지, 안동 사람¹⁵⁸⁾, 시호는 문정.
 이인복 자는 극례, 호는 초은, 성산군 조년의 손자(성주), 시호는 문충.
 박의중 자는 자허, 초명은 실, 밀양 사람.
 이색 자는 영숙, 호는 목은, 본관은 영해, 가정 이곡의 아들.
 김구용 자는 경지, 초명은 제민, 호는 척약, 시호는 문은.
 이송인 자는 자안, 호는 도은, 본관은 성주, 인복의 재종질¹⁵⁹⁾. 이색의 문인.
 정몽주 자는 달가, 호는 포은, 영천의 동쪽 우항리에서 탄생, 고려 말의 명신, 임고서원에 모셔져 있다. 시호는 문충.
 길재 자는 재보¹⁶⁰⁾, 호는 야은, 본관은 해평.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되자 관직을 버리고 학문을 닦고 연구함.

조선

- 배극렴 관직은 시중, 성산부인군, 시호는 정절공, 조선 태조 개

151) 현재는 영주시 순흥면이다.

152) 권보의 호는 국제이다.

153) 안유.

154) 백이정의 자는 약헌이다.

155) 안동 사람의 오기로 보인다.

156) 권보.

157) 원문에는 이회헌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한자표기의 오식으로 보인다.

158) 본관은 순흥(영주)이다.

159) 인복은 고려말 권신 이인임의 아들로 이송인과는 7촌 재종숙 사이이다.

160) 원문에는 재문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한자표기의 오식으로 보인다.

- 국공신.
- 정도전 호는 삼봉, 관직은 영상, 본관은 봉화, 조선 태조 개국 공신.
- 심덕부 관직은 좌의정, 시호는 정안공, 본관은 청송, 조선 태조 개국 공신.
- 권근 호는 양촌, 관직은 대제학, 좌명공신, 길창군, 시호는 문충공, 조선 태조, 태종조.
- 이제 흥안군, 시호 경무공, 조선 태조 개국 공신, 태조의 묘정에 배향되다.¹⁶¹⁾
- 정희계 관직은 참찬, 계림군, 시호는 양경공, 조선 태조 개국 공신.
- 장사길 관직은 참찬, 화산부원군, 시호는 희양, 조선 태조 개국 공신.
- 설장수 관직은 이품에 오름, 고려 공양왕조 공신, 조선 태조에게 죄를 지어 이리 저리 떠돌아다니며 지내다 사망. 시문에 능하다.
- 이직 호는 형제, 관직은 좌의정, 성산부원군 시호는 문경공, 조선 태조조 공신.
- 황희 호는 방촌, 관직은 영의정, 시호는 익성공, 세종의 묘정에 배향되다.
- 허조 호는 경암, 문신, 좌의정, 시호는 문경공, 세종의 묘정에 배향되다.
- 김숙자 호는 강호산인, 세종조 문신, 사예(司藝)¹⁶²⁾
- 박팽년 호는 취금현, 세종조 문신, 형조참판, 시호는 문충공¹⁶³⁾,

161) 묘정배향은 공로가 있는 신하를 죽은 뒤에 종묘 제사에 부제(祔祭)하는 일을 말한다.

162) 성균관에서 음악을 가르치던 정사품 벼슬.

163) 박팽년의 시호는 충정(忠正)이다.

- 단종조 사육신 중 한명.
- 유응부 세종조 무신 이품에 오름, 시호는 충목공¹⁶⁴), 단종조 사육신 중 한명.
- 이맹전 호는 경은, 세종조 문신, 정언(正言)¹⁶⁵), 단종조 생육신 중 한명.
- 신숙주¹⁶⁶) 호는 보한재, 문신, 영상, 시호는 문충공, 세종, 세조 조 공신, 고령부원군, 성종의 묘정에 배향되다.
- 서거정 호는 사가정, 세종, 세조, 예종조 좌리공신¹⁶⁷) 좌찬성, 시호는 문충공.
- 유호인 호는 뇌계, 중종조 문신, 장령(掌令)¹⁶⁸)
- 홍귀달 호는 허백당, 세조조 문신, 참찬, 시호는 문광공.
- 김종직 호는 점필재, 세조조 문신, 형조판서, 시호는 문간공.
- 권오복 호는 수헌, 세종조 문신, 호당(湖堂)¹⁶⁹)
- 이원 호는 재사당, 성종조 문신, 좌랑
- 김굉필 호는 한훤당, 성종조 문신, 좌랑, 시호는 문경공, 문묘에 종향¹⁷⁰)되다. 5현 중 으뜸.
- 박은 호는 읍취헌, 성종조 문신, 호당.
- 김정 호는 충암, 성종조 문신, 형조판서.
- 김식 호는 사서, 중종조 문신, 대사성.

164) 원문에는 충무공으로 표기 되어 있으나, 충목공의 오기로 보인다.

165) 사간원에 속한 정육품 벼슬.

166) 원문에는 신숙단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한자표기의 오식으로 보인다.

167) 조선 성종의 즉위를 도운 공로로 책봉된 공신들을 의미한다.

168) 사헌부에 속한 정사품 벼슬.

169) 젊은 문관 가운데 뛰어난 사람을 뽑아 휴가를 주어 오로지 학업만을 닦게 하던 서재. 국가의 중요한 인재를 길러 내기 위하여 성종 22년(1491)에 시행하였다가 정조 때 없었다.

170) 1. 공신의 신주를 종묘에 모시는 일, 2. 학덕이 있는 사람의 신주를 문묘나 사당, 서원 등에 모시는 일.

- 김안국 호는 모재, 중종조 문신, 좌찬성, 시호는 문경공, 인종의 묘정에 배향되다.
- 김정국 호는 사재, 중종조 문신, 예조참판.
- 권벌 호는 총재, 중종조 문신, 찬성, 시호는 총정공.
- 이언적 호는 회재, 중종조 문신, 찬성, 시호는 문월공, 문묘에 종향되다.
- 곽재우 호는 망우당, 선조조 문신, 우윤, 임진왜란 때 의병장의 공로가 있다.
- 김면 호는 송암, 점필재¹⁷¹⁾의 문인, 선조조 문신, 좌랑, 임진왜란 때 의병대장의 공로가 있다.
- 곽초 호는 존재, 명종조 문신, 부사, 임진왜란 당시 사망
- 노수신 호는 소재, 명종 선조조 문신, 영상, 시호는 문의.
- 유성룡 호는 서애, 명종 선조조 문신, 영상, 풍원군, 시호는 문충공
- 정탁 호는 약포, 명종 선조조 문신, 좌의정, 시호는 정간공.
- 이황 호는 퇴계, 중종조 문신 찬성, 시호는 문순공, 선조의 묘정에 배향되고 문묘에 종향.
- 정구 호는 한강, 명종조 참판 고사¹⁷²⁾, 시호는 문목공.
- 김우옹 호는 동강, 명종조 문신, 이조참판
- 김성일 호는 학봉, 명종 선조조 문신, 감사, 시호는 문충공
- 정경세 호는 우복, 선조 인조조 문신, 이조판서, 시호는 문장공.
- 장현광 호는 여헌, 선조 인조조 판서를 고사, 시호는 문강공.
- 정충신 선조조 임진왜란의 공신, 관직은 부원수 병조판서에 오름, 금남군

171) 김종직의 호이다.

172) 정구는 명종 때 참판으로 임명되었으나, 벼슬에 나아가지 않고 관직을 사양하였다.

최진립 선조조 임진왜란에 공이 있음, 시호는 정무공.
 이원정 호는 이암, 인조, 효종조 문신, 이조판서.
 이원록 인조, 효종조 문신, 대사헌
 이상정 호는 대산 영종조 문신, 참의
 이광정 호는 소산, 참봉
 이해 호는 온계, 중종조 문신, 대사헌
 이우 호는 송재, 성종, 중종조 문신, 참판
 이언영 호는 완정, 부승지¹⁷³⁾, 성종조
 이현일 호는 갈암, 문신, 이조판서, 인조 효종조
 이굉 호는 반구정, 부제학 성종 중종조
 이의발 문신, 판서, 자암 이민환의 후임, 정종조
 김우굉 호는 개암, 문신, 이조참의, 종종조
 김극일 호는 약봉, 문신, 대사성, 명종조
 이민환 호는 자암, 문신, 이조참판, 현종조
 김굉 문신, 참판 (오우당 김근의 후임) 정종조
 김부필 호는 후조당, 시호는 문순공, 중종조
 김영조 호는 망와, 문신, 참판, 중종 명종 조
 김응조 호는 학사, 문신, 부제학, 중종 명종조
 김취문 호는 구암, 문신, 부제학, 중종 명종조
 정세아 호는 호수, 선조조 임진왜란 창의공신
 정극후 호는 쌍봉, 왕자사부¹⁷⁴⁾ 역임, 인조조
 유운룡 호는 겸암, 선조조 문신, 감사
 유기복 호는 기봉, 선조조 임진왜란 의병장
 최현 호는 인재, 명종조 문신, 감사

173) 원문에는 문승지로 되어 있으나 부승지의 오기로 보임.

174) 조선시대에 국왕의 후궁 소생인 왕자의 교육을 담당하던 종9품의 특별 관직.

강신 호는 동고, 문신, 참찬, 보흥군, 명종조
황준량 호는 금계, 문신, 목사, 중종조
장경우 호는 만회당¹⁷⁵⁾
여대로 호는 감호, 문신, 군수
배삼익 호는 임연, 문신, 감사, 애종 성종조
금난수¹⁷⁶⁾ 호는 성재, 현감, 성종조
이현보 호는 농암, 문신, 지중추부사¹⁷⁷⁾ 성종조
(미완결)

175) 원문에는 만오당(晩悟堂)으로 되어 있으나 만회당(晩悔堂)의 오기로 보인다.

176) 원문에는 금난손(琴蘭孫)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한자의 오기로 보인다.

177) 조선의 정2품 관직.

회보

□ 회장 및 위원 이동 □

신임 경상북도 지사 사와다 도요다케(澤田豊丈)씨가 본회 회장에 취임, 기타 위원의 이동은 다음과 같다.

문경경찰서장 스기타 시나기치(杉田品吉, 신임), 청송경찰서장 도미다 가즈키(富田数喜, 신임), 의성경찰서장 오키 세고로(沖清五郎, 신임), 경산경찰서장 이와미 히사미쓰(岩見久光, 신임), 경주경찰서장 오카모토 슈이치(岡本修一, 신임), 봉화경찰서장 이노우에 시게루(井上茂, 신임), 예천경찰서장 나카니시 시게이치(中西重一, 신임), 경상북도참여관 김영진(金英鎭, 신임) 전 의성서장 다카하시 분지로(高橋文次郎, 사임), 전 청송서장 후루카와 쇼하치(古川庄八, 사임)

회원 성명(6)

△ 대구심상고등학교

나카지마 하루오(中島治雄), 요시가와 다이치(吉川太市), 모토야마 타쓰지(本山辰二), 후지모토 가즈오(藤本一男), 사쿠라이 요시카게(桜井美影), 마쓰모토 와타루(松本渉), 이와이즈미 진이치로(岩泉甚市郎), 이치가와 세기치(市川誠吉), 스미카와 노부마사(澄川信政), 오가타 다이지(緒方泰爾), 나카마키 야스요시(中槇保芳) 마쓰모토 쇼코(松本祥子), 구리하라 신이치(栗原眞一), 지카자와 후쿠(近澤福), 오타 가즈에(太田一江), 마사오카 아사에(正岡アサエ), 가와무라 치카미(川村智華美)

△ 영덕군

홍의식(洪義植), 요시미즈 요시오(吉水義夫), 도요나가 요시히코(豊永義彦) 후쿠모토 치카오(福元親雄), 정기모(鄭基模), 김종삼(金種三), 배진기(裴震基), 이창매(李彰玫), 방내진(方廼震), 김재성(金在聲), 마키에 아키하루(牧江明治), 김석봉(金錫鳳), 시마도모이치(島友一), 조윤기(趙允基), 야마모토 신기치(山本信吉), 가타야마 만시치(片山萬七), 서병소(徐炳昭), 김영한(金英漢), 홍세영(洪世榮), 남효읍(南孝揖), 이규학(李圭學), 신극영(申極永), 박정윤(朴正允), 오시마 코고로(大島幸五郎), 미마키 기치노조(三卷吉之丞), 신병용(申秉龍), 신응식(申應植), 김동연(金東淵), 스에나가 지로지(末永治郎次), 가사마쓰 요시기요(笠松由兵清), 최정노(崔鼎魯), 아리무라 기요시(有村清), 에모토 기이치(江本喜一), 강병규(姜秉圭), 아리무라 시게히코(有村繁彦), 다카하시 케이키(高橋經記), 우에노 가즈오(上野和夫), 전영차(楨英次), 서병근(徐丙根)

△ 봉화군

조경하(趙鏡夏), 우치다 다케하치(内田武八), 오타 이노조(太田猪三), 김숙진(金肅鎭), 권중환(權重煥), 권굉한(權宏漢) 김탁(金鐸), 김영수(金永水), 권상호(權相護), 강신국(姜信國), 정헌화(鄭憲和)

□ 3월 중 수입 보고 □

일금 923,150 총수입고

내역

금 5,000 광고 수입

금 1,250 잡수입

금 916,900 회비 수입

명세

관청명	지사 외 4명	비서과	문서과	지방과	사회과	권업과	농무과	토목과	회계과
금액	2,100	600	2,400	2,400	2,100	7,500	12,000	5,100	4,500

관청명	세무과	이재과	경무과	고등 경찰과	보안과	위생과	대구부	달성군	군위군
금액	3,300	,900	4,200	1,200	,300	2,100	4,500	22,200	17,400

관청명	의성군	안동군	청송군	영양군	영일군	경주군	성주군	칠곡군	김천군
금액	18,300	34,500	65,240	18,600	19,200	80,700	37,800	24,740	101,000

관청명	선산군	문경군	예천군	영주군	대구 경찰서	군위 경찰서	의성 경찰서	안동 경찰서	청송 경찰서
금액	40,000	13,020	30,000	3,400	8,700	29,100	14,320	17,620	10,440

관청명	영양 경찰서	영덕 경찰서	포항 경찰서	경주 경찰서	영천 경찰서	경산 경찰서	고령 경찰서	성주 경찰서	왜관 경찰서
금액	11,100	6,300	39,600	3,300	6,300	5,700	18,900	6,900	15,600

관청명	김천 경찰서	선산 경찰서	상주 경찰서	문경 경찰서	예천 경찰서	영주 경찰서	봉화 경찰서	울릉도 경찰서	대구 농학교
금액	6,600	25,800	6,900	19,080	16,200	13,200	10,800	12,000	2,400

관청명	상주 농잠 학교	대구 전매 지국	금융 조합 연합회	대구 금융 조합	달성 금융 조합	순사 교습소	토목과 안동 파출소	대구 토목조 합
금액	,600	13,500	900	2,100	,600	1,500	,900	,600

관청명	현풍 금융조합	대구곡물상조합	경북 구제회
금액	,600	2,100	1,500

1922년도 경북연구회비 세입 세출 결산 보고

세입

회비 수입	예산금 4,830원 결산금 4,215원
잡지 광고 수입	예산금 740원 결산금 452원 85전
행정청 보조금	예산금 1,000원 결산금 1,000원
잡수입	예산금 30원 결산금 28원 78전
세입 총계	예산금 6,600원 결산금 5,696원 66전

세출

편집 급료	예산금 1,050원 결산금 1,014원
잡급	예산금 150원 결산금 145원
일고지	예산금 30원

	결산금 32원 70전
띠종이	예산금 21원
	결산금 2원 25전
우편요금	예산금 63원
	결산금 0
잡지 송료	예산금 245원
	결산금 102원 61전
통신비	예산금 21원
	결산금 5원
잡지 인쇄비	예산금 4,625원
	결산금 3,550원
광고 소개료	예산금 185원
	결산금 117원 96전
잡비	예산금 85원
	결산금 66원 9전
예비비	예산금 125원
	결산금 0
세출 총계	예산금 6,600원
	결산금 5,035원 61전

세입 세출 차감 잔금 661원 5전

마츠모토 제작소(松本製作所)



반도 사회의 권위자
서양 가구 장식, 학교 용품, 체조용 기계, 이화학
(理化) 도구 제작 전문
저렴한 가격, 견고한 품질, 확실한 기일 준수는
저희 제작소의 특징

경성부 강기정(岡崎町) 현 용산구 갈월동의 일제
강점기 명칭으로 경성부 갈월리(葛月里) 일부를
강기정(岡崎町)으로 칭하였다.

93번
장(長)전화 : 용산(龍山) 155번
전화 : 용산 906번
대체 : 경성 6238번



대구곡물상조합

조선대구부 대화정 65번지

전화 : 648번
전화 : 668번



대구곡물 신탁특식 회사

조선대구부 대화정 65번지

히라사와 공무소



공장 대구부 대화정 81번지
사무소 북내정 23번지
전화 218번
일본, 서양 가구, 각종 운동기구 제조 판매부
건축설계부
관청, 학교, 가정 용구의 설계, 견적 환영
상담은 사무소로

고라상회(高羅商會)



각종 잠구 비료
각국 농산종자
농사용품 도구 기기
조선대구부동성정2정목

전화 : 345번
대체 계좌 경성 : 2985번

경북연구회 규약

제1조 본회는 경북연구회라 칭하며 조선의 시정 방침 및 지방행정 기타 제반 상황을 주지시키고 또한 회원 상호의 지식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회 사무소는 경상북도 도청 안에 둔다.

제3조 본회는 경상북도 관내의 관공리 및 본회의 취지에 찬성하는 자로 조직한다.

제4조 회원의 회비로 매월 금 삼십 전을 납부해야 한다.

제5조 본회에서 시행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지방 행정 기타 직무 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조사 연구하는 일
2. 잡지 '경북'을 발간하고 회원에게 배포하는 일.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강연 또는 의견 교환을 위한 회원의 집회를 열 수도 있다.

제6조 '경북'은 매월 5일 발행한다. 단 필요할 때는 임시 증간할 수도 있다. '경북'에 게재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시정 방침, 시사, 지방행정, 농상공 교육, 토목, 경찰, 재정, 경제, 금융, 학술, 기예 및 통계 등의 보도 및 논설
2. 조사 및 연구
3. 지방 사정
4. 법령 및 질의
5. 인사
6. 문예란
7. 해방란

제7조 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장 1명, 부회장 1명, 위원 약간 명, 간사 약간 명

제8조 회장으로서는 도지사를 추대하고 부회장, 위원 및 간사는 회장이 이를 촉탁한다.

제9조 회장은 연구회의 사무를 총리(總理)¹⁷⁸⁾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이를 대리한다. 위원은 중요한 사무를 평의한다. 간사는 사무를 관장한다.

제10조 각 연도 시행과 관련된 본회의 성적 및 서무 회계의 보고는 잡지 ‘경북’에서 발표한다.

잡지 『경북』(매월 1회 5일 발행 100페이지 내외) 1부 정가 35전

정가표		광고료	
개정	선금		1회 1페이지
6개월	1원 70전	보통	20원 상당
1년	3원 40전	특별	30원 상당
중간 및 증대호는 정가가 같지 않으므로 값이 부족할 때는 차액을 별도로 받는다.		1년 단위 및 3회 이상은 광고 요금을 할인하기로 하고 매번 광고 의뢰자와 의논한다.	

1923년 4월 3일 인쇄 납본

1923년 4월 5일 발행

제2년 제4호

발행인 경상북도 문서과장

대구부 상정(도청 앞)

인쇄인 시모이시 고야(下石幸也)

178) 사무를 통일 관리함.

조선 대구부 상정(도청 앞)
인쇄소 대구인쇄합자회사

조선 대구부 상정 경상도청내
발행소 경북연구회

[해제1]

잡지 『경북』의 역사적 가치와 1923년 4월호(8권) 내용 개괄

1. 경상북도 근대 도정 자료 『경북』의 역사적 가치

경상북도 근대 도정 자료 『경북(慶北)』은 1922년 9월에 창간되어 1925년 3월까지 간행된 월간지 형태의 공보잡지(公報誌)이다. 발행 주체는 당시 대구부(大邱府) 상정(上町)의 경상북도청 안에 있었던 경북연구회(慶北研究會)이다. 경북연구회 회장은 도지사가 맡았고 부회장은 부지사가 맡았다. 잡지 발행인은 경상북도 문서과장(文書課長)이었다. 『경북』은 발행 주체와 발행인 정보만 보더라도 일반 민간 잡지가 아니라 공적 목적으로 간행한 공보잡지였음을 알 수 있다. 권당 분량은 1922년 창간호(1권)만 약 80페이지이고, 1922년 10월호(2권)부터는 약 100페이지~150페이지에 이른다. 잡지 『경북』은 권당 분량과 내용 구성만 보더라도 당시 한반도 전체를 통틀어 유사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매우 이례적이다. 이 이례성은 자료가 지니는 중요성을 의미한다.

경상북도 근대 도정 자료 『경북』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높은 귀중 기록물이다.

첫째, 『경북』은 1945년 이전 한반도 전체의 12개 부(府)와 13개 도(道) 단위 지역, 달리 표현하면 현재의 광역자치체 단위에서 발간된 근대 행정 공보잡지 가운데 가장 빠른 사례에 해당한다. 경상북도가 근대 시기 전국 행정 공보잡지 가운데 가장 빠르면서

도 의미 있는 사례를 만든 것이다. ‘경상북도’라는 행정 단위 명칭이 탄생한 것은 1897년 광무개혁 시점이었다. 이때 경상북도는 수부(首府)인 대구군(大邱郡)을 포함한 41개 군 전체를 관장하는 행정 단위였다. 이후 경상북도가 현재와 같이 대구와 행정적으로 분리된 것은 1914년 부제(府制) 실시 시점이다. 조선총독부는 전국 12개 거점 도시를 부(府)로 지정하면서 13개 도(道) 단위 행정과 분리시켜 가는데, 경상북도는 이 과정에서 대구와 독립된 행정 체계를 처음 갖추게 된다. 이와 같은 근대 행정 조직 역사에 비추어 보면 1922년 시점에 경상북도가 근대 도정 잡지 『경북』을 창간한 것은 매우 적극적인 움직임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적극성이 역사적으로 최초인 동시에 매우 중요한 도정 기록물을 낳은 것이다.

1945년 이전 전국의 부(府) 혹은 도(道) 단위 행정 자료 발간 상황을 확인해 보면 경상북도가 간행한 근대 도정 자료 『경북』이 얼마나 선구적이었는지 잘 알 수 있다. 예컨대 경성부(京城府)는 1921년에 『경성휘보(京城彙報)』를 창간했지만, 분량과 체제가 월 1회 발간되는 신문 정도에 머물렀고 『경북』처럼 잡지 형태를 갖춘 것은 1925년 이후이다. 평양부(平壤府)의 『평양휘보(平壤彙報)』도 1922년 창간 시점에는 월간신문 형태였고 1931년이 되어야 월간잡지 형태로 간행되었다. 부산부(釜山府)도 1926년 7월이 되어야 잡지 『부산(釜山)』을 창간하고, 인천부(仁川府)는 1934년이 되어야 월간 『인천휘보(仁川彙報)』를 발행했다.¹⁷⁹⁾

둘째, 경상북도 근대 도정 자료 『경북』은 13개 도(道) 단위에서 월간 형태로 발간한 유일한 근대 도정 자료이다. 앞서 살펴본

179) 坂本愁一·木村健二 『近代植民地都市 釜山』, (桜井書店, 2007), p.58.

근대 시기 주요 지역별 행정 공보잡지 사례는 모두 부(府) 단위 지역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45년 이전에도 단위에서 근대 도정 자료를 월간 형태로 발간한 지역은 경상북도가 유일했던 것이다. 어떻게 경상북도만 이와 같은 근대 도정 자료 발간이 가능했는지는 조사와 연구가 필요한 대목이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경상북도가 당시 한반도 전체에서 가장 많은 조세 납부액을 내는 지역이었다는 점과 ‘경북연구회(慶北研究會)’라는 조직 체계 구성이 중요한 요소로 여겨진다. 해제 집필자의 전문 영역을 벗어나 확정은 어렵지만, 도지사가 회장을 맡고 부지사가 부회장을 맡아 관내 관공리를 가입시킨 ‘연구회’를 조직해 다양한 정보와 문화를 공유한 사례는 당시 도 단위 행정 기관에서 흔치 않은 사례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게다가 역사와 문화에 대한 소양을 갖추고 프랑스문학도 읽을 수 있었던 저널리스트 출신 전문 편집인을 고용해 행정, 경제, 산업, 통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 문화, 예술, 해외 정보까지 아우른 평균 100페이지 이상의 두툼한 월간지를 발간한 것은 21세기 대한민국에 적용해도 그 사례를 찾기 어려울 것이다.

셋째, 경상북도 근대 도정 자료 『경북』은 창간 시점도 매우 중요하다. 잡지 『경북』은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변화된 식민지 지배정책이 1920년대에 접어들어 전국 도 단위 행정 영역에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구체적이고도 다양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의 귀중 자료이다. 『경북』은 1922년 9월에 창간되었다고 소개했는데, 근대 도정 자료가 1920년대에 접어들어 간행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창간 시점은 역사적 이유와 맥락이 분명히 존재했다. 일본은 1910년 이후 본격적인 식민지 지배정책을 위해 조선총독부를 중심으로 중앙과 지방 단위 행정 조직을 새롭게

구축하기 시작했다. 그 첫 번째 중요 조치는 1914년의 부제(府制) 시행이었다. 이 시점에 행정 정책의 우선순위는 전국 12곳 부 단위 도시 지역의 행정 체계를 구축하는 것에 놓여 있었을 것이다. 시야를 넓혀 보면 1910년에 시작해 1917년 무렵에 마치는 토지조사사업 또한 1910년대 조선총독부의 최우선 정책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 이후 조선총독부는 1917년에 면제(面制)를 새롭게 시행하는데, 이 면제 시행은 부(府) 단위에 이은 도(道) 단위 행정 체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중요 조치였다. 토지조사사업이 완료된 1917년부터 새로운 면제가 시행되었다는 사실은 도 단위 행정 정책이 토지조사사업으로 구축·재편한 토지 소유에 기초한 세금 징수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음을 의미한다.

조선총독부가 1910년대에 진행한 위와 같은 정책은 ‘무단통치, 헌병경찰제도’와 같은 역사 용어가 상징하듯이 일방적이고 거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상황은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났다는 사실과 1920년대 접어들어 한반도에서 더 이상 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서 일본 본토로 이주하는 조선인 숫자가 일본 본토에서 식민지 조선으로 이주하는 일본인 숫자를 단숨에 따라잡는 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증언한다. 조선총독부도 1910년대 식민지 지배정책과는 다른 정책을 고민해야 했고 그 결과가 이른바 ‘문화통치’로 대표되는 정책 전환이었다. 물론 간과해서 안 될 것은 이 정책 전환이 1910년부터 본격화된 식민지 지배정책을 견지하는 동시에 오히려 부드럽게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이다. 이처럼 경상북도의 근대 도정 잡지 『경북』은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변화된 식민지 지배정책이 전국 도 단위 행정 영역에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구체적이면서도 다양하게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빠르면서도 유일한 귀중 자료인 것이다.

2. 경상북도 근대 도정 자료 『경북』 1923년 4월호(8권), 목차별 주요 내용

권두언

문화는 평화의 산물이라는 관점에서 쓴 글로, 한편으로는 평화가 가져오는 폐해, 문화의 음덕과 원천 등에 대해 다루고 있다.

회원 모두에 고함

이 글은 전임자 후지카와 리사부로(藤川利三郎)에 이어서 부임한 사와다 도요타케(沢田豊丈) 경상북도지사의 인사이자 제일성이다. 참고로 사와다 도요다케는 1923년 2월 24일부터 1926년 5월 12일까지 경상북도지사로 재임했다. 이름 앞 직함이 ‘경북연구회 회장’인 이유는 도지사가 경북연구회 회장을 맡았기 때문이다. 사와다 도요다케는 글 첫머리에서 신임 도지사로서 새로운 지식·정보 습득과 정보 공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이는 잡지 『경북』을 창간한 이유와 닿아 있는 부분이다. 사와다 도요다케가 이 글에서 또 하나 강조하는 것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정세 변화인데, 이는 일제강점기 상황과 관련해 3·1운동 이후 사상계 동향에 대한 언급으로 이어진다. 이 부분은 1923년에도 1919년 3·1운동의 여파와 영향을 예의주시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물품 공용론(상)

이 글은 노무라 겐지로가 작성한 물품회계 관리에 관한 논설로, 국가 혹은 단체의 재산 관리에서 물품 관리가 소홀히 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특히 민법에서의 물건 개념과 회계법규에서의 물품 개념이 서로 다름을 설명하면서 정부 소유의 기구, 기계, 비품, 소모품, 동물 등 모든 동산이 물품회계 규칙의 적용 대상임을 밝히고, 이를 다루는 관공리의 깊은 이해를 촉구하고 있다.

부석사 안양루 중창(重創) 연대에 대해서

조선총독부 고적조사과 촉탁이 쓴 이 글은 부석사 안양루의 중창 연대와 관련 기록을 정리한 것이다. 부석사는 신라 의상대사가 창건한 절로, 부석사에 있는 안양루 누각에 걸린 현판 뒤쪽에서 당시 사명대사가 쓴 중창기가 발견되어 현판에 새겨진 글의 내용을 분석하여 기존 고적조사보고서의 순치 원년(1644) 중창설이 잘못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사명대사의 친필로 된 이 기록은 부석사의 건축 연혁을 밝히는 중요한 자료로 제시되고 있다.

일본 농회론(1)

이 글은 타쓰노 분이치의 「일본 농회론」으로, 1922년 신 농회법을 배경으로 농회의 성격과 역할을 설명한다. 서론에서는 농회의 성립 과정과 일본 농정에서의 의의를 밝히며 구 농회법의 한계를 짚는다. 농회의 목적은 농업의 개량·발달이며, 지도·장려, 복리 증진, 연구·조사, 분쟁 조정, 기타 사업으로 세분화된다. 농회는 공법인으로서 법인격을 가지지만 영리사업은 금지되며 영리 여부는 객관·주관 양면에서 판단된다. 또한 농회는 행정청에 건의할 수 있고 행정청은 자문이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글은 농회의 제도적 틀과 법적·행정적 기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대구부 소재의 각 청(廳)과 세비

이 글은 대구부 소재 각 관청이 얼마의 세비를 취급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것이다. 조선총독부 특별회계는 일본 정부로부터의 보조금을 줄이고 독립재정을 마련하려는 방침 아래 운영되었으며 표를 통해 경상북도청, 대구부청, 대구감옥, 대구법원, 대구우편국 등 주요 기관의 세입·세출 금액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이를 통해 대구부 소재 각 청의 재정 상황이 조선총독부 특별회계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경주군 제지 개황

경북에서 1위를 점하고 있는 경주군의 제지에 관한 글이다. 퇴보하던 제지업이 총독부의 신정(新政)이 시작된 이후 각종 개량 정책 덕분에 생산이 증가하였음을 강조하고 구체적인 개량 시책들, 생산액과 판매 상황, 제지 종류 등에 관한 설명 및 통계 수치를 보여준다.

독행자 및 우량 부락(상)

이 글은 1922년 경상북도 농회가 추진한 ‘독행자(篤行者) 및 부락(部落) 표창 사업’의 사례 기록이다. (상)에서는 산업 발전에 공헌한 개인을 ‘독행자’로 선정해 표창하고, 이들의 생애와 업적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농민 계몽과 지역 발전을 이끈 모범 사례로 제시하였다.

경주와 교재 연구(2)

앞 호에 이어 보통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신라 건국 설화를 다

루고 있으며 탈해 이사금 전설을 중심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및 삼국유사의 기록을 인용하여 다파나국에서 알로 태어난 탈해왕의 기원을 서술하고 관련 유적을 소개하고 있다.

제3회 도평의회

이 글은 1923년 3월 12일부터 3월 21일 기간에 경상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경상북도 도평의회 회의록 성격의 기록이다. 도평의회(道評議會)는 별도 해제에 적었듯이 일제강점기에 존재한 부협의회, 면협의회, 도회, 부회, 읍회와 함께 지방행정 최고 기관인 도에 설치된 지방의회이다. 도평의회는 1919년 3·1운동 상황, 당시 일본 본토의 ‘다이쇼 데모크러시’ 상황,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민족자결주의’ 주창 등의 상황과 맞물려 1920년에 지방자치를 지향하면 탄생한 의회 조직이다. 이를 계기로 1920년대에는 ‘자치운동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그런데 본 권에 수록된 경상북도 도평의회 기록은 한반도 전체의 도평의회 기록 가운데 가장 상세한 기록으로서 매우 귀중한 역사 자료이다. 본 권에 수록된 제3회 경상북도 도평의회는 제1일 3월 12일, 제2일 3월 13일 이틀 평의회 내용이고, 이후 평의회 내용은 연재 형태로 이어진다. 본 권 제1일 및 제2일 회의는 신임도지사 인사, 의원 변동 상황 보고 등에 이어서 도평의회의 역할에 해당하는 도지방비에 관한 자문으로서 세입출예산, 교육, 위생, 사회개량 시설, 토목, 도장세(屠場稅) 및 시장세 관련 예산 및 질의응답이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독행자 및 우량 부락(하)

(상)에 이어 (하)는 개인에 대한 표창과 함께 ‘부락(部落)’, 즉 마을 단위의 집단 공로를 표창한 사례 기록이다. 1922년 경상북도 농회는 마을 단위의 협력과 개선 성과를 ‘우량부락’으로 표창하며, 농사개량조합 조직, 사방공사, 품종 개량, 저축 운동 등 집단적 노력의 성과를 모범 사례로 기록하였다.

1923년도 세입출 예산

제3회 도평의회 자문 결과, 만장일치로 가결 확정되었다는 1923년도 지방비 세·입출 예산액에 관한 통계자료이다. 참고로 세입 경상부(經常部)에서 가장 큰 것은 지방비였고 세출 경상비의 경우는 권업비였다.

경북 종이와 일본

현저한 발전을 보이고 있는 경북의 제지업에 관한 글로, 최근 경산군 용성면 송림동에서 생산한 개량 한지를 시험삼아 일본으로 보낸 결과 상당히 좋은 평가를 거둔 것과 향후 수출에 대한 기대감을 표하고 있다.

청송 도기조합 설치

청송군 부동면에서 생산되는 고령토가 도자기 원료로 쓰기에 품질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재래 제조법 때문에 질이 형편없음을 지적한다. 그 개선책으로 도기개량조합이 만들어져서 향후 제조법 개량, 판로 확장, 사업 자금 융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의성 이외 4개 군의 산물 품평회

의성군에서 군위, 안동, 청송, 영양군과 연합하여 개최될 물산 품평회에 관한 글로 농산품, 원예품, 잠업품, 축산품, 임산품, 공산품, 참고품과 같은 8개 부문 및 각 세부 품목에 대한 내용을 실고 있다.

제지 강습회 종료

1922년도에 개최된 제지 강습회에 관한 글로 대상 지역은 주요 생산지인 영덕, 영일, 경주, 경산, 청도, 김천이었다. 강습 내용 및 강습 인원, 참관한 제지업자들의 수를 나타내고 있다.

봉화군 사치에서 근검으로

봉화군 내성면에서 선전 노래를 인쇄하여 지방개량에 힘쓰고 있다는 글로, 노래 내용은 근검 사상을 고취하는 것으로 유흥을 멀리하고, 납세의 의무를 다하며, 근면 성실, 사치를 경계하는 것과 같은 것들이다.

서임사령

1923년 초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조선총독부가 집행한 인사 명령을 모아둔 행정 인사 자료이다. 1923년 1월부터 2월 사이 조선총독부와 경상북도 관할 행정기관에서 내려진 서임(敍任), 휴직, 면직, 급여 지급 등의 명령이 일자별로 정리되어 있으며, 사무관·서기·군속·도속·기술사·기수 등 다양한 직위의 임명, 봉급 등급, 근무지 배정, 청원 면직, 보상금 지급 및 사망 처리 등이 함께 기록되어 있다.

산업 계획 요강(승전)

앞 호에 이어지는 글로 임업, 수산, 상공업, 부업, 실업교육 및 실과교육 시설, 산업 지식 보급 향상, 산업 자금, 교통에 관한 사항을 들고 있다.

글릭 박사의 강연

국제 친화회 주최로 대구부 상정(上町) 조선은행 지점에서 열린 시드니 루이스 글릭(Sidney Lewis Gulick, 1860-1945) 박사의 강연회에 관한 글이다. 미국기독교회 동맹의 사자로 대구에 온 글릭 박사는 ‘무전쟁 세계평화 운동가’로, 강연은 캘리포니아 주의 일본인 이민 배척법을 비판하고 미일 우호를 주장하는 내용이다.

경상북도 명문가와 왕년의 흥학 (승전)

1923년 1월호(5권)에 이어 이번 호에서는 경상북도를 대표하는 인물(퇴계 이황과 유성룡)의 전기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다. 전기에는 두 사람의 내력과 역임한 관직, 배출한 문하생들의 이름과 인물평이 주로 서술되어 있다. 또 전기 이외에도 경상북도에 소재한 서원과 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경상북도가 배출한 저명한 인물 총 104명의 인물 정보를 싣고 있다.

[해제2]

일제의 지방의회 제도와 경상북도 도평의회

최범순

잡지 『경북』 1923년 4월호(8권) 「회보」란에 총 14페이지에 걸쳐 길게 게재된 제3회 경상북도 도평의회 기록은 필자가 해제 집필을 위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한반도 전체의 도평의회 기록 가운데 가장 상세한 기록으로서 매우 귀중한 역사 자료이다. 일제강점기 지방의회 가운데 도평의회 내용은 주로 신문 기사나 기타 간접 자료를 통해서 주요 내용만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본 호에 게재된 도평의회 기록은 속기사가 기록한 것을 빠짐없이 정리-수록했기 때문에 도평의회 식순, 주요 의제, 의제를 둘러싼 논박과 질의응답 등의 상황을 구체적이면서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는 매우 귀중한 기록에 해당한다. 달리 말하면 잡지 『경북』은 일제강점기 도평의회 연구에서 매우 귀중한 기록 자료를 수록하고 있는 셈이다.

본 해제는 잡지 『경북』 1923년 4월호(8권)에 게재된 제3회 경상북도 도평의회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도평의회’는 무엇이고, 어떤 과정에서 탄생했으며, 그 역사적 의미와 한계는 무엇이었는지 등을 확인한 후 경상북도 도평의회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도평의회는 1923년 4월 시점을 기준으로 불과 몇 해 전인 1920년에 새롭게 탄생한 일제강점기 최초의 지방의회 기관이었다는 점에서 경상북도의 경우에 앞서 도평의회를 포함한 일제강점기 지방의회 자체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1. 일제강점기 지방의회 제도와 도평의회의

도평의회(道評議會)는 일제강점기에 존재한 부협의회(府協議會), 면협의회(面協議會), 도회(道會), 부회(府會), 읍회(邑會)와 함께 지방행정 최고 기관인 도(道)에 설치된 지방의회이다. 1920년대에는 ‘도평의회’였다가 1930년대 지방제도 개편에 따라 ‘도회’로 명칭과 기능이 바뀌었다. 일제강점기에 존재한 지방의회(도평의회, 부협의회, 면협의회, 도회, 부회, 읍회)는 각 지방행정 단위에서 조선인과 일본인들로 구성된 의원들이 지방행정의 자문과 예산 심의 및 기타 행정 관련 자문 및 의결을 수행한 기구였다.¹⁸⁰⁾

도평의회를 포함한 일제강점기 지방의회에서 가장 먼저 주목할 부분은 그것이 1919년 3·1운동 직후에 설치된 대목이다. 즉 일제강점기 지방의회 제도 탄생은 3·1운동이라는 독립운동, 혹은 현재 관점에서 보면 민주주의 운동이 가져온 변화였다. 달리 말하면 3·1운동과 같은 독립운동, 민주주의 운동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도평의회를 포함한 지방의회 제도는 시행되지 않았을 수 있다. 식민지 지배 통치 기구였던 조선총독부 입장에서 보면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상황에서 굳이 지방의회를 설치했을 가능성은 낮다. 이 점에서 도평의회를 포함한 지방의회 탄생은 3·1운동이 얻어낸 하나의 성취라고 평가할 수 있다. 물론 3·1운동이 성공한 독립운동이 되지 못했기에 도평의회를 포함한 지방의회 또한 일본 본토와 달리 한계와 차별이 분명했던 것도 사실이다.

3·1운동 직후인 1920년에 도평의회를 포함한 지방의회가 한반도에 설치된 것은 세계적인 상황, 일본 본토 상황 등과 맞물린

180) 동선희(2005) 『日帝下 朝鮮人 道評議會·道會議員 研究』,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 논문, p.2.

측면이 있다. 즉 1920년 일제강점기에 탄생한 한반도의 지방의회는 글로컬(glocal)한 상황이 상호작용한 결과이기도 하다. 먼저 글로벌한 맥락에서 보면 일제강점기 지방의회 탄생은 1차 세계대전(1914~1918) 이후 주창된 ‘민족자결주의’와 맞물린 측면이 있다. 미국의 윌슨 대통령은 프랑스 혁명의 사상적 기반이었던 인간-개인의 기본권 사상에 입각한 ‘민족자결주의’를 주창하고 1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연합국 대표들이 파리에서 모여 논의한 평화조약 석상에서도 ‘평화 원칙’ 형태로 발표했는데, 일제강점기 한반도에 설치된 각급 지방의회는 이러한 세계적 흐름과 무관하지 않았다. 3·1운동 또한 이러한 세계적 상황과 맞물려 있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실질적 한계와 일본 본토와 다른 차별적 시행 문제와는 별도로 일제강점기 한반도에 탄생한 지방의회는 최소한 제도적-사상적으로는 프랑스 혁명 및 민족자결주의에 담긴 공화제와 민주주의 이념과 연결되는 측면이 있다. 1920년대 일제하 조선인 사회에서 ‘자치운동론’이 중요한 어젠다로 대두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일제강점’이라는 억압 상황에서도 한반도는 전세계적인 평화 움직임 및 민주주의 흐름과 접촉하면서 3·1운동과 이후 자치운동론을 펼쳤던 것이고, 조선총독부도 3·1운동 경험과 맞물려 제한적으로나마 지방의회 제도를 시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1920년에 일제강점기 한반도에서 도평의회를 포함한 지방의회가 탄생한 것은 일본 본토에서 일어난 ‘다이쇼(大正) 데모크러시’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다. 1912년부터 1926년까지 이어진 일본의 다이쇼(大正) 시대는 참정권 확대를 주장한 ‘보통선거운동’¹⁸¹⁾을

181) 일본의 ‘보통선거운동’은 1890년에 처음 실시된 제국의회 개설을 위한 최초의 근대 선거가 세금 납부액과 성별을 기준으로 당시 일본 전국민의 1% 정도의 극소수에만 한정된 선거였던 것을 문제삼으면서 참정권 확대 운동

중심으로 천황이 제국헌법에서 차지하는 절대적 위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천황기관설’, 여성과 어린이의 인권을 주장하는 움직임, 여전히 존재했던 천민 출신 피차별민 차별 금지 운동 등을 포함한 민주주의(democracy) 운동이 일본 국내에서 확산되었던 시기인데, 일제강점기 한반도의 지방의회 탄생도 바로 이와 같은 일본 본토의 다이쇼 데모크러시 상황과 연결되는 맥락이 있다. 즉 식민지 지배국 일본 본토에서 일어난 민주주의 움직임은 일제 강점 상황에 있던 한반도에 제한적이고 차별적이거나 지방의회 제도를 시행하게 만드는 분위기를 낳은 것이다. 예컨대 1921년에 일본 우익단체로 꼽히는 흑룡회 계열의 조직인 동광회(同光會) 조선총지부가 「내정독립청원서」를 일본 의회에 제출하려는 운동을 벌였다가 강제 해산당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 또한 일본 본토에 대한 ‘독립청원’이라는 측면에서 3·1운동 이후 조선인 사회에서 대두된 ‘자치론운동’과 최소한 이론적-이념적 맥락은 맞닿아 있었다. 또한 조선총독부를 포함한 일본인 진영에서 3·1운동 이후 대응책 차원에서 참정권 부여론, 자치제 실시론 등이 거론되었고 그 결과가 바로 1920년의 지방의회 설치였다.¹⁸²⁾

도평의회를 포함한 일제강점기 한반도의 지방의회 탄생이 위와 같이 1차 세계대전 이후 전세계적인 맥락, 다이쇼 시대 일본 본토의 상황,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반도의 3·1운동 등과 다양하고 중층적으로 맞물린 측면이 있다고는 해도 ‘일제강점’이라는

을 펼치는 과정에서 특히 1912년~1926년 기간의 다이쇼 시대에 전개된 참정권 운동이다. 다이쇼 시대 참정권 운동의 결과 1925년부터 성인 남성 모두에게 참정권을 부여한 보통선거법이 실시되었다. 한편 이 보통선거법 직전에 일본 정부는 보통선거를 둘러싼 민주주의 운동 등을 탄압하기 위한 ‘치안유지법’을 만들었다.

182) 한국사데이터베이스 『국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운동』, p.45.

URL:<https://db.history.go.kr/diachronic/level.do>.

현실 상황은 지방의회 제도를 형식적으로는 수용하되 실질적으로는 많은 한계와 차별을 지닌 형태로 시행되도록 만들었다.

본 해제가 대상으로 설정한 도평의회를 포함한 지방의회는 역사적으로 보면 지방자치의 출발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당시 지방자치는 매우 제한적이고 차별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¹⁸³⁾ 이러한 한계와 차별이 명확히 드러나는 대목은 1920년 7월 29일 지방제도 대폭 개정과 1920년 10월 1일 법령 개정으로 설치된¹⁸⁴⁾ 일제강점기 한반도의 지방의회가 의결권이 없는 자문기구였다는 점이다. 참고로 일본 본토의 지방의회는 의결 기구였다. 이후 1930년에 또 한 번의 중요한 지방제도 개정과 함께 1931년의 제령 발표와 1933년의 도제 시행으로 기존의 도평의회는 도회(道會)로 되고, 자문기관에서 의결기관으로 바뀌지만 도지사가 1/3을 임명하고 나머지 2/3도 부회의원, 읍회의원, 면협의회 회원의 간접선거로 구성했기 때문에 지역 구성원 모두 참여하는 보통선거가 아니라 권력기관의 체제 유지를 위한 제한선거에 기초한 기관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는 못했다.¹⁸⁵⁾

183) 박찬승(2022) 「1920·30년대 식민지 조선·대만에서의 지방제도 개정 비교」, 『동아시아문화연구』 제89집, pp.113~114.

184) 조성호(2025) 「일제강점기의 행정보조형 주민자치 : 도평의회」, 『주민자치』 vol.159, p.123.

185) 한국사데이터베이스 『문화정치와 수탈의 강화』, pp.33~36.
https://db.history.go.kr/download.do?levelId=nh_048_0020_0010_0020_0020&fileName=nh_048_0020.pdf#page=18.

2. 도평의회 역할 및 조직과 1920년대 경상북도 도평의회

조선총독부가 1920년에 지방제도 개정 일환으로 새롭게 제정한 ‘조선도지방비령(朝鮮道地方費令)’은 도평의회가 설립된 더욱 구체적인 배경이자 도평의회의 역할을 규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도평의회는 도지방비에 관한 자문기관으로 설치된 것이다. 도지방비는 재산수입 및 부과금을 재원으로 하여 권업, 토목, 구휼, 위생, 교육, 소방 및 기타 지방의 공공사업을 행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로서 도의 독자적인 재정이었다.¹⁸⁶⁾ 도지방비 관리 주체는 도지사였고 관련해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도평의회가 설치되었던 것이다.¹⁸⁷⁾ 도평의회가 이와 같은 배경에서 탄생했기 때문에 그 역할은 주로 도지방비 세입출 예산안에 대한 자문에 집중되었다. 도평의회 자문 사항은 세출예산의 결정, 지방세·사용료·수수료, 부역 현품의 부과 징수에 관한 것 등이었다. 하지만 자문기관은 행정에 대한 규정력 및 강제력은 없었다. 그야말로 행정에 대한 보조적 역할을 수행했을 뿐으로 실질적인 권한은 없었다. 이 점에서 일제강점기에 도평의회를 포함한 지방의회는 조선인 상류층과 자산가를 식민지 권력에 끌어들여려는 수단으로 기능한 측면도 있다.

이러한 가운데 평의원의 관심을 집중시킨 것은 세출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주로 의원의 선출 지역과 직접 관련이 있는 토목비, 권업비, 교육비 항목이었다. 이 예산 항목은 모두 선출된 지역의 이해관계 및 민족적, 산업적 이해와 중첩된 항목이었다.¹⁸⁸⁾ 예산 비중이 가장 높았던 것은 교육비와 토목비였

186)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위와 동일.

187) 조성호(2025), 앞의 논문, p.123.

188) 전성현(2014) 「일제시기 도평의회와 지역」 『韓日民族問題研究』, p.57.

다. 특히 조선인 평의원들은 ‘보통학교 1면 1교’ 완성과 도내 중등학교 설치를 비롯하여 해당 지방의 학교 및 교육 시설의 신설, 유치, 증설 등 교육 시설 문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했다.¹⁸⁹⁾ 이 밖에 도평의회는 도 당국의 자문안에 대한 심의뿐만 아니라 도지방비령 규정에 따라 도의 공익에 관한 사안에 대해 건의안을 제출할 수 있었고, 각 의원이 제출한 건의안은 공식적으로 도평의회 의결을 거쳐 매회 도지사의 도치(道治)에 참고 자료가 되었다.¹⁹⁰⁾

도평의회 의원의 2/3는 도내 각 부·면협의회가 선거를 통해 추천한 후보자를 도지사가 임명해 구성했고, 나머지 1/3은 도지사가 도내 ‘학식이 유망한 자’ 가운데 임명하였다. 평의원 후보자는 1년 이상 도 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고 독립된 생계를 영위하는 연령 25세 이상의 남자로서 연간 5원 이상의 세금을 납부한 자로 제한하였다. 선거권과 피선거권 기준인 지방세 5원은 당시로서는 상당한 고액이었기 때문에 고액 납세자들에게만 부여된 제한선거였으며 이는 조선 거주 일본인의 의회 진출을 위한 장치이기도 했다.¹⁹¹⁾ 피선거권자는 소속 도와 부의 관리, 유급 관원, 검사 및 경찰관리, 종교인, 소학교 및 보통학교 교원을 제외한 자였다. 이와 같은 도평의회 의원 구성과 자격요건을 보면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지방의회 기관이기는 해도 그 한계가 분명한 조직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한계는 의장인 도지사에게 부여된 권한을 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도평의회 의장은 도지사이고 의장은 자문회의를 소집할 권한과 더불어 의원에 대하여 발언 금지, 취소, 회의장 밖으로의 퇴거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또한 도평의회 구성원이 직무에

189) 전성현(2014), 위 논문, p.63.

190) 전성현(2014), 위 논문, p.58.

191)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위 (2)와 동일.

태만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총독의 인가를 받은 도지사가 해임할 수 있었다. 도지사는 1910년대 도장관(道長官) 시기에 지방통치에 관한 입법, 행정, 사법권을 전유하고 해당 지방 주둔군의 출병 요구권도 갖는 ‘소총독(小總督)’이라 불릴 만한 지위와 권한을 장악하고 있었다. 그리고 1920년 관제 개정으로 보통경찰제가 실시되면서 도 경무부도 도지사 관할 아래 놓이게 되었다. 도지사는 앞선 세 가지 권한에 더해 경찰권도 장악한 것이다. 이와 같은 조직 체계 및 구조에서 탄생한 도평의회는 형식적으로 지방자치 기관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의결권이 없는 자문기관이었고 도지사의 막강한 권한 아래 놓여 있었던 것이다.

경상북도는 도평의회원 숫자 측면에서 경기도와 더불어 전국에서 가장 많은 37명으로 구성되었다. 참고로 다른 지역의 도평의회 의원수는 경기도 37명, 전라남도 34명, 경상남도 33명, 강원도 31명, 평안북도 30명, 황해도 27명, 함경남도 25명, 충청남도·전라북도·평안남도 각 24명, 충청북도·함경북도 각 18명이었다. 의원의 임기는 3년이었는데 제1기 평의원 임기가 연장되면서 제2기 의원 선출은 1924년 4월 10일에 진행되었다.¹⁹²⁾ 첫 도평의회원 선거는 1920년 12월 10일을 기해 한반도 전체에서 실시되었고 경상북도도 이에 맞추어 첫 선거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지역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도평의회가 가장 기본적인 역할인 도지방비 세입출 예산 자문을 위해 이듬해 1921년 3월 중에 제1회 도평의회가 개최되었다. 본 호에 게재된 제3회 경상북도 도평의회가 1923년 3월 12일~21일 기간에 10일 동안 개최된 것은 바로 위와 같은 과정의 연속선 위에 있었다.

동선희(2006)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1920년 12월의 첫 선거 이

192) 전성현(2014) 해당 부분 제시

후 도평의회와 도회의 의원으로 참여한 조선인은 총 1,370여명이었다. 이 가운데 본 해제의 대상 시기가 되는 1920년대 경상북도 도평의회 조선인 의원 현황은 다음과 같다.

임기	관선 민선	의원명(지역)	비고
1920	관선	李範淑(김천) 姜浚(봉화) 徐丙朝(대구) 柳時一(안동) 金承源(문경) 韓翼東(대구)	6/12
	민선	文明琦(영덕) 權相善(봉화) 李愚稷(선산) 李正勳(경산) 金普榮(영주)	22/25 ¹¹⁾
1924	관선	權台淵(안동) 申鳳均(군위) 李鴻(의성) 尹聖河(청송) 崔浚(경주) 孫秉圭(경주) 李庭禧(청도) 金龜鉉(고령) 趙寅錫(영양) 鄭南燮(예천) 錢澤洙(문경) 裴相淵(성주) 金思一(칠곡) 徐相俊(영일) 鄭煥澈(영천) 趙南倬(상주) 徐世允(달성) 張基生(예천) 張稷相(칠곡)	
	민선	徐丙朝(대구) 柳時一(안동) 金龜鉉(고령) 禹象學(김천) 秦喜葵(달성) 鄭海鵬(대구) 李章雨(대구)	6/12 ¹²⁾
1927	관선	文明琦(영덕) 申鳳均(군위) 尹聖河(청송) 金翰殷(경주) 鄭在奭(상주) 李宣鎬(안동) 權台淵(안동) 柳廷洛(경산) 金振玉(달성) 李鉉敏(영양) 金明玉(청도) 李憲昌(고령) 朴贊東(성주) 金世東(선산) 姜國元(영주) 權奇夏(예천) 張稷相(칠곡) 李鍾(영천) 琴瑞淵(봉화) 趙南倬(상주)	4/12
	민선	徐丙朝(대구) 文明琦(영덕) 秦喜葵(달성) 金在煥(대구) 申鳳均(군위) 裴相淵(성주) 李宣鎬(안동) 權奇夏(예천) 崔錫煥(경주) 鄭佑柱(경산) 吳熙台(영양) 徐錫台(달성) 朴允余(영일) 朴淳炳(청도) 金秉圭(의성) 金武鉉(영천) 權泰泳(영주) 沈相光(청송) 李潤大(봉화) 金順漢(영덕) 洪在淑(김천) 鄭雲奭(고령) 鄭東洙(상주) 崔潤(경주) 李愚震(선산)	21/25
1930	관선	徐丙朝(대구) 李宣鎬(안동) 金在煥(대구) 安炳吉(경산)	4/12
	민선	鄭雲奭(고령) 金焯(군위) 張斗奎(영주) 姜敬熙(봉화) 金鍾昊(경산) 李鉉覺(영양) 朴寅洙(상주) 權賢燮(안동) 朴芝永(달성) 文明琦(영덕) 孫炳鑑(영천) 李基承(성주) 李炳稷(문경) 李庸鉉(예천) 李鍾玉(청도) 趙鳳來(김천) 沈相完(청송) 洪思翊(선산) 金斗河(영일) 吳國泳(의성) 崔潤(경주)	21/25

위 표는 1923년 4월호(8권) 잡지 『경북』이 발간된 시점의 제1기 경상북도 도평의회 조선인 의원 명단과 더불어 이후 1920년대에 이어진 제2~4기 도평의회 조선인 의원 명단까지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도평의회 의원은 관선과 민선으로 나뉘어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관선은 도지사가 임명한 의원이고 민선은 그야말로 선거로 선출된 의원이다. 경상북도 도평의회

의원수는 앞서 확인했듯이 총 37명이었고 이 가운데 1/3에 해당하는 12명은 도지사가 임명하고 나머지 2/3에 해당하는 25명은 민선으로 선출되었다. 수치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관선 의원의 경우 제1기, 제2기에는 조선인 의원이 50%를 차지했다가 제3기, 제4기에는 30%로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3·1운동 직후 민심 수습 차원에서 도지사가 조선인 의원을 절반 정도 임명하다가 1920년대 후반이 되면 줄여 나갔음을 확인시켜 준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민선의 경우 전체 도평의회 의원 가운데 조선인 의원이 약 85%를 차지한 대목이다. 이는 일본인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던 부협의회 의원의 민족별 구성 비율과 차이가 나는 도평의회 의원 구성의 특징적인 측면이기도 한데, 이 점에서 도평의회는 도지사 입장에서 부협의회와 달리 상대적으로 걸끄러운 장(場)이었을 것이라는 추측도 가능하게 한다. 앞서 언급한 도지사, 즉 도평의회 의장의 강한 권한은 어쩌면 이러한 장을 컨트롤하기 위한 억제 장치였다고도 할 수 있다.

3. 잡지 『경북』 수록 제3회 경상북도 도평의회 기록과 그 중요성

본 호 1923년 4월호(8권) 잡지 『경북』에 게재된 제3회 경상북도 도평의회 기록은 해제 첫머리에서 강조했다듯이 일제강점기 도평의회 식순, 주요 안건, 안건별 논박 및 질의응답 상황을 구체적이면서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기록으로 여겨진다. 잡지 『경북』이 1922년 9월에 창간되었기 때문에 1921년 3월과 1922년 3월에 있었던 도평의회 상황을 본 호와 같이 상세하게 확인할 수 없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후지카와 리사부로 경북 도지사 훈시 게재 『매일신보』 기사.
1922. 3. 15. 4면〉

이러한 가운데 1922년 3월 15일 『매일신보(每日申報)』 기사는 제2회 경상북도 도평의회 상황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을 게재하고 있다. 예컨대 해당 기사는 도평의회에서 후지카와 리사부로(藤川利三郎)가 내린 훈시 내용을 가장 비중 있게 다루었는데, 훈시는 3·1운동 이후 “협약했던 민심이 점차 안정되었다”는 말로 시작하고 있다. 이어서 후지카와 리사부로 도지사는 파리에서 열렸던 ‘평화회의’도 언급하면서 회의 내용 가운데 동양 평화와 관련된 내용을 당시 일본 제국주의 입장에서 해석해 해당 회의가 “불량배, 불온한 계획을 도모하려던 자들도 단념하게 만들었다”고 전하고 있다. 이러한 후지카와 리사부로 도지사의 훈시는 도평의회가 3·1운동에 대한 대응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동시에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1922년 시점에도 여전히 3·1운동 이후 상황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던 당시 상황을 전해준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도지사의 훈시는 이어서 교육 문제가 가장 현안이라고 언급하면서 교육령의 ‘일시동인(一視同仁)’주의가 있지만 교육과정 및 단계에 따라 조선인과 일본인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에서 “보통학교 및 고등보통학교는 별도 교육, 실업교육 및 전문교육은 함께 교육하는 방침”을 전하면서 그 이면에 있는 조선인의 향학열 상황과 학교 및 학급 증설 등을 언급하면

서 마무리하고 있다. 이처럼 제2회 경상북도 도평의회를 전하는 1922년 기사는 도평의회 안건과 의제보다도 도지사의 훈시를 가장 비중 있게 게재했다는 점에서 도평의회가 실제로 어떻게 기능했는지를 전해주는 기사이기도 하다.

잡지 『경북』 1923년 4월호(8권)가 전하는 제3회 경상북도 도평의회 기록은 제일 첫머리에서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기 시작한 경상북도 도평의회 상황을 언급하면서 시작한다. 해당 내용은 “올해는 특히 시대 상황의 요구를 고려해 종래의 신문 잡지 기자 및 통신원에게만 한정했던 회의 방청 허가 범위를 확대해 평의회원이 소개한 일반 방청 희망자를 매일 10명에 한정해 입장하도록 허가했다”는 것이다. 관련해서 흥미로운 것은 경상남도 도평의회에서는 제1~2회 도평의회가 비공개로 진행된 것에 불만이 제기되면서 제3회 도평의회부터는 회의를 공개하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상황은 제3회 도평의회 일반 방청객 입장 허용 상황과도 맞물린다. 한편 1922년 2월 8일자 『동아일보』의 「도평의회 방청금지」라는 기사는 전년도 제1회 경상북도 도평의회와 관련해 “도지사가 비밀회의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신문기자를 방청하게 하여 문제가 되는 등 운영상의 미숙을 드러냈다”고 적고 있고, 1921년 3월 10일자 『조선시보(朝鮮時報)』 기사는 “도평의회가 조선인의 자치 사상의 시련(試鍊)에 이바지하고 있는 동시에 지사의 시련 시대”라고 적고 있는 것을 보면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한계와 차별적 시행이 분명한 것과 동시에 3·1운동에 대한 대응책 차원에서 시행된 도평의회를 포함한 일제강점기 지방의회가 조선총독부와 각 도·부 단위 위정자들에게 그렇게 편안하지도 않은 장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도평의회”의 구체적인 운영 및 심의 과정은 선출된 지역과 조선인 또는 일본인

의 몫을 요구하는 ‘정치적 장’이었으며, 이 때문에 제국과 식민지 간, 일본인과 조선인 간, 도회와 농촌 간, 어촌과 산간 지역 간 협력과 연대는 물론 갈등과 불화가 발생”¹⁹³⁾하기도 하는 장이었음을 알 수 있다. 1929년 경상남도 도평의회가 도 당국의 예산안을 되돌려보내 다시 자문을 요구한 ‘예산안 반상사건’은 도평의회에 대한 다양하고 중층적인 이해 필요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점에서는 도평의회를 포함한 1920년의 지방의회가 3·1운동이라는 독립 운동이자 현대적 의미의 민주주의 운동에서 비롯되었고, 시야를 넓혀보면 당시 일본 본토와 더불어 전세계적으로도 1차 세계대전 이후의 평화 담론과 더불어 민주주의적 자치권 논의가 활발했던 상황을 다시 떠올릴 수 있다. 제3회 경상북도 도평의회부터 일반 방청 희망자를 한정 입장시키기 시작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실제로 잡지 『경북』 1923년 4월호에 게재된 제3회 경상북도 도평의회 상황을 보면 대구의 대표적 일본어 신문인 『조선민보(朝鮮民報)』 사장 가와이 아사오(河井朝雄)가 시장세 관련 안건을 둘러싸고 저널리스트라는 직업적 특색도 더해져 도 당국자와 긴장감 넘치는 논박을 주고 받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점에서 경상북도 도평의회는 84%라는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는 경상북도 각 지역별 조선인 의원들의 면모까지 포함해 여러모로 살펴볼 것이 많은 정치 장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와 같은 도평의회 의 생동감 넘치는 상황을 현대 감각으로 표현하자면 실황 중계하는 것과 같은 감각으로 상세히 기록한 잡지 『경북』의 도평의회 기록은 경상북도에만 한정되지 않고 일제강점기 도평의회를 구체적이면서도 다양하게 이해하고자 할 때 매우 중요한 기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193) 전성현(2014), 앞의 논문, p.65.

慶尙北道評議會

第三日目—質問戦に賑ふ

慶北道評議會第三日目(十四日)は午前十一時開會前日に引續き諮問第一號豫算歲出の中土木費に就て討論に入り三十四番(盈徳)文明琦氏發言臨時經常部の中港灣費に就て質問昨年産業

諮問會に 於て決議したる盈徳郡江口築港問題に就て貧弱なる江口に於ては期成の會を組織して同時に五萬圓の寄附を集めて本問題の達成に努めむとして居るのに甘浦及び九龍浦のみ豫算に計上し江當口は一向見ないやうであるが如何なる譯である當局の方針を承はらないと質し谷土木課長は當局としては決して閑

補助中に 浦項水道敷設補助費二萬圓六個年間に十萬五千圓宛五個年間大邱府と浦項面との負擔額に就て餘りに均衡が取れて居ないやうであるか如何と質し泰内務部長は數字の上から見ますと均衡を失して居るようでありますが大邱府としては本年度に水道敷設市街整理其他の施設が

<제3회 경상북도 도평의회 '질문전(質問戰)' 기사. 1923. 3. 16. 『조선시보』 2면>

[해제3]

잡지 『경북』으로 보는 일제강점기 경상북도의 제지 산업

- 경주군 제지업을 중심으로 -

박려옥(제주대학교)

잡지 『경북』의 제지 관련 기사들

일제강점기, 경상북도의 제지업(製紙業)은 대표적인 산업으로서 잡지 『경북』에도 적잖이 등장한다. 이에 본 해제에서는 『경북』에 수록된 제지업에 관한 글과 당시의 책자 및 신문 기사를 통해 일제강점기 경상북도 제지업의 일면을 들여다보고자 한다.

먼저, 『경북』 1922년 11월호(3권)에서는 「경상북도 제지공업」이라는 제목으로 경상북도 제지의 기원, 현황, 원료 및 제품, 제지 조합, 제지 강습회, 장려 정책, 판로, 생산액 등 제지와 관련된 제반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에 따르면 경상북도 제지는 신라시대 때, 중국에서 경주로 전해진 것을 시작으로, 당나라 때는 경주산 종이를 바쳤기에 ‘공물지(貢物紙)’라는 이름이 생겨났다고 한다. 이후 공물지는 지방에서 나라에 공물로 바치는 종이를 이르는 말로 쓰이게 되었다. 그리고 대가야 시대에는 지세(紙稅)를 징수하는 관청까지 생겼으며 중앙정부가 필요로 하는 종이는 모두 경상북도에 공급했으나, 이후 “정치가 해이해짐에 따라” 제지업이 쇠퇴했다고 설명한다.

이처럼 내리막길을 걷던 경북의 제지 산업은 총독부 정치가 시

작되고 나서 “관민이 일치 협력하여 쇄신”을 꾀한 덕에 다시 부흥했다고 강조한다. 경상북도의 주요 지역 8곳에 은사(恩賜) 수산(授産) 제지 전습소를 설치하였고, 1916년에는 이를 통일하여 경주에 제지장을 설치하였다가 1921년에 민간에 이양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각종 제지 개량 정책들을 들고 있는데, 교육을 담당하는 기술원(員) 배치, 1914년부터 제지 개량 기구를 구입하는 자에게는 보조비 지급, 1917년에는 주요 산지인 경주와 영덕에 제지조합 조직 설치, 1921년부터는 경주, 영일, 영덕, 청도, 경산, 김천 6개 군에서 개최된 제지 강습회와 같은 것들이다. 이외 통계 자료로 1915년부터 1921년까지 제지의 원료인 닥나무껍질 생산액 추이 및 1911년부터 1921년까지 한지와 와시(和紙) 즉 일본 종이의 생산액, 해마다 늘어나는 제지업 종사 호수(戶數)와 인원수를 보여준다.

이어서 『경북』 1923년 1월호(5권)에서는 「경산군의 제지」라는 제목으로 경상북도의 주요 종이 생산지 중 경산군 용성면 송림동을 중심으로 경산군 제지업의 기원 및 역사, 송림동에서 생산하는 종이의 종류를 소개하고 있다. 구전에 따르면, 용성면의 제지 역사는 300여 년 전, 송림사의 승려가 처음으로 부근 야생의 닥나무로 시험 삼아 종이를 만든 것이 그 시작이었다고 한다. 참고로 송림이라는 마을의 지명은 소나무가 우거져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며, 송림사가 있던 마을 주변에는 닥나무가 많이 서식하고 있었다. 용성면 제지의 출발점인 송림사는 현 용성리 마을 동북쪽에 있었던 신라시대 고찰이었으나, 큰 화재로 인해 소실되어 송림지(松林池)와 송림댐 사이 절터만 남아 있을 따름이다.¹⁹⁴⁾

194) 『사탑고적고(寺塔古蹟攷)』에 “송림사 터는 경상북도 경산군 용성면 송림동에 있고, 삼층석탑이 있는데 높이는 약 5척(尺), 대석(臺石) 폭은 1척 4촌(寸)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일제강점기 조사 기록에 따르면 송림동 절터에는 높이 1.5m의 동·서 석탑이 있었다고 한다. 동탑은 1920년대에 주민

구한말까지 송림동은 영남권에서 한지 제작 마을로 알려졌고, 마을 주민들의 대다수가 제지업에 종사하면서 용성면에서도 손꼽히는 부촌이었다고 한다.¹⁹⁵⁾

다시 『경북』의 글로 돌아가면, 용성면에서 생산한 종이는 200여 년 전에는 중국 영시(令市)의 약봉지로 수출되는 등 번성했으나, “기술 연마를 게을리하고 상업적인 기회를 놓치는 바람에 쇠퇴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앞서 본 「경상북도 제지공업」 기사와 마찬가지로 ‘신정(新政)’ 즉 총독부 정치가 시작되고 나서 “당국의 열성적인 지도 장려와 제지업자들의 반성과 노력의 공”으로 최근에 성황을 보이고 있음을 강조한다. 구체적인 지원책으로는 조합 조직을 비롯하여 1916년부터 농회 회원에게 실시한 닥나무 묘목의 유·무상 배포, 1917년부터 시행한 지방비 보조 및 전임 기술원을 배치한 것을 들고 있다. 이 밖에도 ‘장려상 주의점’으로는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는, 노천에서 행해지는 재래 조선식 제지 방법 및 규격화되지 못한 종이 치수와 품질에 대해 지적하고 1920년부터 지방비 보조를 받아 노후된 제지 기구를 개량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정책의 성과로서 1917년부터 1921년까지 경산군의 닥나무껍질과 제지 생산 증가, 호수, 남녀 종업원 수, 경산군의 제지 생산지 즉, 용성, 하양, 남천, 남산 지역별 닥나무껍질 생산액과 용성면의 종이별(창호지, 백지, 피지,

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경을 위해 경상북도 경찰간부의 관사로 옮겨졌으며, 서탑은 1943년 송림지(松林池) 축조 당시 둑의 석축으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디지털경산문화대전> 참조.

<https://gyeongsan.grandculture.net/gyeongsan/toc/GC08100528?requestBy=%ec%a0%84%ea%b5%ad>

195) <디지털경산문화대전> 참조.

<https://gyeongsan.grandculture.net/gyeongsan/search/GC08101201?keyword=%EA%B2%BD%EC%82%B0%20%EC%86%A1%EB%A6%BC%EC%82%AC&page=1>.

환지) 생산고, 호수, 남녀 종업원 수 등의 통계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참고로 1921년 경산군의 지역별 제지원료 및 용성면의 제지 생산에 관한 수치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1〉 1921년 경산군의 제지원료 닥나무껍질 생산

면 이름	작부반별(町步) ¹⁹⁶⁾	수확고(관)	가격(원)	제지 소비량(관)	제지 이외 소비량(관)
용성	16,900	5,028	5,028,000	4,985	43
하양	5,000	240	240,000	205	35
남천	5,500	160	160,000	48	112
남산	1,500	31	31,000	16	15
합계	13,1000 ¹⁹⁷⁾	5,459	5,459,000	5,254	205

〈표 2〉 1921년 용성면의 제지 생산

종이 종류	생산 수량(괴)	가격/원	경영자 수	제조 호수	닥나무 수	종업원 수 남/여
창호지	105	7,350	113	131	85	333/170
백지	3,367	50,505				
피지	50	1,750				
환지	450	1,800				
합계	3,972	61,405	113	131	85	333/170

요컨대, 잡지 『경북』에서 다루는 제지 산업 관련 기사의 일관된 논조는 과거, 경북의 종이가 이름을 떨쳤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해이, 종사자들의 안일함, 생산성이 떨어지는 조선식 제지 공법 탓에 명성을 잃고 쇠퇴일로로 걸었으나, 일제의 정책으로 인해 다시금 부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본 『경북』 1923년 4

196) 1町步는 약 3,000평.

197) 합계 금액은 28,900으로 오기로 보임.

월호(8권)에 수록된 제지 관련 기사들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해당 호에서는 「경주군 제지 개황(概況)」, 「경북 종지와 일본」 그리고 「제지 강습소 종료」라는 제목으로 3건의 기사를 수록하고 있다. 먼저, 「경주군 제지 개황」에서는 당시 경상북도에서 수위를 차지하던 경주군의 제지 산업을 다루고 있는데, 제지 조합을 조직하여 “오래된 폐풍(弊風)을 교정하여 제지업의 개량 발달을 도모”한 성과로 조합원 수, 임원 및 사무원(임원, 직원, 검사원), 경비, 생산액(한지, 와시), 종사자 호수, 종업원 수, 종류별(백지, 공물지, 창호지, 기타) 생산을 구체적인 수치로 보여주고 있다. 1923년 4월호(8권)의 본문에서 나타낸 표에서 보듯이, 당시 조합원은 2,000명을 헤아렸고 1922년 1월 현재 한지의 생산액이 223,000여 원, 와시는 1,900원, 4~12월 조사 결과, 한지는 백지가 공물지보다 3배 정도 생산이 많았고 창호지는 공물지의 1/10 정도였다.

한편, 「경북 종지와 일본」은 경북 종지의 판로를 다룬 것으로, 최근 경산군 용성면 송림동에서 생산한 ‘개량’ 한지의 수출을 타진하기 위해 시험 삼아 시즈오카현(静岡県)으로 보낸 결과 “거의 유례가 없을 정도로 우량한 성적”을 거두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제지 강습소 종료」 기사는 경상북도 제지업의 주요 산지인 영덕, 영일, 경주, 경산, 청도, 김천 6개 군에서 제지 강습회를 개최하여 강연 및 실지 지도를 했다는 내용으로, 강습 인원은 140명, 참관한 제지업 종사자는 850명에 달했다고 전한다.

이처럼 일제는 경북의 제지업이 지니는 가능성을 발견하고 경북의 주요 특산품으로 육성하고자 한 것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수치상으로는 상당한 생산력 증가를 보이는 것도 사실인데,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경주군에서 생산되는 종이였다.

일제강점기 경주군의 제지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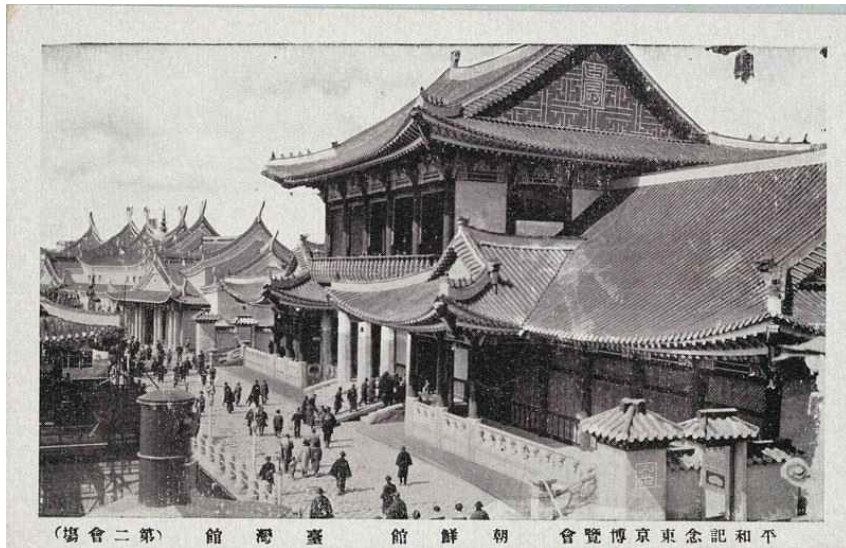
일제가 경주산 종이가 지닌 장래성에 주목한 것은 이미 한일 강제 병합 직후부터 확인된다. 『신라고적 경주안내』(1913)라는 책자에서는 경주의 명소, 고적 안내뿐만 아니라 「제조 공업의 앞날」이라는 제목으로 경주의 산업도 다루고 있는데, 다음과 같이 제지업을 꼽고 있다.

경주의 장래라는 문제는 곤란한 동시에 흥미로운 문제이다. 교통기관이 발전하고 원료 수입과 가공품 수출이 용이해 진다면 경주는 원래 공업지역으로서 특별한 본바탕이 있으므로 적어도 제지업이나 요업은 반드시 어느 정도까지는 발달할 것이다. 경주 종이라 하면 유명해서 한국정부 시대에는 관영 제지장을 마련하여 중앙정부에 필요한 용지는 거의 전부 이곳에서 공급했을 정도라고 한다. 향후 교통편이 좋아져서 경주가 교통상 고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벗어난다면 으뜸가는 은혜는 우선 이 제지사업에 내려질 것이다. 다만 원료 공급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이 사업을 발달시킬 수가 있을지가 문제이다.

『신라고적 경주안내』

당시 경주에서 생산되는 종이의 종류는 본 1923년 4월호(8권)에 수록된 「경주군 제지 개황」에 잘 나와 있는데, 백지, 공물지, 창호지, 온돌지, 장지, 그리고 와시였고, 이들 경주산 종이는 질기고 튼튼하기로 유명했다. 상품성을 인정받아 공물지는 중국으로, 백지는 조선 북부 지방으로 수출되어 창호에 붙이거나 모피안쪽에 대는 용도 혹은 건축 보조 재료로도 사용되었다. 이러한 우수한 품질을 증명하듯 경주산 종이는 1922년 ‘평화박람회’에서 은패, ‘전국 제지업 박람회’에서는 금패를 받았다고 전한다. ‘평화박람회’란 1922년 3월 10일부터 7월 31일까지 일본 도쿄

우에노(上野) 공원에서 개최된 ‘평화기념도쿄박람회’로 <사진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선관’을 마련하여 조선의 특산물 소개, 미술품 전시, 온돌 가옥 재현과 금강산 모형 등을 선보였다.¹⁹⁸⁾ 경주산 종이는 경상북도의 특산물 중 하나로 출품되었고, 이는 앞서 간행된 『경북』 1922년 창간호(1권)에 수록된 「평화박람회 수상자」 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사에 따르면, 당시 경상북도가 출품한 특산품은 67점이었고 이중 경주군 제지조합이 출품한 한지가 ‘화업공업’ 부분에서 은상을 차지한 것이다.¹⁹⁹⁾



<사진 1> 평화기념도쿄박람회 ‘조선관’(도쿄도립도서관 소장)
그리고 ‘전국 제지업 박람회’에서 수상한 건에 대해서는 『경

198) 中江桂子(2022)「植民地朝鮮における博物館・博覧会・観光 -1910~1930を中心に-」, 『エキシビションとツーリズムの転回』関西大学経済・政治研究所, p.173.

199) 경상북도 출품작은 은상 8점, 동상 5점, 표창장 15점으로 합계 28점이 입상하였다. 은상은 경주 한지 이외, 달성군 조선부식농원의 사업개황, 영주군 풍기삼업조합의 토산인삼, 상주군 농회의 대두 상주종, 칠곡군 이시바시 고운(石橋耕雲)의 사과, 영천군 농회의 면, 의성군 기업조합의 백목면, 안동마포조합의 삼베였다.

북』 1923년 4월호(8권)에 수록된 「경상북도 산업자문회」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1922년 10월 나고야시(名古屋市)의 상품진열소에서 개최된 ‘전국 제지업 박람회’에 경주군 제지조합이 출품한 한지가 ‘진보 1등상 금패’를 수상했다는 대목이 나온다. 이처럼 잡지 『경북』의 기사들을 통해 1920년대 경주군의 종이 상당히 좋은 평가를 얻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실은 이미 1910년대부터 경주산 종이는 두각을 나타냈다.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1916년 10월 31일자 『부산일보』의 「경주군의 제지사업; 생산액은 조선전체에서 1등」을 들 수 있다. 해당 기사는 경상북도에서 제지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주 제지업의 위상을 보여주는데, 당시 경상북도의 제지 생산액은 연간 20만 원 이상으로, 이는 조선에서 1등이었고²⁰⁰⁾ 경상북도의 공산물 중에서는 3위에 해당되는 규모였다. 그리고 역시나 경상북도의 제지 산업을 이끄는 곳은 단연 경주로, 1915년도 생산액은 143,258원이었고, 중국과 조선 북부 지방으로의 수출액은 각각 6만 원, 3만 원이었다.

경주군 중에서도 제지 산업이 특히 활발했었던 곳은 양북, 양내, 산내면으로, 『부산일보』는 「경주 종이의 연혁」(1918년 9월 27, 29, 30일자)이라는 제목으로 해당 지역의 제지업 기사를 특별히 연재로 싣기도 하였다. 이들 지역은 공통적으로 산지에 위치해 있으며 평야가 적은 것이 특징으로,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진 양북면의 종이는 ‘동해지(東海紙)’라 불렸다. 그리고 ‘산내지(山内紙)’로 불리는 산내면에서 생산되는 종이의 역사 또한 수백 년을 헤아리며, 품질이 우수하여 조선 각지는 물론 중국으로도 수출되었다. 신문 기사의 논조는 앞서 본 『경북』과 별반 다르지 않는데, 즉 ‘신정’이 시작되고 나서 조악한 품질과 퇴보한 제조법을

200) 참고로 경남은 18만 원, 전북은 10만 원, 충북은 5만 원이었다.

개량하는 시책들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외, 각 마을의 제지 생산액, 제지업 종사 호구 수뿐만 아니라, 주요 제지업자들의 이름, 그리고 근교 지역으로의 판매 현황도 보여주고 있는데, 양북면과 산내면의 경우를 표로 정리하여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3> 양북면과 산내면 제지의 판매 현황

지역	판로/ 금액	합계
양북면	부산: 1,080괴/ 23,760원 대구: 550괴/12,100원 감포: 1,780괴/ 29,160원 포항: 150괴/ 2,300원	3,560괴/ 78,320원 ²⁰¹⁾
산내면	부산: 410괴/ 9,200원 대구 2,300괴/ 50,600원	2,710괴/ 59,800원

이렇듯 잡지 『경북』 과 당시 신문 기사는 일제에 의해 얼마나 경주의 제지업이 발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데 주력하고 있는 한편, 제지의 연원, 역사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이하 ‘경주 동천지’를 중심으로 관련 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경주 동천지(東川紙)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주에서 생산된 전통 한지의 역사는 신라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는 당시 신라가 불교국가로서 경전 필사와 같은 불교 관련 수요가 주요한 요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불국사 석가탑에서 발견된 통일 신라의 불경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755)의 경우는 백지를 사용했으며 발문에는 종이를 만든 사람(紙作人)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경주 한지의 유서 깊은 역사에 대해서는 『경북』 1922년 10월 호(2권)에 수록된 「평화박람회 수상 조선 종이(朝鮮紙)에 대해」

201) 합계 금액은 67,320원으로 오기로 보임.

라는 글에서도 다루고 있다. 경주군의 제지 기원에 대해서는 신라 파사왕 혹은 진흥왕 때, 김부칠(金否漆) 등에게 명하여 국사를 저술하게 하면서 중국에서 제지 기술을 전수 받은 것이 시작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양북면과 내동면에 소재하는 제지 유적지를 들고 다음과 같이 제지에 얽힌 전설과 현상품 종이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어느 해에 징지사(徵紙使)가 종이를 거두러 다니던 중에 홍수를 만나 불행히도 익사하여, 그 이후에 관에서 현재의 동천리(東川里)에 공장을 건설했다고 한다. 현재 용수를 모아둔 곳 부근에 둘레 3장(丈) 남짓의 커다란 느티나무를 볼 수 있는데, 이는 그 공장 건설 이후에 심은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조선왕조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왕가 용지 및 관청 용지를 납품해 온 것 같다. 직경 4자 4치에 깊이 1자 5치에 이르는 왕실이 하사한 가마솔까지 설치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파손되어 단지 그 일부를 다시 구조하여 사용하고 있다. 또한 당시에 제지 원료는 공장 사용량만 관명에 따라 각 생산지에서 징수했는데, 특히 현상품 제작에는 가장 공을 들여 원료를 엄선했다고 한다.

『경북』

이 동천리에서 생산되는 종이에 대해서는 1927년 12월 4일자 『부산일보』의 「경주제지의 원조 동천지(東川紙)는 신라 전래의 것」이라는 기사에서도 다루고 있다. 내용은 우에다(上田) 산업기술(技手)의 이야기를 채록한 것으로 일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경주군 동천제지 공장의 창설 연대를 상세히 알 수는 없으나 다음 전설에 따르면 신라시대인 것으로 보인다. 신라시대에는 현재 양북면 지림사(현존) 및 내동면 황용사(黃龍寺) 두 곳 절에

서 제지를 경영하는 것 외에는 제지공장이 없었다. 이들 공장은 왕가의 헌상지 및 관아용지의 제조 납입을 임무로 하였다. 어느 해 징지사가 징수 도중에 홍수를 만나 익사하는 일이 있었다. 이후 관에서는 불편을 느껴 현재 동천리 공장을 건설했다고 한다. 현재 용○장 부근에 둘레가 3장(丈) 1척(尺)²⁰²⁾이 되는 큰 느티나무가 있다. 이 공장이 건설된 이후에 심어졌다고 하니 공장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를 알기에 족하다. 이후 이조(李朝) 시대에 이르러 계속해서 왕가의 어용지 및 관아용지를 납입해 왔으나 약 30년 전부터는 납입이 끊어졌다고 한다.

이 공장에는 하사받은 가마가 있다. 연대는 확실치 않으나 여름철 피서를 위해 어른 2명이 누워 잠자도 좁은 감이 없다고 하니 얼마나 큰지를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약 45년 전 설치된 가마가 파손되어 사용할 수 없어 새로 주조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다. 그 크기는 직경 4척 4치(寸), 깊이는 1척 5치이다. 공장에서 사용하는 제지 원료는 과거, 관(官)의 힘으로 각 생산지에서 모았고 특히 헌상품 제조에는 저명한 산지에서 징수했다고 한다.

그리고 제지 개시 전에는 매년 성대한 제식(祭式)을 거행했는데 지금도 그 풍습이 남아 있다. 공장 중앙 기둥에 붙은 글귀는 '지품이남제일상(紙品二南第一上)'이라고 되어 있다. 공장에서 사용하는 약품(목탄)은 매년 지림사에서 납입 받아 헌상지 포장용 종이 제작 때 쓰고 불국사에서는 마포를 납입했다고 한다.

또한 왕년에는 공장관리자 및 직공은 관으로부터 상당한 봉급을 지급받아 사람들로 부터 존경받았으나 헌상이 폐지되면서 봉급도 폐지되어 완전히 개인이 제지업을 하는 곳이 되었다. 황용사에는 지금도 지답(紙畚)이라고 불리는 것이 현존한다.

『부산일보』

눈에 띄는 내용으로는 조선 왕실로부터 하사받은 제지 도구, 거대한 크기의 가마가 있었다는 것, 보통 주변에 있는 닥나무에

202) 1丈은 3.788m이며 1尺은 37.88cm 그리고 1寸은 37.9cm이다.

서 채취하여 종이를 만드는 것과는 달리, 최상품을 제작하기 위해 각지에서 원료를 모아 종이를 제작했다는 점 그리고 종이를 만들기 전 제사를 지냈고 그 풍습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주목할 만한 것은 당시 제지업에 종사하는 이들의 자부심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즉 공장 중앙의 기둥에는 동천지의 품질이 영·호남에서 으뜸이라는 ‘지품이남제일상(紙品二南第一上)’이라는 글귀가 붙어 있었고 과거 직공은 관으로부터 높은 봉급을 받는 등 존경의 대상이었다는 것이다.

이상, 잡지 『경북』에 수록된 제지업 관련 내용과 당시 책자 및 신문 기사 등을 통해 경상북도 제지 산업의 일단을 살펴보았다. 일제는 경주 제지업의 가능성을 간파하고 경북의 주요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였고, 그 성과 또한 각종 통계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는 경주산 종이의 전통과 기법을 존중하고 보존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개량’의 대상이었으며 내지 일본이나 만주 지역과 같은 해외로의 수출까지도 목표로 한 공산품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내용은 지금은 잊힌 경상북도 제지업, 특히 조선의 운명과 궤를 같이 한 경주산 종이, 동천지의 흥쇠, 일제강점기에도 묵묵히 자부심을 가지고 그 명맥을 이어가던 제지 장인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귀중한 자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해제4]

일제강점기 일본인이 실시한 경상북도 양반 조사

박승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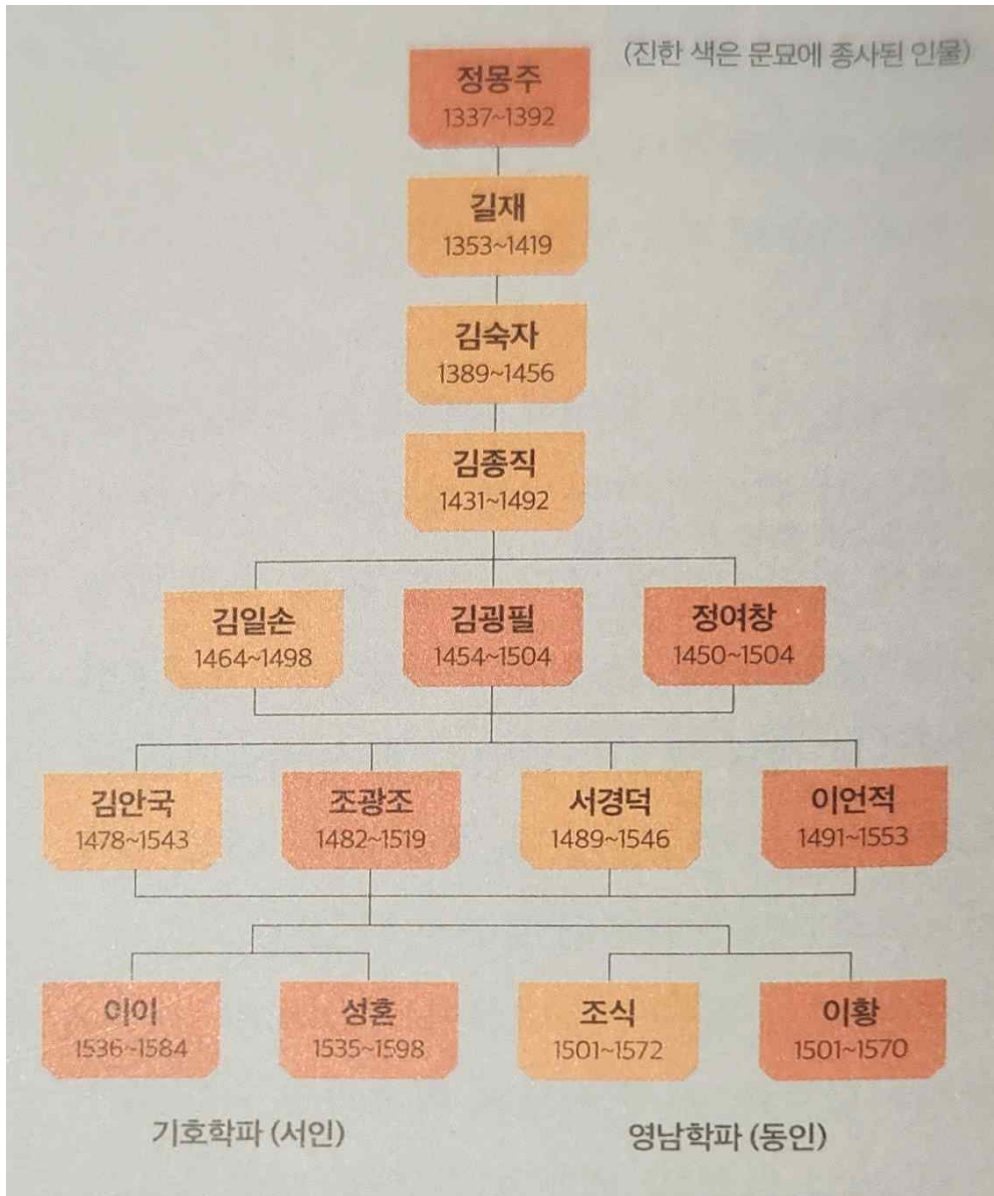
1. 『경북』에 수록된 경상북도 양반의 계보와 인물 소개

『경북』1923년 1월호(5권)와 『경북』1923년 4월호(8권)에는 경상북도의 양반을 조사한 내용이 나온다. 이 보고서에서는 경상북도에서 문벌이라 불리는 양반 가문이 어떻게 생겨났고 학문적으로는 어떻게 계승되었는지를 서술하고 있다.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경상북도 양반의 계보가 고려 말에서 시작되었다고 보고 정몽주의 제자인 길재에서부터 조선 후기 퇴계문하의 인물들까지 총망라하여 그들의 학맥을 설명하고 있다. 익히 알려져 있듯이 경상북도의 양반은 ‘사림(士林)’ 혹은 ‘사림파’라 불리는 사람들로 현재 학계에서는 영남학파 사림으로 분류한다. 사림은 원래 고려 말 조선 초기에 이성계의 역성혁명에 반대하여 관직에 나아가지 않고 향촌사회에서 자신들의 세력을 형성한 이들을 의미했다. 『경북』의 기록에 ‘사림’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지는 않지만, 원문의 저자가 소개하는 경상북도 양반의 계보는 현재 학계가 정리한 사림의 계보와 거의 비슷하다. 참고로 현재 학계에서 정리한 사림의 계보는 <그림1>과 같다.

보고서의 저자가 정몽주와 길재와 같은 고려시대 유학자를 언급한 것은 당시 경상북도의 양반은 대체로 고려 말기부터 조선시대에 출현한 고관대작과 대학자 등의 후손이라는 점에서이다. 정몽주 이전의 인물로는 『삼국사기』의 저자인 김부식과 최치원의

후손 최해, 조선 최초의 주자학자라는 설이 있는 안유 등도 고려

< 그림 1> 『아틀라스 한국사』²⁰³⁾



시대 유학자로서 경상북도 유학자들의 모범이 된 인물로 꼽고 있다. 사람의 계보는 <그림1>에서 보듯이 길재의 제자인 김숙자와

203) 한국교원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진 지음 『아틀라스 한국사』 2022, p.118.

그의 아들인 김종직, 그 문하인 김굉필(정여창, 김일손)→조광조, 이언적→이황 순으로 이어진다. <그림1>의 계보와 이 보고서의 차이는 김굉필에서 조광조로 넘어가는 학맥을 설명하면서 이언적을 조광조의 제자로 소개하고 있는 점이다. 그것 이외에는 <그림1>의 계보와 『경북』에서 소개하는 계보는 거의 대동소이하다. 즉, 정몽주→길재→김숙자→김종직→김굉필(정여창, 김일손)→조광조→이언적→이황 순으로 설명하고 있다. 1923년 당시는 아직 조선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연구나 서적이 나와 있지 않았다. 따라서 저자가 파악한 경상북도 양반의 계보는 상당히 선구적인 연구라 할 수 있는데, 그는 어떤 목적으로 이런 조사를 실시한 것일까? 보고서에 저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누가 쓴 글인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²⁰⁴⁾, 이 보고서가 나온 1923년은 조선총독부가 <조선사학회>를 설립한 해이기도 하다. 조선사학회는 1923년 4월에 조선총독부를 중심으로 일본인 관료 및 학자들과 정재계인사, 그리고 일부 조선인 귀족 및 학자들이 가담하여 설립한 관변 학술단체이다. 조선총독부는 식민지 통치를 위해 조선사 편찬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조선사학회도 그 일환으로 설립되었다.²⁰⁵⁾ 이 학회는 설립 후 1923년부터 1924년 사이에 수차례 강연회를 개최하고 매달 강의록 『조선사강좌(朝鮮史

204) 보고문에 이름이 명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편집자 겸 주필인 니시에 야스(西江靖)의 글일 확률이 높으나 확실하지는 않다.

205) 일제는 한일병합 이후 식민지 통치를 위해 조선 구관제도(구 관습 및 제도) 조사, 사료조사, 조선고적조사 사업 등을 실시하였고, 1915년부터는 조선총독부 중추원 주도로 『조선반도사』 편찬사업도 실시하였다. 그러나 사료 수집 및 정리에 한계가 있어 『조선반도사』 편찬 사업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중지되었다. 그러다 1921년에 사이토 미노루 총독의 발의로 재차 조선사편찬위원회 설치 계획이 나왔고, 이듬해 12월 총독부 훈령(제64호)으로 규정이 확정되었다. 조선사학회는 이른바 조선사편찬위원회에 소속된 인물이 대부분 그대로 참여하고 있는 단체라 할 수 있다.

講座)』를 발행하여 회원들에게 배포하였다.²⁰⁶⁾ 그러나 조선사학회의 첫 강연회가 열린 것은 4월 28일이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보면 이 보고서의 발표가 더 빠르다. 『경북』의 저자가 조선사학회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지만, 조선사학회 설립과 같은 시기에 『경북』에 이 기고문이 실렸다는 것은 잡지의 편집인이나 저자가 사전에 어떤 형태로든 조선총독부의 정책동향을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한편, 이 조사는 조선시대 양반 조사라고는 하지만, 조선시대에 국한하지 않고 신라시대와 고려시대 인물도 일부 소개하고 있다. 특히 8권 마지막 부분에는 약 7페이지 가량의 분량으로 부록처럼 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각 시대별로 경상북도가 배출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다. 인원수를 보면 신라시대 8명, 고려시대 22명, 조선시대 74명, 총 104명에 달한다. 이는 경상북도가 역사적으로 얼마나 대단한 인재들의 보고(寶庫)였는지를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경상북도에 대한 저자의 인식을 엿볼 수 있다. 이에 본 해제에서는 저자가 각 시대별로 어떤 인물에 주목했는지 알기 쉽게 각 시대별 인물데이터를 <표 1>과 같이 정리하였다. 참고로 원문에서는 각 시대별 인물을 그들이 활동한 시기 순(왕조)으로 정리해 놓았지만, 본 해제에서는 가독성을 위해 가나다 순으로 정리했다.

206) 조범성 「일제강점기 朝鮮史學會의 활동과 근대사 인식」 『한국민족운동사연구 84』, p.88.

**<표 1> 일제강점기에 일본인이 조사한 경상북도 역사 인물 데이터
(가나다순)**

시대	번호	인명	인적사항
신라	1	김양(金陽 808~857)	신라의 왕족, 공신
	2	김유신(金庾信 595~673)	무신. 신라의 삼국통일 달성에 기여한 장군
	3	김인문(金仁問 629~694)	진골왕족. 태종 무열왕의 아들, 문무왕의 친동생
	4	김후직(金后稷 생물연도 미상)	지증왕의 증손이자 진평왕 대의 충신
	5	박제상(朴堤上 363~419)	신라의 충신. 파사왕 5세손, 영해 박씨의 시조
	6	설총(薛聰 655~미상)	이두문자를 집대성한 학자. 원효대사의 아들
	7	원효(元曉 617~686)	7세기에 활동한 신라의 고승. 본관은 경주
	8	최치원(崔致遠 875~미상)	신라 말기의 문신. 호는 고운, 본관은 경주
고려	1	권보(權溥 1262~1346)	고려 후기 문신. 호는 국재, 안유의 문인
	2	길재(吉再 1353~1419)	고려 말 조선 초 문신. 호는 야은, 본관 해평(구미)
	3	김구용(金九容 1338~1384)	고려후기 문신. 호는 육우당, 척약재
	4	김부식(金富軾 1075~1151)	고려 전기 문신. 『삼국사기』저자, 호는 뇌천
	5	김인경(金仁鏡 생물연도 미상)	고려 명종 때 무신.
	6	박의중(朴宜中 1337~1403)	조선전기 문신. 밀양 출신
	7	배현경(裴玄慶 미상~936)	고려 전기 공신, 무신.
	8	백이정(白頤正 1247~1323)	고려 후기 문신. 호는 이재, 안유의 문인
	9	안유(安裕1243~1306)	고려 말 문신. 호는 회현, 안향(安珦)으로 개명. 영주 출신
	10	안축(安軸 1282~1348)	학자, 호는 근재, 본관은 순흥
	11	우탁(禹倬1262~1342)	고려 말 문신, 호는 역동, 안유의 문인
	12	이곡(李穀 1298~1351)	고려 말 문신, 호는 가정, 권보의 문인
	13	이규보(李奎報 1169~1241)	고려 문신. 호는 백운거사
	14	이달충(李達衷 1309~1385)	고려 후기 문신, 호는 제정, 본관 경주
	15	이색(李穡 1328~1396)	고려 후기 문신. 호는 목은, 영해 출신
	16	이승인(李崇仁 1347~1392)	고려 후기 학자. 호는 도은, 본관 성주
	17	이인복(李仁復 1308~1374)	고려 후기 문신. 호는 초은, 본관 성주
	18	이제현(李齊賢 1288~1367)	고려 후기 문신. 호는 실재, 본관 경주
	19	이존오(李存吾 1341~1371)	고려 후기 문신. 호는 석탄, 본관 경주
	20	정몽주(鄭夢周 1338~1392)	고려 후기 문신. 호는 포은, 본관 연일.
	21	최항(崔沆 972~1024)	고려 전기 문신, 본관 경주
	22	최해(崔漵 1287~1340)	문신, 최치원의 후손. 호는 졸운, 본관 경주

시대	번호	인명	인적사항
조선	1	강신(姜紳 1543~1615)	조선후기 문신. 호는 동고, 상주 출신
	2	곽재우(郭再祐 1552~1617)	조선 중기 무신. 호는 망우당. 본관 현풍.
	3	곽초(郭超 생물연도 미상)	조선 중기 문신. 호는 존재, 곽재겸의 아버지. 본관 현풍.
	4	권근(權近 1352~1409)	고려 말 조선 초 문신. 본관 안동, 호는 양촌
	5	권벌(權機 1478~1548)	조선 전기 문신, 본관 안동, 호는 충재.
	6	권오복(權五福 1467~1498)	조선 전기 문신, 호는 수헌, 예천 출신
	7	김굉(金垵 1739~1816))	조선 후기 문신, 호는 구와(龜窩), 본관 의성.
	8	김굉필(金宏弼 1454~1504)	조선 전기 문신. 호는 한훤당, 본관 서흥, 달성 출신
	●9	김극일(金克一 1522~1585)	조선 전기 문신. 호는 약봉, 본관 의성
	10	김면(金沔 1541~1593)	조선 중기 학자. 임진왜란 의병장. 호는 송암, 고령 출신
	●11	김부필(金富弼 1516~1577)	조선 중기 안동(예안) 출신의 유생. 호는 후조당,
	●12	김성일(金誠一 1538~1593)	조선 중기 문신. 호는 학봉
	13	김숙자(金叔滋 1389~1456)	조선전기 문신. 호는 강호산인, 본관 선산
	14	김식(金湜 1482~1520)	조선전기 문신. 호는 사서. 본관 청풍.
	15	김안국(金安國 1478~1543)	조선전기 문신. 호는 모재, 본관 의성
	16	김영조(金榮祖 1577~1648)	조선 전기 문신. 호는 망와, 본관 풍산
	17	김우굉(金宇宏 1524~1590)	조선 전기 문신. 호는 개암. 본관 의성.
	●18	김우옹(金宇顛 1540~1603)	조선시대 문신. 호는 동강, 본관 의성
	19	김응조(金應祖 1587~1667)	조선 전기 문신. 호는 학사. 본관 풍산
	20	김정(金淨 1486~1521)	조선전기 문신. 호는 충암, 본관 경주
	21	김정국(金正國 1485~1541)	조선 전기 문신. 호는 사재. 본관 의성.
	22	김종직(金宗直 1431~1492)	조선 전기 문신, 호는 점필재, 본관 선산.
	23	김취문(金就文 1509~1570)	조선 전기 구미 출신의 문신. 호는 구암
	24	금난수(琴蘭秀 1530~1604)	조선 중기 문신, 호는 성재. 본관 봉화
	●25	노수신(盧守愼 1515~1590)	조선 전기 문신. 호는 소재, 본관 광주.
	26	박팽년(朴彭年 1417~1456)	조선 전기 문신. 호는 취금헌, 사육신.
	27	박은(朴聞 1479~1504)	조선 전기 문신. 호는 읍취헌. 본관 고령
	28	배극렴(裴克廉 1325~1392)	조선전기 개국 공신. 호는 필암, 본관 경산
	29	배삼익(裴三益 1534~1588)	조선 전기 문신. 호는 임연, 본관 흥해.

시대	번호	인명	인적사항
조선	30	심덕부(沈德符 1328~1401)	조선 전기 개국 공신. 호는 노당, 본관 청송.
	31	서거정(徐居正 1420~1488)	조선 전기 문신. 호는 사가정, 시호는 문충
	32	설장수(裨長壽 1341~1399)	고려 말 조선 초 공신. 호는 운재. 본관 경주
	33	신숙주(申叔舟 1417~1475)	조선 전기 문신. 호는 보한재, 본관 고령.
	34	유기복(柳起復 생물연도 미상)	조선 중기 무신.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 호는 기봉.
	●35	유성룡(柳成龍 1542~1607)	조선 중기 문신. 호는 서애. 본관 풍산.
	●36	유운룡(柳雲龍 1539~1601)	조선 중기 문신. 유성룡의 형. 호는 겸암. 본관 풍산
	37	유응부(柳應符 ?~1456)	조선 전기 무신. 시호는 충목. 본관 기계.
	38	유호인(兪好仁 1445~1494)	조선 전기 문신. 호는 뇌계. 본관 고령.
	39	여대로(呂大老 1552~1619)	조선 중기 문신. 임진왜란 의병장. 호는 감호. 본관 성주
	40	이광정(李光靖 1714~1789)	조선 후기 학자. 호는 소산. 안동 출신. 이상정의 동생.
	41	이광(李沍 1441~1516)	조선 전기 문신. 호는 귀래정, 본관 고성.
	42	이맹전(李孟專 1392~1480)	조선 전기 문신. 호는 경은. 선산 출신. 생육신
	43	이민환(李民喚 1573~1649)	조선 후기 문신. 호는 자암. 본관 영천
	44	이상정(李象靖 1711~1718)	조선 후기 학자. 호는 대산. 안동 출신.
	45	이언적(李彦迪 1491~1553)	조선 전기 학자. 호는 회재, 자계옹. 경주 출신.
	46	이언영(李彦英 1568~1639)	조선 후기 문신. 호는 완정. 본관 벽진(성주)
	47	이우(李堉 1469~1517)	조선 전기 문신. 호는 송재. 본관 진보.
	48	이원(李龜 미상~1504)	조선 전기 문신, 호는 재사당. 본관 경주. 박팽년의 외손자,
	49	이원록(李元祿 1514~1574)	조선 전기 문신. 호는 송담, 본관 덕수.
	50	이원정(李元禎 1622~1680)	조선 중기 칠문신. 호는 이암, 귀암, 칠곡 출신
	51	이의발(李義發 1768~1849)	조선 중기 문신. 호는 운곡, 의성 출신
	52	이제(李濟 미상~1398)	조선 초 개국 공신. 이성계의 부마, 본관 성주
	53	이직(李稷 1369~1431)	조선 전기 문신. 호는 형제, 본관 성주.
	54	이해(李滌 1496~1550)	조선 전기 문신. 호는 온계, 본관 진보. 이황의 형.
	55	이황(李滉 1501~1570)	조선 전기 문신. 호는 퇴계, 본관 진보.
	56	이현보(李賢輔 1467~1555)	조선 전기 문신. 호는 농암, 본관 영천. 예안 출신.
	57	이현일(李玄逸 1627~1704)	조선 후기 문신. 호는 갈암.

시대	번호	인명	인적사항
조선	58	장경우(張慶遇 1581~1656)	조선 후기 학자. 호는 만회당. 본관 옥산.
	59	장사길(張思吉 미상~1418)	조선 초기 개국 공신, 무신. 본관 안동.
	60	장현광(張顯光 1554~1637)	조선 후기 학자. 호는 여헌, 본관 인동.
	●61	정구(鄭逵 1543~1620)	조선 중기 문신. 호는 한강, 성주 출신.
	62	정경세(鄭經世 1563~1633)	조선 후기 상주 출신의 문신. 호는 우복
	63	정극후(鄭克後 1577~1658)	조선 후기 문신. 호는 쌍봉, 본관 영일.
	64	정도전(鄭道傳 1342~1398)	조선 초기 개국 공신, 호는 삼봉, 본관 봉화
	65	정세아(鄭世雅 1535~1612)	임진왜란 의병장. 호는 호수, 본관 영일.
	66	정충신(鄭忠信 1576~1636)	임진왜란 의병장. 호는 만운, 외가가 영천.
	●67	정탁(鄭琢 1526~1605)	조선 중기 문신. 호는 약포, 예천 출신.
	68	정희계(鄭熙啓 1348~1396)	조선 초기 개국 공신, 호는 양성헌, 본관 경주.
	69	최진립(崔震立 1568~1636)	조선 후기 무신. 호는 잠와. 본관 경주
	70	최현(崔暉 1563~1640)	조선 후기 문신. 호는 인재, 숙종 때 선산의 송산서원에 제향.
	71	허조(許綯 1369~1439)	조선 전기 문신. 호는 경암, 본관은 하양
	72	홍귀달(洪貴達 1438~1504)	조선 전기 문신. 호는 허백당, 상주 출신.
●73	황준량(黃俊良 1517~1563)	조선 전기 문신. 호는 금계, 본관 평해.	
74	황희(黃禧 1363~1452)	조선 전기 문신. 호는 방촌, 본관 장수.	

* 표에 정리된 인물의 생몰연도와 인적사항은 필자가 추가로 조사하여 보완한 것이다. ●표시는 원문에서 저자가 퇴계의 문하생으로 따로 정리한 인물이다.²⁰⁷⁾

2. 퇴계 이황과 서애 유성룡에 대한 관심

이 보고서는 『경북』 1923년 1월호(5권)에서 경상북도의 양반을 학맥 중심으로 개략적으로 소개한 뒤, 『경북』 1923년 4월호(8권)에서는 각각 3~4페이지 분량으로 퇴계 이황과 서애 유성룡의 전기를 싣고 있다. 저자는 학자와 정치가의 대표로 두 사람을 골랐

207) 『경북』에 소개된 퇴계의 전기 마지막 부분에는 퇴계의 제자 38명의 명단이 따로 정리되어 있다. 그 중 경상북도 출신(18명) 이름 앞에는 ○표시를 해 두고 있다. 이 표에 실린 인물 이외에도 조목, 구봉령, 권호문, 정곤수, 김 륜, 오운, 남치리, 조호익이 퇴계의 제자로 표기되어 있다.

다고 하지만, 사실 이 두 사람은 한일관계사 측면에서 보면 이미 에도시대(1603~1868)부터 일본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알려진 인물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퇴계는 일본 주자학 전래와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유명하다. 일본 주자학의 시조인 후지와라 세이카(藤原惺窩, 1561~1619)는 본디 오산의 승려였으나 일본에 사신으로 온 퇴계의 제자와의 필담을 통해 퇴계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되었고 이후 퇴계의 사상에 감화되어 불자에서 유자로 변신하였다. 또 임진왜란 때 퇴계학 관련 서적이 일본에 다량 반입된 이후, 퇴계는 일본유학자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그 중 퇴계의 모든 저술을 읽었다고 하는 야마자키 안사이(山崎闇齋, 1618~1682)는 퇴계를 주자의 수제자로 비유하며 ‘조선의 일인자’라고 극찬했고, 에도 말기의 대표적인 규슈학파 유학자인 요코이 쇼난(横井小楠, 1809~1869)은 월명 이래 “동서 절무(東西絶無)의 진정한 유학자”로 평가할 정도였다.²⁰⁸⁾

그리고 유성룡은 임진왜란의 전말을 기록한 『징비록』이 17세기 후반에 이미 일본에 유출되어 일본사회 전반에서 널리 읽혔기 때문에 이순신과 더불어 임진왜란의 영웅으로서 인지도가 있었다. 따라서 『경북』 1923년 4월호(8권)에서 저자가 경상북도의 양반 중 유독 이 두 사람의 전기를 소개한 것은 이러한 한일관계사에 따른 두 인물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 것일 것이다.

한편, 저자는 두 사람의 전기를 쓰기 위해 양 가문의 장서와 『연려실기술』을 참고로 했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일제강점기에 일본인이 경상북도 사림 연구를 위해 어떤 문헌을 참고했는지 알 수 있는 기록이라 의미하는 바가 크다. 『연려실기술』은 이금

208) 퇴계학의 일본 수용에 관해서는 成海俊(「退溪와 日本과의 遭遇에 關한 考察」 퇴계학논집, 2010, pp.1~28)의 연구 등이 자세하다.

익(李肯翊, 1736~1806)이 편찬한 역사서로 개인이 저술한 저서 가운데 최고의 역사서로 평가받고 있다. 야사류의 기록을 중심으로 편찬된 『연려실기술』에는 총 500권 이상의 저서가 인용되었으며, 술이부작(述而不作, 기술할 뿐 창작하지 않는다)의 원칙으로 서술되었다. 이 책은 크게 태조부터 현종까지 각 왕대의 중요한 사건을 엮은 ‘원집(原集)’, 이공익의 생존 시기인 숙종대의 사건을 서술한 ‘속집(續集)’, 역대의 관직을 위시하여 전례·문예·천문·지리·대외관계 및 여러 고전 등을 여러 편목으로 나누어 그 연혁을 기재하고 출처를 밝힌 ‘별집(別集)’으로 구성되어 있다.²⁰⁹⁾ 『경북』의 저자가 이 책을 참고로 해서인지 퇴계와 서애의 전기에는 그들이 생전에 어떤 벼슬을 거쳤는지 관직명을 서술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 두 사람에 관한 소개는 아무래도 전기 형식이다 보니 그들의 내력과 인물평, 역임한 관직에 대한 내용이 지면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일반적인 위인전과 다르지 않은 정도의 서술이라 할 수 있다. 또 유성룡의 전기에는 『해은집』의 내용을 인용한 부분이 있다. 『해은집』은 조선 후기 안동에서 활동한 강필효(姜必孝, 1764~1848)의 문집 및 편저이다. 목판본인 이 책은 24권(본집 20권, 부록 2권, 속집 2권) 13책(본집 11책, 부록 1책, 속집 1책)으로 되어 있다. 아마도 양 가문의 장서 목록에 들어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경북』의 저자가 경상북도 사림 연구를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는지 짐작되는 바이다.

3. 경상북도의 서원 소개

『경북』 1923년 4월호(8권)에는 앞서 소개한 두 인물의 전기에

209) 신병주, 「이공익의 『연려실기술』-‘술이부작’의 정신, 역사서의 모범-」, 『선비문화』22권, 2012, p.30.

이어 경상북도에 소재한 서원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다. 사림의 역사에서 서원은 빼놓을 수 없는 사항이라 어찌면 당연한 전개라고 할 수 있다. 조선 최초의 서원은 1543년 풍기군수 주세붕이 안향을 모시기 위해 영주에 세운 백운동서원이다. 이 서원은 후에 이 지방 군수로 부임한 퇴계의 건의에 따라 명종으로부터 ‘소수서원’이라는 편액을 하사받아 사액서원이 되었다. 사액서원은 국가로부터 토지, 노비, 서적 등을 하사받고, 면세와 면역 특권도 누렸다. 소수서원이 사액서원으로 승격된 이후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서원 건립이 활발해졌다. 서원은 선현에 대한 제사와 교육은 물론이고 사림의 결속을 강화하고 유교윤리를 보급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또한 지방에서 중소지주층의 지식인화를 촉진했으며, 사림을 확대 재생산하고 정치 여론을 형성했다. 그러나 서원마다 모시는 선현들이 따로 있어서 학파와 붕당을 결속시키는 구심점이 되기도 했다.²¹⁰⁾ 그러나 조선 후기에는 서원이 지나치게 많아져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게 되자, 1871년 흥선대원군이 서원철폐령을 내려 전국에 47개의 서원만 남기고 많은 서원을 획철해 버렸다. 『경북』의 기록에는 1군에 1개씩 40여개에 이르던 경북의 서원이 1923년 당시에는 모두 획철되어 9개만 남았다고 소개되고 있다. 9개의 서원은 <표2>과 같다.

210) 『아틀라스 한국사』 p.133 인용. 『경북』의 기록에는 서원이 수행한 순기능 보다는 국가 재정에 끼친 부담이나 붕당 정치의 폐해와 같은 역기능을 주로 언급하고 있다.

〈표 2〉 『경북』에 소개된 경상북도의 서원

소재지	서원명	건립 연도	사액 연도	위패가 모셔진 인물
영주	소수서원	1543	1549	안향
경주	서악서원	1561	1623	김유신, 설총, 최치원
	옥산서원	1573	1574	이언적
선산	금오서원	1572	1575	길재
현풍	도동서원	1568	1607	김굉필
안동	도산서원	1574	1575	이황
안동	병산서원	1575	1863	유성룡
상주	옥동서원	1518	1789	황희
	흥암서원	1702	1705	송준길

* 원문에 건립연도와 사액연도에 오류가 있어 필자가 새로 조사하여 정리하였다. 병산서원은 풍악서당에서 기원하고 있는데, 풍악서당이 병산으로 옮겨와 병산서원으로 불린 것이 1575년이라 건립연도를 1575년으로 하였다.

이상과 같이 『경북』에 수록된 경상북도 양반조사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이 보고서는 조선사학회 설립보다 더 일찍 발표된 것으로 일본인이 실시한 경상북도 사림 연구로서는 거의 최초나 다름없다. 그러므로 『경북』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인에 의해 실시된 경상북도 사림 연구의 기원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다. 이는 조선총독부의 조선사편찬 사업과도 궤를 같이 하고 있어 향후 이와 관련한 연구에도 충분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본다.